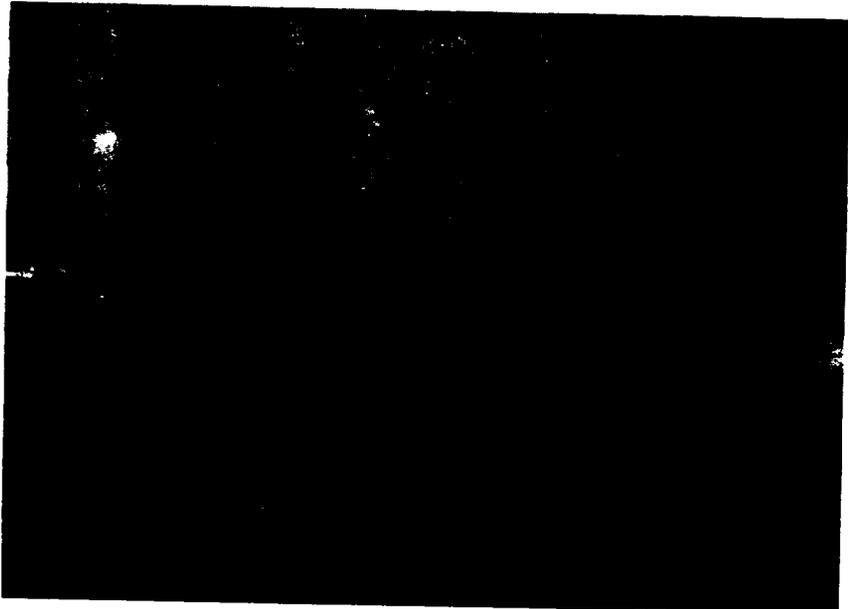


北濟州郡 舊左邑 漢東里  
現地學術調查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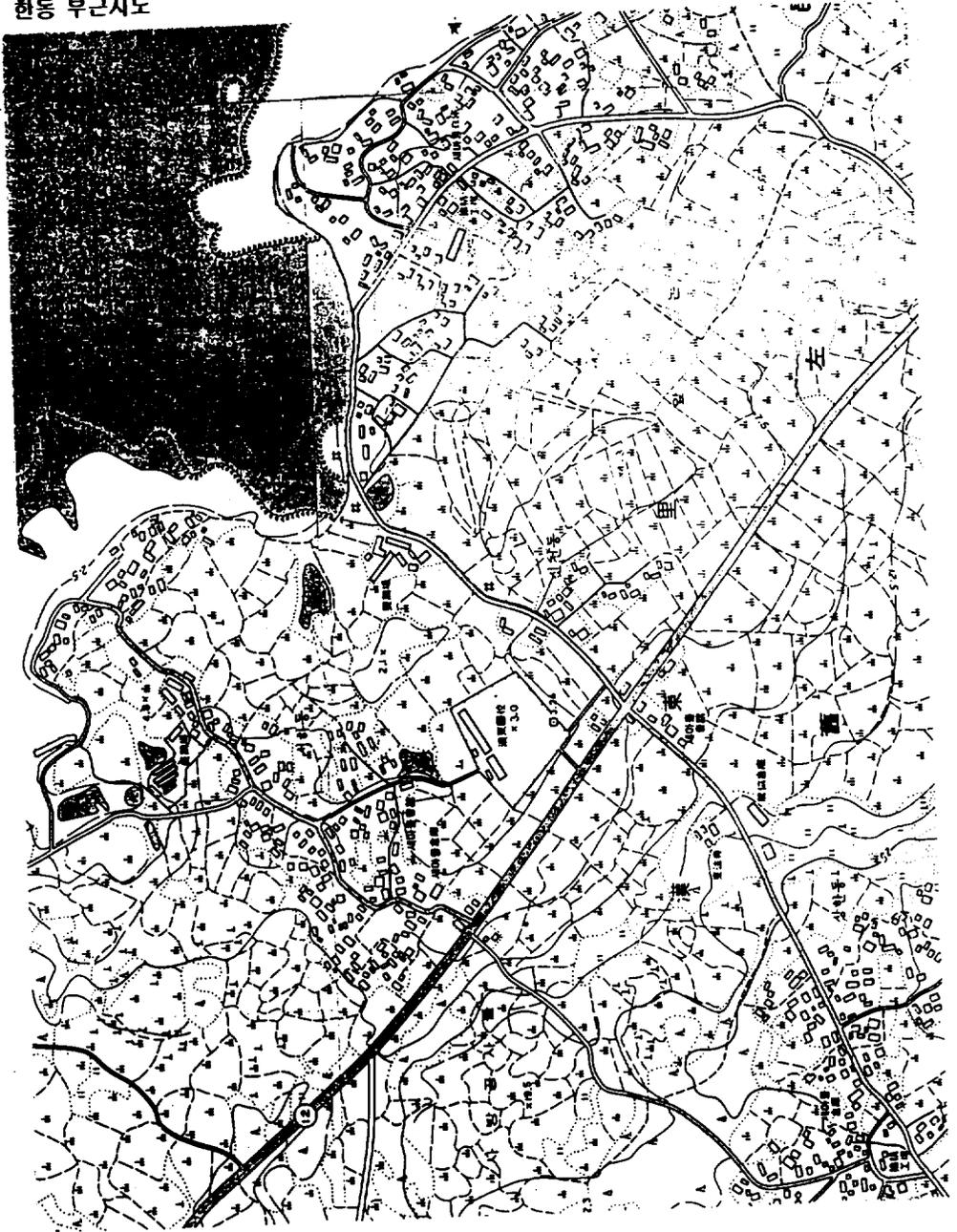
(1994. 7. 29 ~ 8. 1)

1. 調查經緯 / 196
2. 마을개황 / 199
3. 方言 / 203
4. 民謠 / 216
5. 說話 / 235
6. 信仰 / 283



(한동리 전경)

현동 부근지도





## 調查經緯

국어교육과에서 행하는 학술조사는 해마다 실시하는 행사이자 학습의 연장이다. 제주도 각 지역의 방언, 민요, 설화, 신앙 등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국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조사지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76년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를 시작으로 1994년 한동리까지 16차에 걸쳐 실시되었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처럼 우리대학교 국어교육과와 국어국문학과에서 그 동안 조사한 곳은 제주지역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지역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학술조사는 1994년 7월 29일(금)부터 8월 1일(월)까지 3박 4일간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에서 이루어졌다. 조사지인 한동은 동동, 서동, 상동의 3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조사자료는 상동에 밀집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세 차례에 걸친 사전답사를 함으로써 충실히 이루어졌다.

5월 25일 1차 사전답사는 한동 리사무소에 들러서 마을현황을 간단히 살피고 마을 주민 한 분(유승환)의 소개로 마을에 대한 대강의 유래담과 학교의 설립과정, 마을제 등에 대해 듣고 각 반에 도움을 주실 분들의 명단을 구했다.

6월 16일 2차 사전답사는 한동국민학교에 보관 중인 『향토지』를 통해 보다 정확한 마을 현황과 유래, 문화자료 등을 살펴보게 되었고, 각 반장들을 중심으로 현지 확인이 필요한 장소인 절, 할망당, 교회 등을 찾았다.

7월 11일 3차 사전답사에서는 각 제보자의 명단작성과 방학 중에 있을 학술조사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실질 조사에 앞서 이처럼 사전 답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동리 학술조사를 위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조사에는 예년과 다름없이 학과 재직교수, 재학생, 동문이 참가했다. 학술조사 지도는 김태곤·최규일(방언), 문성숙·안성수(설화), 윤석산(민요), 현용준(신앙) 교수님이 해 주셨고 조사반원은 다음과 같다(( )속은 재학 학년).

## 漢東里 學術調查報告

방언 : 김경옥(4), 강향선, 고금자, 안정희, 강순선, 김지순(3), 이태은, 오영수, 강  
전후, 강금희(1)

민요 : 현순영, 이경미(4), 한인숙, 윤상희, 변경숙, 양정미(3), 부상력, 이운정, 양  
선아, 최정은, 이승희(2), 김윤진, 정진, 장은섭(1)

설화 : 강필재, 양예란, 황문희(3), 김미정, 고정미, 현성미, 장미숙, 이수환(2), 문  
경은, 양은정(1)

신앙 : 강미영, 양지연(4), 이현숙, 전미선, 정루시아, 오수안, 김현주(3), 이효정,  
강지이, 김영희(2), 고경립, 김명성(1)

재학생 이외에도 문무병, 현승환, 변성구, 좌혜경, 강정식, 오동식, 양영길, 고정  
상, 전영희, 강철수 등 많은 동문들이 도움을 주셨다.

3박 4일간의 학술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일(7월 29일) : 오전 9시 30분 학교에 집결하여 인원, 장비를 점검하고 10시에  
학교버스를 타고 11시 30분경 한동국민학교에 도착하여 짐정리를 하였다. 1시부터  
점심식사를 마치고 1시부터 2시까지 마을 현황을 마을 어른께 들은 후에 반별 조  
사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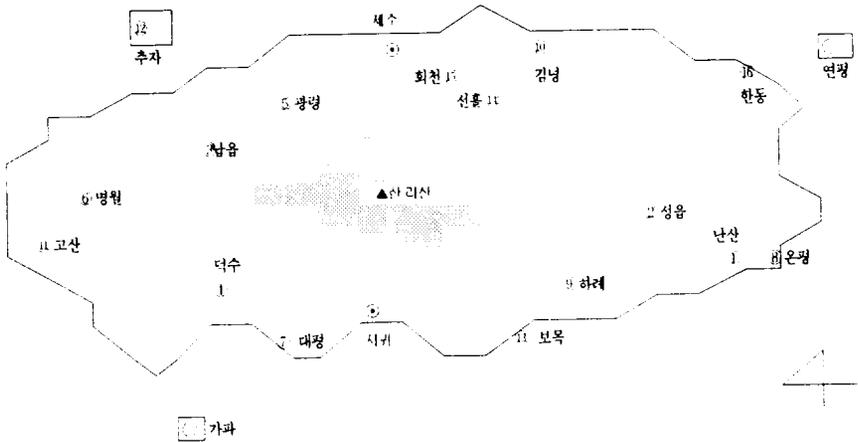
제2일(7월 30일) : 첫날의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제3일(7월 31일) :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자체 평가, 정리하고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밤에는 전체적인 조사 현황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제4일(8월 1일) : 미비한 부분을 보충, 마무리하고 오후 1시에 귀로에 올랐다.

끝으로, 3박 4일간 조사하는 동안 도움을 주신 한동리장님을 비롯한 마을 분들과  
한동국민학교 교장선생님 및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무더운 날  
씨에도 지도에 힘써 주신 교수님과 먼 길을 와서 격려해 주신 동문 선배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애쓴 조사 반장과 반원들에게도  
심심한 고마움을 전한다.

기존 조사지점도(1976~1994)



- |                         |                           |
|-------------------------|---------------------------|
| ①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1976. 8) | ⑨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1987. 8)   |
| ②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1977. 7) | ⑩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1988. 7)   |
| ③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1978. 8) | ⑪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1989. 7)   |
| ④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1981. 7) | ⑫ 북제주군 추자면(1990. 7)       |
| ⑤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1983. 8) | ⑬ 서귀포시 보목동(1991. 7)       |
| ⑥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1984. 8) | ⑭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1992. 7)   |
| ⑦ 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1985. 8) | ⑮ 제주시 봉개동 동·서회천리(1993. 7) |
| ⑧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1986. 7) | ⑯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1994. 7)   |

## 마을 개황

### 目 次

1. 설촌 유래
2. 지명 유래
3. 인문 개황

### 1. 설촌 유래

지금으로부터 약 650년 전 속칭 '조개뺨'에 조씨가 정착하면서 이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한다. 이 마을 리사무소에서 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속칭 '웃굴왓' 집터와 울타리 등의 흔적이 있고, 지금도 그 유물(기왓장 및 토기)과 대나무들이 울창한 것으로 보아 조씨가 정착하여 '조개뺨'을 중심으로 화전을 경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후 1874년경 李密熙 목사에 의한 행정 개편 때 현 평대리와 분리되었으며, 1910년에는 里가 구로 개편되어 1, 2구로 나뉘어 부락이 운영되어 오다가 해방 이후 다시 里로 통합되었다.

그런데, 이 부락은 구좌면사무소와 경찰관서 및 각 기관을 유치, 구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당시 유학자인 부락민들의 반대로 면사무소는 평대로 이전되어 한동리 발전을 크게 저해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 2. 지명 유래

#### 1) 마을명 유래

1세기 전만 하더라도 里名을 '槐伊里'라 불렀고 상하 마을을 '웃괴', '알괴'로 나

누어 부르고 있었다. '괴이리'는 문명이 가장 일찍 개벽되었다는 뜻으로,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古字 대신에 실제 발음되는 음을 적기 위한 표음자를 택하여 한자의 '槐伊里'로 쓰게 된 것이다. 그런데 리명을 '괴이리'라 명명한 후로는 괴이하게도 십야에 헛불이 날아와 집을 태우는 등 부락민들을 몹시 불안케 하였다. 당시 부락민은 매일같이 야간이면 이 헛불의 경계에 임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으며, 신앙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이것 역시 허사였다. 李炳鉉 제주 목사가 잠시 머물고 가던 중 부락민에게 이 사실을 듣고 마을의 흉한 징조는 리명인 '槐'字에서 온 것이라는 해석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槐'字는 '괴수나무 괴'자인 고로 이곳에 '괴수불(속어:도채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라 하였고, 이 괴수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므로 '漢'자를 쓰라 하였다. 여기에 자연 환경이 한라산 동쪽에 위치한 고장이라는 데서 東자가 쓰여져 漢東里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리명을 고친 후로 괴수불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지고 평온하게 되었다고 한다.

## 2) 특수 지명 유래

### ① 둔지봉(屯地峰)

'둔지 오름'이라고도 부르며 산봉우리가 위로 뾰족하게 나왔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② 웃괴(上洞)

처음에는 '웃괴'라고 부르다가 이 마을을 지나는 일주도로가 개설되면서 일주도로 남쪽 마을을 상동이라고 불렀다.

### ③ 방축굴(防築窟)

이 마을의 지형과 같이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축이라고 하다가 후에 방축동으로 개칭하였다.

### ④ 新田洞(養善洞)

원래는 '양선동'이라 부르던 것을 '신전동'으로 개칭한 것이다.

### ⑤ 啓龍洞

'넓은 테역(넓은 잔디밭)'이라 하여 잔디가 넓게 깔려 있던 곳이다.

### ⑥ 左家場

좌씨 선조가 입촌하여 현재의 학교 서쪽 부근을 중심으로 목장을 경영하게 되었는데, 이후 향교로 移屬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근을 '좌가장'이라 부르고 있다.

### 3. 인문개황

한동리는 3개 동, 11개 반으로 구성된 마을이다. 한동리 인구는 총 463가구 1,768 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비농가의 경우도 전체 인구의 28%나 되어 점차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상동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토박이고 지형상으로도 나머지 두 동(서동, 동동)보다 일주도로 안쪽에 위치해 있어 고유한 전통을 어느 정도 잘 보존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상동에 대부분의 편의 시설(리사무소, 이발소, 미용실, 식육점, 노인정 등)이 갖춰져 있다. 고령의 노인 인구가 많아 인근에서는 장수마을이라 불리나, 이 마을 역시 4·3사건의 피해가 커 고령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표1> 한동리 인구현황

(단위:가구,명)

가 구 수			인 구 수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334	129	463	855	913	1,768

(1994년 8월 현재 : 구좌읍사무소 제공)

한동국민학교는 1968년 3월 1일 구좌읍 한동리 1168번지에 설립되었다. 대부분의 행정이 현 평대리를 중심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평대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1968년에 주민들(특히, 해녀와 재일교포)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설립되었는데 이 설립 연도는 다른 국민학교들이 1945년을 전후하여 설립된 것에 비한다면 매우 늦다. 해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다음 <표2>는 현재 재학중인 학생수와 구성 학급을 나타낸 표이다.

<표2> 한동국민학교 학생현황

(단위:학급,명)

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남		71		9		14		12		14		12		10
여	6	83	1	14	1	6	1	23	1	11	1	12	1	17
계		154		23		20		35		25		24		27

(제주교육통계연보 1992, 제주도교육청)

농가의 토지이용 실태를 보면 <표3>과 같다. 전체 1,809ha 중 임야와 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 농업 활동의 구체적인 농산물 생산 현황을 대략 알 수 있다.

구좌읍 전체로 볼 때, 1992년 복제주군 통계연보상 당근의 재배 면적이 520ha, 마늘이 355ha, 양파가 167ha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쪽파, 참깨, 유채 등도 생산되나 앞의 작물들의 재배에 비하면 면적도 작고 생산량도 적다. 곡류로는 보리가 525ha를 차지하고 있다. 한동인 경우 당근과 마늘이 주요 작물로 생산되고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 당근을 재배하기에 알맞다.

그외에도 소 235두, 닭 13,000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사슴농장도 있다. 그러나 현재 양계인 경우, 양계장이 보수 중에 있어 확실한 양계수를 말하기가 어렵다.

<표3> 토지이용현황

(단위:ha)

면적	대지	전	과수원	임야	기타
1,809	20.8	481	17.5	113	1,176.7

(구좌읍사무소 제공, 1994. 8.)

이 마을에는 전통적인 무속신앙이 유지되고 있으며, 유식 포제도 지내고 있는 한편, 기독교인 예수교 장로회, 당제, 다양한 개인신앙 등이 있다(무속신앙, 당제, 포제 등에 대한 것은 이 조사보고서의 「신앙」 쪽 참조).

<표4> 종교 실태

기관명	종교명	소재지	주지 및 책임자	신도수
동법사	조계종	한동리 1077-2	유향심	85세대
수은교 한동지부	수은교	한동리 ?	오진국	65세대
한동교회	예수교장로회	한동리 1000	이순경	3가구, 학생 다수

## 방언

### 目次

- I. 의생활 어휘
- II. 식생활 어휘
- III. 주생활 어휘
- IV. 농업
- V. 어업
- VI. 기타

이 보고서는 1994년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에서 조사한 방언을 수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생활에 기본이 되는 의식주에 관한 어휘와 농업과 어업에 관한 어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조사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행하여졌는데, 부분별로 어휘들을 모아 만든 질문지, 『한국방언조사질문지』와 조사관련 어휘에 해당하는 그림이 담긴 책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정리는 우선 방언을 분철을 원칙으로 하되, 소리나는 대로 적고 그 방언에 해당하는 표준어를 적었으며, 그 어휘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는 가능한 한 현지에서 채록한 원음 그대로 적어 놓았다.

### I. 의생활 어휘

#### 1. 노동복

갈중이/감중이

갈적삼/감적삼

굴중이/굴쟁이

등지계 : 배위에 감물 들인 옷. 소매가 없음.

## 2. 평상복

고장중이 : 고쟁이. 강알 터진 거.

단속곳

도폭 : 우머니 돋은 거(우머니 : 팔소매의 늘어진 부분)

두루막 : 두루마기

바지

베블레기 : 아기 옷

소중이/소중기 : 속옷

우장 : 비온 날 털볼림에 우장 썩 췌 맥이레 가느네.

저구리 : 저고리 \*맹지저구리(명주저고리)

적삼 \*붓디적삼

지성귀/지서귀 : 기저귀

쫄개 : 조끼

치매 : 치마

## 3. 상복 · 예복

건대 : 건대. 상(喪) 날 때 쓰는 거.

방장대 : 어멍 죽은단 머그냥, 큰아덜은 술진 거, 죽은아덜은 홋술 그는 거, 사원 대막덩이. 아방 죽으면 왕대, 큰아덜은 술진 왕대, 죽은아덜은 홋술 그는 왕대, 사원 대막덩이.

복곳 : 복옷. 상 날 때 입는 옷.

복치매 : 복치마. 상 날 때 입는 치마.

사모관대 : 사모관대. 결혼할 때 (사모 : 양편이 뿔 돋은 모자, 관대 : 옷)

시미웃 : 손자들이 입던 상복

제복 : 상제웃

행경 : 행경. 상 날 때 다리에 끼는 거.

#### 4. 모자류

감티 : 얼민 씨났저, 귀도 가리고

망근 : 망건. 갓쓸 때 갓쓰기 전이 그 안에 하는 거여.

방립 : 상갓 닳은 거. 옛날은 상제가 방립쓴덴 험다. 상갓같이 오무룩험다. 눈이 안 들어가부난 방립을 들림베끼 안보여.

빙것 : 빙거지. 대페랭이 닳은 거.

상갓 : 상갓

유건 : 천제 지낼 때 그디 거시기가 싯저. 큰 웃 그것에 썩 우이 오그라지듯 색 깔이 누리렁훈 누물물그치 훈 색깔 누빈 것에 그거 돌나. (삼성혈 제사지 낼 때 쓴다.)

정당볼립 : 남자가 쓰는 거.

탕근 : 탕건

털볼립 : 웨털 밀었으네 만들어시네.

페랭이 : 패랭이 \*밀짚페랭이, 대페랭이

\* 빙것은 자자진다.

\* 대페랭이는 오무룩험다(여자 쓰는 거).

페리 : 상제가 쓴 거. 두건 위에 쓰는 거.

풍댕이 : 남자 쓰는 거. 늑신네들 어디 나갈 때 쓰는 거.

휘양 : 여자 쓰는 거.

#### 5. 머리장식 · 미용도구

건지 : 두 가달에 땅 영 둘러대낭 뻥하게 오령 질르민 이레 불근 댕기 들이고 행으네 시집갈 때. \* 죽어갈 땐 방페건지(시집갈 때)가 오그랑건지라.

냥저 : 빈네 꽃은 머리

돌리 : 놈의 머리로 크게 땡아 올린 것. 돌리드렁 건지하는 거. 술지게 향영 땡 땡빠지게 안향영 이마니 진거 행나땅 시집갈 때도 그거 혼 세개 빌려아 정 죽어갈 때도 흐느네.

맹긴/맹견 : 망건

빈네 : 비너

상통이 : 상투

얼레기/얼레빗 : 머리빗

쪽도리 : 족두리

챙빔 : 참빔

## 6. 바느질 용구

그세 : 가위

다리웨 : 다리미. 옷 다리는 거.

마께 : 서답홀 때 두드리는 거.

바늘쌘지 : 바늘쌘지

바늘쫌레 : 바늘 찢러 넣는 거.

손골메 : 골무

안반 : 다듬이질 할 때 밑에 놓는 돌

윤디 : 동정같은 거 다릴 때 쓰는 죽은 거 싯저.

적고미/고미(적곰/곰) : 단추

홍실대 : 홍질대. 서답, 맹지 다듬을 때 광목 다듬을 때 밀영하고 걸로 옛날엔 떡도 밀어났주만은.

## 7. 기타

가막창신 : 징 박아진 거 싯저. 여자가 시집갈 때 신는 신발이여.

과지 : 무당 입는 옷. 얼롱얼롱하게 헨 옷

남신 : 나막신

명지 : 무당들 칼 닳은 거 잡지 안허느냐, 거기 종이 감아논 거 싯저게.

손또매 : 손투시. 양편이 터진 거. 속에 노코 행 할아방돌 써나세. 장갑 어시난  
손목에 하는 거 싶저.

송락 : 무당들 쓰는 모자

요령 : 방울

초신 : 짚신

## II. 식생활 어휘

### 1. 음식

밥류 : 조밥(흐린조밥, 고량조밥, 모인조밥), 푸래밥, 툄밥, 못밥

국류 : 뭉국, 네폐국

찬류 : 들굽, 민네기

떡류 : 돌래, 술벤, 은절미, 만디, 과질, 약쾌, 조개생편, 지름떡, 물떡, 새미

범벅류 : 모물범벅

술류 : 청주, 탁배기, 감주

청주, 탁배기 - 흐린 좁쌀 해당 막 오메기로 발팡 맨들앙 요만씩 흐게시리 나풀  
나풀 흐민 영영 동그리당 꼭 녹드민 가운디 영혼거 맨드랑 나왕 게 영행  
숄앙 식으민 물발르민 막 달왕 삼드레 답아낭 물 흐술 낭 휘휘 저섯당  
누룩행 휘휘 쉬엄 뇌두민 바싹하게 괴영 혼 달반이나 되야 새카망 지름  
이 지각혼다. 경행 체로 바청 깨끗혼 거가 청주고 그 위에 거가 탁배기  
여.

감주 - 쌀 낭으네 흐술 죽쌍 식으민 끌고루 허고민 휘휘 저스민 가르톡혼다. 그  
걸 골감주랜 흐영 제사때 쓰고 골 노난 골감주.

선다리 : 밥 쉬민 헤영 먹는 거.

밥 외의 음식 : 조베기, 개역, 국시(모물국시)

### 2. 식생활 도구

곰박 : 송편 전저낼 때. 남에 그냥 툄라진 거.

국자 : 국 거리는 거.

남죽 : 큰 밥자. 큰 솥뒤 밥 짓는 거.

대접 : 국사발

도고리 : 함지박. 남으로 만든 거.

소리바꿈지 : 도시락통. 밥 놓고 장 놓고 뚜러메영 가는 거.

술박 : 바가지의 일종

수박귀 : 밥사발

우금 : 작은 밥자

작박 : 술박보다 작은 것

장탱이 : 설거지통

함박 : 나무로 만든 도고리

항 : 항아리

### Ⅲ. 주생활 어휘

#### 1. 집구조

가재 : 처마

고팡

마루 : 마리(상방, 삼방)

무똥(대무똥, 구들무똥)

밖꺼리

방 : 큰 구들, 안넛 구들, 죽은 구들

안꺼리

올레

우영 : 텃밭

정살 : 정낭

정짚/정지 : 부엌

지에집

## 2. 부엌

곰박 : 국자 모양으로 우묵한 바닥에 구멍을 내어서 물에 삶은 떡 따위를 건져 내는 데 쓰는 기구.

굴묵군데 : 부삽

그스렁 : 그을음

둘레박 : 두레박

물구덕

물통 : 우물

물항 : 물항아리

부지땡이 : 부지깥이. 불을 지들 때 손으로 검질 잡앙 허민 손도 더럽고 뜨거우 난 쓰는 막땡이여계.

불팍 : 성냥

살레 : 찬장

솔강알 : 아궁이

장항 : 장항아리

정지 : 부엌

참금 : 내(연기) 나가는 디.

## IV. 농업

### 1. 농기구

가래죽 : 삽

꼭쟁이 : 곡쟁이

골각지/골쟁이 : 호미

군데 : 고무래

굴묵군데 : 굴묵 지들 때 불 밀리는 거.

- 날레군데 : 날레 짓는 거. 그레 : 맷돌  
곱체 : 삼태기. 걸름낼 때 쓴다.  
고서귀 : 씨 뿌려난 다음 씨 덮젠 그스는 거.  
남테 : 웨 대신 밭 불리는 거.  
도치 : 남 패는 거.  
돌끌 : 돌 불르는(깨는) 끌.  
두께 : 도리깨  
멍석 : 날레 너는 거.  
맥 : 먹서리  
멜망텡이 : 씨 뿌릴 때 씨 담는 거.  
물메 : 주룩 돌앙 이마니 몽클락흔 것에 이디 궁기 뭍르민 막대기거추룩 혼 거  
질러냥 돌 두드리는 거. 끌 냥 두드리민 벌러진다.  
몰방에 : 연자마  
벤줄레 : 췌페라고도 함.  
맷 : 납작흔 거. 쇠로 되영 세우민 흙 넘어가게 흐는 거 싶저.  
보리클 : 흘태. 보리 흘틀 때 쓰는 거. 보리흘테기 : 흘태  
부게 : 씨앗을 담아두는 그릇  
사당대축 : 노 꼬는 거.  
웨스링 : 웨거름 낼 때 쓰는 거.  
셋부게 : 씨앗을 담아두는 그릇.  
자귀 : 남 깎으는 거.  
잠데 : 쟁기  
지게 : 지게  
호랭이 : 새끼 꼬을 대 줄 놓는 것.  
호미 : 낫

## 2. 농산물명

### (1) 곡류

산디 : 발벼

대축(사탕대축, 마깨대축, 느렁대축, 동골대축)

사탕대축 : 사탕수수

느렁대축 : 수수. 빗차락 만드는 거.

모물 : 메밀

녹디 : 녹두

고고리(조코고리, 대죽고고리, 보리고고리) : 이삭

감비역 : 감부기

\* 짐재기 : 곡식 세는 단위

\* 판 : 밭 세는 단위

돌랭이 : 작은 밭

## (2) 채소류

숨키 : 채소

놈삐 : 무

물웨 : 외

새우리 : 부추

유쌌 : 깻잎

양웨 : 양애

지술 : 감자

감저 : 고구마

콩주름 : 콩나물

## V. 어업

### 1. 해조류

메역 : 미역

듬북 : 구슬모자반. 톱니모자반. 짝잎모자반.

톨 : 툷  
몹 : 모자반  
늑 : 김  
꼭래 : 파래  
감태 : 감태 옛날 대동아전쟁 때 화약 만들었겐 해났덴.  
우미 : 우뭇가사리  
도박 : 풀 쓰는 거.  
까꾸리 : 도박 종류.  
폐 : 툷바당에 7치 나는 거.  
너폐 : 넓폐. 넓은 미역.  
정각 : 청각

## 2. 어패류

7메기 : 울타리고등  
떡보말 : 구멍방고등  
메옹이 : 두드럭고등  
수드리 : 납작소라  
청7메기 : 울타리고등  
가문듬 : 감성듬  
각채기 : 전갱이  
갈치 : 갈치  
게오리 : 가오리  
객주리 : 쥐치  
고드리 : 고도리  
고등에 : 고등어  
구릿듬 : 흑뱅에듬  
굼벳 : 줄군부  
낙지 : 낙지

- 덤불치 : 별망둑  
동치 : 달고기  
돔바리 : 상어 죽은 거.  
멜/멜치: 멸치  
문애/문게 : 문어  
보들락 : 그물베도라치  
불락 : 도화불락/ 불불락  
북바리 : 별우럭  
빅자귀 : 전복 죽은 거. 빅자귀가 킹오네 전복된다.  
사위 : 새우  
생복 : 전복 큰 거.  
섯 : 가자미  
성게 : 성게  
술멍이 : 용치놀래기  
습 : 섬게  
어랭이 : 황놀래기  
오분자기 : 오분자기. 전복 죽은 건디 전복의 종류.  
오징에 : 오징어  
우럭 : 솜벵이/ 붉감펍  
헝이 : 흑돔  
자돔 : 자리돔  
자리 : 자리돔  
줄락 : 노래미  
코생이 : 놀래기  
걱쟁이 : 꽃게. 바다에 모살에 나는 넙작한 거.  
춤쟁이 : 참게  
펼쟁이 : 작은 게

### 3. 해녀 관련 어휘

잡녀 : 해녀

\* 상군 : 물질 잘 하는 사람

\* 중군 : 흠술 못 하는 사람

\* 하군 : 원 못 하는 사람

화덕 : 해녀들 불 쬐는 데.

물적삼 : 속곳 위에 입는 거. 적삼 7치 허영 험벅 낱 즐라메영 이기(허리춤) 단추  
돌양 입는 거.

조락 : 오븐자기나 생복 등을 담아 넣는 그물.

호맹이 : 구쟁기 딸 때 쓰는 거.

작살 : 피기 쏠 때. 외가달로 된 거.

연철 : 고무옷 입은 그 우의 허리에 하는 거.

태왁 : 하얀 삐꾸기 닮은 거.

망사리 : 숨이나 생복들 잡아 놓는 거여.

어음 : 동그랑허영 태왁 멘직멘직 도망가지 못하게 혼 망사리 틀.

숨비소리 : 물에 강 숨 다 먹으른 오랑 태왁 우의 아장 '호이'허민 숨이 확 허게  
트인다.

## VI. 기 타

### 1. 곤충 · 벌레

돌뱅이 : 달팽이

파리 : 파리

벤데말축 : 메뚜기

벌거지 : 벌레

구데기 : 구더기

십방말축 : 여치

곡주베기 : 사마귀

소금바치 : 방아깨비

공중이 : 귀뚜라미

고노리 : 장구벌레

불완디 : 반딧불

## 2. 동물 · 식물

노람쥐 : 다람쥐

쟁이 : 쥐

밥주리 : 참새

여호 : 여우

노리 : 노루

병아리 : 병아리 \*독고리 : 병아리 가두는 곳.

쉐 : 소 \*쉐막 : 소를 가두는 곳. 외양간.

두세기 : 돼지

두테비 : 두꺼비

쟁비리 : 올챙이

재골레비 : 개구리

제보자 : 김춘생(여 · 77), 고계연(남 · 70), 조선일(남 · 70), 고원표(남 · 75)

# 민 요

## 目 次

1. 조사일지	(6) 그래 그는 소리
2. 제보자	(7) 해너소리
3. 노래	(8) 물질허는 소리
1) 노동요	2) 기타
(1) 밧 불리는 소리	(1) 애기 재우는 소리
(2) 검질 매는 소리	(2) 시집살이 노래
(3) 아웨기	(3) 창부타령
(4) 사데소리	(4) 청춘가
(5) 마당질소리	

## 1. 조사일지

1) 1994. 7. 29.

숙박지인 한동국민학교에 여장을 풀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3시경 상동으로 1차 조사를 나갔다. 사전 조사 때에 확인해 둔 제보자들(안두옥, 고재순)을 찾아 뵈고 다음 날 저녁 8시경에 고재순 할머니 댁에서 녹음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다.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미처 제보자 확보가 안된 마을 중 한 곳인 서동에 들러 마을 주민들로부터 한 할머니를 소개 받았으나 집에 안계셔서 저녁에 다시 찾기로 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상동으로 낮에 약속한 사항을 재확인하러 떠나고 다른 한 팀은 제룡동으로 향했다. 서동에서 두 명의 제보자(김광자, 부옥희)를 확보하고 31일 저녁에 학교에서 녹음을 하기로 약속했다.

2) 1994. 7. 30.

아침을 먹고 제보자 확보가 안 된 계룡동으로 나갔다. 마침 세화장이 서는 날이어서 마을은 텅 비어 있었다. 점심 후에 다시 찾기로 하고 일단 속소로 돌아왔다.

다시 찾은 계룡동에서 부임삼 할머니, 김계월 할머니, 김하선 아주머니를 만나 김계월 할머니 댁에서 첫 녹음을 할 수 있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고, 제보자들 또한 적극적이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때 녹음된 노래는 발농사의 절차에 따른 일련의 노동요와 자장가, 물질하는 노래, 타령가 몇 곡이었다.

저녁에는 상동 고재순 할머니 댁에서 녹음이 이루어졌는데, 안두옥 할머니가 애쓰셔서 세 분의 할아버님(오태수, 고원표, 김리안)이 더 와 계셨다. 제보자들 사이의 의견 충돌과 잦은 잡담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녹음 상황이 좋지 못했다. 녹음은 정해진 순서로 진행되었다.

3) 1994. 7. 31.

일부는 계룡동으로 보충 조사하러 나갔고, 나머지는 전 날에 녹음한 민요들을 전사했다. 저녁에는 김광자 할머니와 부옥희 아주머니를 학교에 모시고 녹음 조사를 했다. 제보자들이 젊기도 했으나 평소 소리를 자주 하셨던 까닭에 사실 소실이 적었고 녹음이 잘 되었다.

한편 상동 안두옥 할머니를 찾아가 보충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 2. 제보자

안두옥 : 여, 72세(1922년생), 한동리 상동

행원 출신으로 22세에 한동에 시집왔다. 노래는 주로 17~18세에 행원에서 전수를 받았다. 오래 전에 남편과 헤어져 혼자 살고 있다.

부임삼 : 여, 64세(1930년생), 한동리 계룡동 1288-1

한동리 서동에서 출생하여 21세에 계룡동으로 시집와서 2남 5녀를 두었다. 발농

사와 해녀일을 주로 하고 있다. 노래는 결혼 전 동네에 큰 일을 치르거나 벗들과의  
시간에서 익혔다.

뱃기는 소리, 뱃 불리는 소리, 검질매는 소리, 마당질 소리, 고래그는 소리, 물질  
허는 소리

김재월 : 여, 77세(1917년생), 한동리 제룡동 1286

한동리 서동에서 출생, 18세에 제룡동으로 시집은 후 발농사와 물질을 하고 있다.

김광자 : 여, 61세(1933년생), 한동리 서동 1526

예전에는 발농사와 물질을 겸했었다. 3년동안 강원도 근처로 물질을 갔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발농사만 짓고 있다. 노래는 시집 와서 배웠다고 한다. 부옥회 아  
주머니와 '마당질 소리', '고래그는 소리', '회심곡', '검질매는 소리', '아웨기 소  
리', '물질허는 소리'를 불렀다.

부옥회 : 여, 40세(1954년생), 한동리 서동 1513

김광자 할머니의 며느리

### 3. 노 래

#### 1) 노동요

(1) 뱃 불리는 소리(녹음일 : 1994. 7. 30. 안두옥)

워~월러 뱅뱅~돌아나 월러

월러어~월라나

훈디가고 훈디오고

월러월러 돌아오라

어허~어~허 어허야 아허

요놈의 말들아 뱅뱅 돌아들멍

얇은티 깊은티 어디 불랑이낭 가자

에~어허 얼러 얼러얼러  
얼러~얼러 어허~

(2) 검질 매는 소리(녹음일 : 1994. 7. 29. A : 부임삼, B : 김계월, 김하선)

- |                  |               |
|------------------|---------------|
| A : 어이영어이영 디여로구나 | B : 아이야 에이요   |
| A : 검질짓고 골너른बाट  | B : 어이야 디여로오라 |
| A : 조라움도 내벗이로구나  | B : 어이야 디여로오라 |
| A : 요만일도 일이랜말자   | B : 어이야 디여로오라 |
| A : 그만일도 버칠소나    | B : 어이야 디여로오라 |
| A :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 B : 어이야 디여로오라 |
| A :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 B : 어이야 디여로오라 |
| A : 유월별은 더위엥말라   | B : 어이야 디여로오라 |
| A : 정칠월의 한더위도    | B : 어이야 디여로오라 |
| A : 언제나면 이더위를너명  | B : 어이야 디여로오라 |
| A : 칠팔월이 돌아나올까   | B : 어이야 디여로오라 |

(3) 아웨기

① 녹음일 : 1994. 7. 31. A : 김광자, B : 부옥희

- |                           |                 |
|---------------------------|-----------------|
| A : 어양어양 어야로다 어양어양 어야로다   |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 A : 이삼사월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 A : 너는다시 피련마는 우리네인생은 한번가면 |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 A : 스므나른 설나른엔 삼설백도나 무에래가자 |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 A : 일천간장 쉬은물로랑 요밭에서나 녹여보자 |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 A : 살자허니 고생이로다 죽자허니 청춘이로구나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세월이란 가지도말라 아까운청춘 다늬어지난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오늘오늘 오늘이로다 날도좋고 오늘이로구나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매일장상 오늘이면 성도나얼만 가실손가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얼굴이좋아 반했던가 매치가좋아 반했던가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요세월에 못놀면은 어느세월에 놀고나가리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우리부도 날날적에 어느바당매역국 먹어신고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삼도따랑 배질허게 앞니물이랑 끓지마라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어질고튼 용왕님아 앞발로랑 걷어헤명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뒷발로랑 허우치명 서럼서럼 빌려도줍써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방아로구나
- A : 성복고동 조은여로 용왕님아 득달을헛서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이물애랑 이사공에 고물에랑 고사공아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허리띠미티 다정하야 물때나점점 늪어지네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삼도따랑 배질허게나 우리가살면은 멧말년살리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요배를타고 어디를갔나 진도나바당 한글로가자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漢東里 學術調查報告

- A : 알뜰살뜰 모은재산 먹고가랴 쓰고가랴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인정을쓰자 소정을쓰자 어찌나존줄을 모를로구나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동의화당 광덕광아 서의화당 서화당이로구나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우리부모 날날적에 손에나괘이 지우려고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한숨을지난 동남풍되고 눈물은지난 한강수된다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어제나청춘 오늘은백발 백발을보고선 회론을말자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이세월저세월이세월에 어제돌아간어른들은 억울하구나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 A : 이만하면 먹을만하고 이만하면 쓸만은혼다  
 B :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② 녹음일 : 1994. 7. 30. A : 안두옥, B : 오태수

- |           |       |          |        |
|-----------|-------|----------|--------|
| A : 앞명에랑  | 들어나오라 | B : 아아아양 | 에혜양 어요 |
| A : 뒷명에랑  | 나고나가라 | B : 아아아양 | 에혜양 어요 |
| A : 겹질짓고  | 풀너튼발티 | B : 아아아양 | 에혜양 어요 |
| A : 조름이사  | 내벗이로다 | B : 아아아양 | 에혜양 어요 |
| A : 질젓지브  | 도실낭싱경 | B : 아아아양 | 에혜양 어요 |
| A : 시냐도냐  | 맛붙이셔도 | B : 아아아양 | 에혜양 어요 |
| A : 지녁살인  | 하나이엇다 | B : 아아아양 | 에혜양 어요 |
| A : 민영적삼  | 배적삼시민 | B : 아아아양 | 에혜양 어요 |
| A : 모시적삼  | 어서도산다 | B : 아아아양 | 에혜양 어요 |
| A : 하영먹젠  | 산정애올랑 | B : 아아아양 | 에혜양 어요 |
| A : 쇠정당줄에 | 멀리정당  | B : 아아아양 | 에혜양 어요 |

A : 발을걸엉	유울엄더라	B : 아아아양	에혜양 어요
A : 설운어멍	날날적에	B : 아아아양	에혜양 어요
A : 어느바당	메역국먹엉	B : 아아아양	에혜양 어요
A : 날난어멍	시름도노양	B : 아아아양	에혜양 어요
A : 잠지는건	내부모아니로다	B : 아아아양	에혜양 어요
A : 이팔청춘	소년들아	B : 아아아양	에혜양 어요
A : 백발보고	희롱을말라	B : 아아아양	에혜양 어요
A : 소년늬엉	백발이로다	B : 아아아양	에혜양 어요
A :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B : 아아아양	에혜양 어요
A :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B : 아아아양	에혜양 어요

(4) 사데소리(녹음일 : 1994. 7. 31. A : 김광자, B : 부옥희)

A : 검질짓고	골너른बाट	B : 앞명에랑	들어나오고
A :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B : 우리나라어멍	날날적에
A : 어느바당	메역국먹엉	B : 우리나라어멍	날날적에
A : 어느바당	메역국먹엉	B : 검질매랜	날냥던가
A : 어머니	우리나어머니	B : 어아어흥	어아로구나
A : 요검질매랜	나를나신가	B : 검질매랜	날냥던가
A : 앞산천아	날땡겨도라	B : 뒷산천아	잘땡겨주라
A : 뒷산천아	날땡이도라	B : 어양디양	방아로구나
A : 어제오늘	성턴몸이	B : 검질बाट	검질매서
A : 저녁날은	병이들어	B : 골너른बाट	검질도매라

(5) 마당질 소리

① 녹음일 : 1994. 7. 30 부임삼

어야도 흥아 어아흥 어아흥

아이고세상	요놈의도깨
저끄고리도	아니두드러졌구나
비치락질허멍	어야드호야
	어야홍 어야드홍 어야드하양
설운어멍	날무사나전
요마당에	어야드홍
도깨를매엉	어야드 호양

② 녹음일 : 1994. 7. 30(A : 부임삼, B : 김계월, 김하선)

A : 어야홍아	B : 어야홍
A : 어야홍아	B : 어야홍
A : 요비치락	B : 어야홍
A : 이 짹짹	B : 어야홍
A : 거다노라	B : 어야홍
A : 이야로허야	B : 어야홍
A : 무말마당질	B : 어야도 호야
A : 허영그넝	B : 어야도 호야
A : 건평나동	B : 어야도 호야
A : 조배기행먹저	B : 어야도 호야

(6) 그래 그는 소리

① 녹음일 : 1994. 7. 30 안두옥

이연이연	이여도호라	이여호라
방아야방아	물방아야	
쿵쿵치는	물방아야	
폭포 그치솟는	물에떨어지는	
너의힘이	장허구나	

이연이연이여	이여도호라
설운어멍	날날적에
어느바당	메역국먹엉
날이나	낱아신고

② 녹음일 : 1994. 7. 30 부임삼

이여어엉 그래  
보리 호썰 곶아  
요 보리 호썰 곶앙그넨  
이 아니들 밥허영 먹영  
이여어엉  
똥은 찰찰 나고오  
이여어엉 그래  
아이고 전신 꽃게 구월에 낭  
구월꽃도 내 꽃이드라  
이여도 그래 이여도 그래  
이 아기들아 저래 혼저 솔드레 불 숲으라  
이 보리썰 딸려사 니네 밥허영 먹일꺼 아니가  
혼저 죽은년이랑 물이나 강 지러오라 이여도 그래  
아이고 설운 애기들 무시저 허랜 불러시  
보글보글 나그넨 이여도 그래

③ 녹음일 : 1994. 7. 30 김광자

이연이연	이여도호라
이여이여	이여도호라
한라산으로	내리는물은
일천낭섬이	다쉬은물
이내논으로	내리는물은

漢東里 學術調查報告

알천간장	다씩은물
이여이여	이여도그래
이여그래	골아그네
저녁이나	붉은때허져
이여도고래	복복골앙
너혼직먹고	나혼직먹곡
이여도그래	그래
이어도	그래
설운우리부모	날날적에
요그래골랜	나를낳았던가
이여이연	이여도그래
고대광실	높은집에
어떤사람은	잘도잘도살전마는
우리나인생은	이여도이여도
이여도그래	
어릴적에	우리부모는
날날적에	고대광실높은집에
잘살게나	허주마는
전생곳은	팔자사주
어딜가민	살곳이신고
이연이연	이여도그래
설운애기들아	느네들이나혼저커그네
우리나	부모들
요렇게허여신가	생각을허라
이여이여	이여도그래

(7) 해녀 노래

녹음일 : 1994. 7. 31. A : 김광자, B : 부옥희

- |              |           |
|--------------|-----------|
| A : 이어도사나 어허 | B : 이어싸하  |
| A : 이어도사나    | B : 이어도싸  |
| A : 이어도사나    | B : 어기여   |
| A : 이어도사나    | B : 어기여라  |
| A : 이어도사나    | B : 이어싸   |
| A : 요노땡이     | B : 이어도사나 |
| A : 무엇을먹고    | B : 이어차   |
| A : 둥긋둥긋     | B : 둥긋둥긋  |
| A : 올라나오라    | B : 올라나오라 |
| A : 선-풍을     | B : 선-풍을  |
| A : 먹었더냐     | B : 먹었더냐  |
| A : 지름통을     | B : 지름통을  |
| A : 먹었더냐     | B : 먹었더냐  |
| A : 이어도싸     | B : 이어도싸  |
| A : 어기여      | B : 어기야   |
| A : 어기여라     | B : 어기여라  |
| A : 이어라차     | B : 이어차   |
| A : 요노야상처    | B : 요노야상처 |
| A : 실고나네     | B : 실고나네  |
| A : 없는설움     | B : 없는설움  |
| A : 절로야난다    | B : 절로야난다 |
| A : 이어라차     | B : 이어도차  |
| A : 이어라차     | B : 어기야   |
| A : 세월이      | B : 세월이   |
| A : 가던말던     | B : 가던말던  |
| A : 이내청춘     | B : 이내청춘  |
| A : 지나말라     | B : 지나말라  |
| A : 이어도차     | B : 이어라차  |
| A : 이어도차     | B : 이어차   |
| A : 요물아래     | B : 요물아래  |

漢東里 學術調查報告

A : 은과금이	B : 은과금이
A : 꼴렸던가	B : 꼴렸던가
A : 높은낭기	B : 높은낭기
A : 열매로구나	B : 열매로구나
A : 이여도차	B : 이여차
A : 이여도사나	B : 이여도사
A : 이여차	B : 이여차
A : 이여싸	B : 이여싸
A : 요놀지어	B : 요놀지어
A : 어딜가리	B : 어딜가리
A : 진도야바다	B : 진도야바다
A : 골로나가자	B : 골로나가자
A : 이여라차	B : 이여라차
A : 이여라차	B : 이여라차
A : 이여라차	B : 이여차
A : 이여라차라	B : 이여차
A : 우리부모	B : 우리부모
A : 날날적에	B : 날날적에
A : 손에여팽이	B : 손에여팽이
A : 박으려고	B : 박으려고
A : 날냥던가	B : 날냥던가
A : 이여라차	B : 이여라차
A : 이여라차	B : 이여라차
A : 청청혼	B : 청청혼
A : 하늘에	B : 하늘에
A : 잔별도	B : 잔별도나
A : 많고요	B : 많고요
A : 이내야	B : 이내야
A : 가슴에	B : 가슴에
A : 수심도	B : 수심도

- |           |          |
|-----------|----------|
| A : 많고요   | B : 많고요  |
| A : 이어라차  | B : 이어차  |
| A : 이어라차  | B : 이어차  |
| A : 무정세월  | B : 무정세월 |
| A : 지나말라  | B : 지나마라 |
| A : 우리부모  | B : 우리부모 |
| A : 언제나나민 | B : 언제나민 |
| A : 만나보코  | B : 만나보코 |
| A : 이울산에  | B : 이울산에 |
| A : 돈벌래   | B : 돈벌래  |
| A : 우리부모  | B : 우리부모 |
| A : 보냈던가  | B : 보냈던가 |
| A : 이어라차  | B : 이어차  |
| A : 이어차   | B : 이어차  |
| A : 이어라차  | B : 이어차  |
| A : 요물아래  | B : 요물아래 |
| A : 어딜가민  | B : 어딜가민 |
| A : 고등생복  | B : 고등생복 |
| A : 존여로   | B : 존여로  |
| A : 가보카   | B : 가보카  |
| A : 어질구튼  | B : 어질구튼 |
| A : 용왕님은  | B : 용왕님은 |
| A : 눈을부혀  | B : 눈을부혀 |
| A : 우리에게  | B : 우리에게 |
| A : 도와나줍서 | B : 도와줍서 |
| A : 이어라차  | B : 이어차  |
| A : 이어라차  | B : 이어차  |
| A : 모를주모  | B : 모를주모 |
| A : 모를주모  | B : 모를주모 |
| A : 지붕에는  | B : 지붕에는 |

漢東里 學術調查報告

A : 상모루여	B : 상모루여
A : 물엔가민	B : 물엔가민
A : 물모루여	B : 물모루여
A : 모루나 없이	B : 모루없이
A : 진뎨말가	B : 진뎨말가
A : 이어라차	B : 이어차
A : 이어라차	B : 이어차
A : 돈아돈아	B : 돈아돈아
A : 말모른돈아	B : 말모른돈아
A : 부르거든	B : 부르거든
A : 돌아나오라	B : 돌아나오라
A : 이어차	B : 이어차
A : 이어라차	B : 이어
A : 이어라차	B : 이어라
A : 알뜰살뜰	B : 알뜰살뜰
A : 모인재산	B : 모인재산
A : 들고가라	B : 들고가라
A : 먹고가라	B : 먹고가라
A : 이어라차	B : 이어차
A : 이어라차	B : 이어차
A : 이어라차	B : 이어차
A : 저어라배겨라	B : 저어라배겨라
A : 저어라배겨라	B : 저어라배겨라
A : 이어라차	B : 이어차
A : 이어차	B : 이어차
A : 이어차	B : 이어라차
A : 고통생복	B : 고통생복
A : 존딜로	B : 존딜로
A : 천초나도박	B : 천초나도박
A : 존딜로	B : 존딜로

A : 득달하게	B : 득달호계
A : 허어나줍서	B : 허어나줍서
A : 어질고튼	B : 어질고튼
A : 용왕님아	B : 용왕님아
A : 이여차	B : 이여차
A : 앞물에랑	B : 앞물에랑
A : 이사공아	B : 이사공아
A : 고물에랑	B : 고물에랑
A : 고사공아	B : 고사공아
A : 허리띠밧퓌	B : 허리띠밧퓌
A : 다정호야	B : 다정호야
A : 물때나점점	B : 물때나점점
A : 늦어진다	B : 늦어진다
A : 이여라차	B : 이여차
A : 해다지고	B : 해다지고
A : 저문날에	B : 저문날에
A : 저녁참도	B : 저녁참도
A : 늦어지고	B : 늦어나지고
A : 언제나민	B : 언제나민
A : 우리집에	B : 우리나라집에
A : 젓고야갈까	B : 젓고야갈까
A : 어서나속히	B : 어서나속히
A : 저어나보자	B : 저어나보자
A : 이여라차	B : 이여차
A : 모를주모	B : 모를주모
A : 봉긋봉긋	B : 봉긋봉긋
A : 저서보자	B : 저서보자
A : 이여라차	B : 이여차
A : 세월아	B : 세월아
A : 네월아	B : 네월아

A : 가지를	B : 가지를
A : 말아라	B : 말아라
A : 어중칠월	B : 어중칠월
A : 동동팔월	B : 동동팔월
A : 어서나속히	B : 어서속히
A : 돌아오라	B : 돌아오라
A : 우리고향	B : 우리고향
A : 언제민가코	B : 언제민가코
A : 부모나형제	B : 부모형제
A : 만나보코	B : 만나보코
A : 이여라차	B : 이여차
A : 이여라차	B : 이여차
A : 저어라배겨	B : 저어라배겨라
A : 다왔구나	B : 다왔구나
A : 우리집의	B : 우리집의
A : 다왔구나	B : 다왔구나
A : 이여라차	B : 이여차

(8) 물질허는 소리

녹음일 : 1994. 7. 31. A : 부임삼, B : 김계월, 김하선

□

A :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B : 이여사나 이여사

A : 어느바당 메역국먹영 우리어멍 나다려올때

B : 이요사나

A : 어느바당 메역국먹영

B : 이여사나

A : 날쫑을 때랑

B : 이여사나

- A : 이어사나 이여사  
B : 이여사
- A : 이어사나  
B : 어기여차
- A : 이여사나  
B : 잘도간다
- A : 이여사  
B : 이여차
- A : 저바당에 생부께도 좋은여름  
B : 이여사나
- A : 한착손에 비창심고  
B : 이여사나
- A : 한착손에 호냉이심고  
B : 이여사나
- A : 저바당을 건너가서 시퍼령헌 바당에  
B : 어이여차
- A : 어이여차 이여도사나

## 2) 기타

### (1) 애기 재우는 소리

녹음일 : 1994. 7. 30 부임삼

웁이자랑 뽁이자랑 자랑자랑 자랑자랑  
흔저누엉 쯤자블라 새벽조반 허영그네  
발디가사 헐거아니가 자랑자랑 자랑자랑  
웁이자랑 뽁이자랑 머리쓸멍 쯤재웁씨  
머리쓸멍 쯤재웁씨 자랑자랑 자랑자랑

요노미 아기덕분에 잠도흔잠 못자고  
어느한때 좀자브렁 나도흔저 잘건고  
자랑자랑 자랑자랑

(2) 시집살이 노래

녹음일 : 1994. 7. 30 김하선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가	어떨데가
아이고애야	말도말라
장독같은	시아방에
암푹같은	시어명에
물꾸럭같은	서방님에
코생이같은	니누이에
메옹이같은	시누이에
시집살이가	매왔주게
고추가루가	매웁다해도
시집살이보다	매웁더냐

(3) 창부타령

녹음일 : 1994. 7. 30 김하선

열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아니노지를	못하노라		
널리리	널리리야	아니노지는	못하노라
노새놀아	젊어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가면은	아주가나	아주가면은	잇을건데

널리리	널리리아	아니노지는	못노나니
바늘같이	약한몸에	황소같은	병이들고
부르나니	어머니고	찾는건	냉수로다
넘오시라고	편지를하니	약만쓰라고	답장이요
무정하고	아속한님을	믿는내가	바보로다
얼씨구	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히리다

(4) 청춘가

녹음일 : 1994. 7. 30 김하선

돌려라 돌려라 청춘가를 돌려라  
 돈없는 이내몸종다 간장이 났구나  
 절가는            저아줌마  
 딸있건            사위사소  
 딸은하나        있건만는  
 나이가어려서    못하겠네  
 우리어머니    나를날적에  
 무슨날에        나를났던가  
 해녀살이시킬려고 나를났더냐  
 억울하여서     못살겠구나  
 돌려라 돌려라 청춘가를 돌려라  
 보기좋고 듣기나좋고 청춘가를 돌려라  
 간다못간다     얼마나올었나  
 정거장마다     한강수가됐구나  
 높은산성산포    외로운저소나무  
 누구를믿고서    혼자사느냐  
 저바다의절소린    삼천만동포울리고  
 우리부모말소린    내가슴만울린다

## 실 화

### 目 次

- |              |                         |
|--------------|-------------------------|
| 1. 범천총(I)    | 17. 범천총(VII)            |
| 2. 범천총(II)   | 18. 실문대할망               |
| 3. 범천총(III)  | 19. 祭祀 이야기              |
| 4. 부훈장(I)    | 20. 부훈장(IV)             |
| 5. 부훈장(II)   | 21. 里名 유래               |
| 6. 부훈장(III)  | 22. 부대각(I)              |
| 7. 범천총(IV)   | 23. 범천총(VIII)           |
| 8. 범천총(V)    | 24. 둔지봉 풍수 이야기          |
| 9. 범천총(VI)   | 25. 헛배                  |
| 10. 도채비(I)   | 26. 음식맛 새말 알아맞추는<br>이야기 |
| 11. 도채비(II)  | 27. 지네장수                |
| 12. 도채비(III) | 28. 이성계                 |
| 13. 도채비(IV)  | 29. 부대각(II)             |
| 14. 도채비(V)   | 30. 영등하르방               |
| 15. 도채비(VI)  | 31. 동물들 굶는 이야기          |
| 16. 도채비(VII) |                         |

### 1. 범천총(I)

제 보 자 : 부래봉(남·82세, 한동리 1857번지)

조사일자 : 1994년 7월 29일

조사장소 : 부래봉 할아버지 덕

범천총 그 양반은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눈이 워낙 커썬주, 눈살이. 여기 아

진<sup>1)</sup> 중에도 범천총이 눈 번쩍허민 사람이 다 박아져부런, 무서와서. 그 양반이 날  
래<sup>2)</sup> 멍석에 영 앉아 날래 널꼭 여기 앉앙 독<sup>3)</sup>이 오문 눈을 번쩍해서 그냥 독을 비  
리민<sup>4)</sup> 그 독이 그만 콧 박아져 비었다 허여.<sup>5)</sup>

그래서 육지분네가, 옛장수가 와서 뭐 물건 사시요 이렇게 허니까 안사요 그래  
도 사시요, 사시요 했어. 가라고 하니까 좀좁혀고<sup>6)</sup> 아 그래도 그 양반은, 그 장수  
는 이 양반이 어멍허길래<sup>7)</sup> 혼번 비리도 안 허고 게서<sup>8)</sup> 여러번 허니까. 뭐야! 허여  
내<sup>9)</sup> 이런 눈을 번쩍 뜨니깐 겁난 그만 콧 박아젠. 도망쳤다고 이런 말…….

## 2. 범천총(II)

제 보 자 : 부래봉(남·82세)

조사일자 : 1994년 7월 29일

조사장소 : 부래봉 할아버지 댁(한동리 1857번지)

이 양반이 아주 저 옛날 구식이라도 남보다 반대를 잘 했습니다. 반대를 잘 해  
서 시<sup>10)</sup>에 천총벼슬을 해서 일 땡기는데,<sup>11)</sup> 이제 김녕에 그 저 배엄굴인가, (조사  
자 :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서 그만 일러두지 않고 절루췌허니까<sup>12)</sup> 자세  
히 못허겠디 양. 그 제도 지내고 이렇게 허니깐. 이 놈의 배움<sup>13)</sup>의 모가지가 피  
해를 보는 날에, 제를 지내는 날에는 나신디<sup>14)</sup> 좀 연락 하라고 이젠 그 김녕에서

1) 앉은

2) 곡식을 햇빛에 말리는 일

3) 닭

4) 바라보면

5) 버렸어

6) 잠잠하고

7) 어떻게 하기에

8) 그래서

9) 하여서

10) 제주시

11) 다니는데

12) 자르려고 하니까(이야기를 생략하러니까)

13) 배

14) 나에게

제를 춤……제물을 출리고 해서 제를 지내는 날은 연락하니깐 그 양반은 물 타고 갔단 말이여. 가서 이젠 제 지낼 땐 막 끝에 보니까 이눔오<sup>15)</sup> 큰 구랭이가 나와서 이젠 그 음식을 다 먹고 지들어<sup>16)</sup> 간다고 그러니까 장도칼 창 갔다가 해 내었다 말이여. 없애부렀어.

(조사자 : 범천총이가 마썸?)

으, 범천총이가 없애부렀는디 그 뒤에, 후에, 인제는 누런 말을 타서 시에 땡기는데, 하루는 시에 간 일봐서 왔는디 그 목에 오니까 어떤 처녀가 관더벌<sup>17)</sup> 옆에 지고 앞의 걷는디 말이여. 아 긴디<sup>18)</sup> 물을 재계<sup>19)</sup> 몰아도 거긴 그겨. 뜨게<sup>20)</sup> 걸어도 거긴 그겨 그겨. 그대로 늘 한동까지 들어 올라간디 말이여. 기니까<sup>21)</sup> 저… 요 막은편에 가서, 거 어떻<sup>22)</sup> 된 여자냐고, 어디레<sup>23)</sup> 가는 여자냐고 물으니까 그 여자 하는 말이, 한동 범천총 집에 불질르레 갑니다고 어디서 와서 불질르레 가느냐고 옥황상제에서 왔노라고 아, 기니<sup>24)</sup> 이젠 겁이 나서 이젠 항복 안 할 수가 없습니디. 그래서 그러면 조금만 시간을 내라고 내가 범천총이라고 내가 묻저 가서 그 문서나 내거들랑 불 질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면서 이제 한동 거기에 오면서, 범천총 집에 불이라고 야단 하면서 들어오니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 다 나왔는디 불랑 마랑<sup>25)</sup> 아무것도 안 보이지 뭐. 아무 그직<sup>26)</sup>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이젠 범천총이 이젠 그 문서영 다 내놓고 서적 다 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헛말인가. 이렇게 해서 이젠 심심해서 담뱃불 부칠라고 부싯돌에 휘 훈번 영 허니까, 벌 씨 너 귀<sup>27)</sup>에, 집 네걸이에 불이 다 붙었어. 그 집터가 바로 요 앞에 이서.<sup>28)</sup>

15) 이눔의

16) 기어들어

17) 미상

18) 그런데

19) 빨리

20) 천천히

21) 그러니까.

22) 어떻게

23) 어디로

24) 그러니

25) 불은 커녕

26) 기척

27) 네 귀(모서리)에

28) 있어

### 3. 범천총(Ⅲ)

제 보 자 : 부래봉(남·82세, 한동리 1857번지)

조사일자 : 1994년 7월 29일

조사장소 : 부래봉 할아버지 댁

그 양반 아주 참 세력이, 기십<sup>29)</sup>이 좋아서. 법에 가도 한동의 세금 곧은 거 바칠 가능성이 있지만 안 바쳐서.

이젠 혼번은 점심을, 지금은 뽕주, 점심을 가져 갔는다. 이런(종이컵을 가리키며) 장통(醬桶)을 갔다다, 무시라고 지금은 없어져 감주만 무시라고 있습니다. 거, 풀, 풀씨. 못을 습지<sup>30)</sup> 안해서 그자 혜영케<sup>31)</sup> 씻음만 해서 이젠 혼쪽에 넣고 혼쪽에는 잘 삶은 놈을, 그 삶지 않은 놈은 입이 딱 벌어지구만 매워서 못 견뎌단말여,<sup>32)</sup> 매와서. 이젠 한쪽에 혜영케 씻어 곱기만 하고 한쪽에 사름 먹게 맨들아서. 이젠 관념한테 가서, 점심 이것 좀 먹어야겠수다. 그렇게 해서 이젠 이런 장통에 영 담양 가서 그 못을 갖다다가 삶은 못을 영 먹는거 보니 혜영헌 게 바로 먹음직 헌 거라. 그니까 거 천총님 거 먹는 음식 뭐입니까? 이거 나만 이거 먹었지 거 보통 사람은, 촌 저 백성들은 이것도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좀 먹어봅시다. 게서 이젠 자기는 삶은 걸 먹고 그 양반은 삶지 않은 걸 관념한테 가서 드렸다구. 이젠 하나 씹으니까, 흠치,<sup>33)</sup> 매워내 목 아래 내립이랑 마랑 흠치 씨…….

(조사자 : 씨 가지고?)

맵고 씨 가지고 못 허겠다. 아, 게 이걸 먹고 사느냐고 이것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고. 게니까<sup>34)</sup> 아 금년 세금 탕감해서 다 내블라고 게서 세금을 면제를 받았다고. (조사자 : 그 범천총은 언제쯤의 사람입니까?)

범천총이 그게 16대 손들이 여기 있으니까, 에 십대 삼백년, 한 사백, 오백년.

29) 힘이 세다. 용감하다, 용맹하다

30) 삶지

31) 하얗게

32) 견뎌단 말이어

33) 한꺼번에 같이, 아예 생각할 것도 없이

34) 그러니까

#### 4. 부훈장(I)

제 보 자 : 부래봉(남·82세, 한동리 1857번지)

조사일자 : 1994년 7월 29일

조사장소 : 부래봉 할아버지 댁

(조사자 : 그 외에도 범천총 얘기는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나 생각에도 의심가는 것이 귀신은 없다. 도깨비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 조부 팔촌 형이라고 저 우리 일갓<sup>35)</sup> 하루방이 있습니다. 이 하루방이 그 현 걸 보면 귀신이 있긴 있는 모양이라, 있는 거로 생각되어. 이 하루방이 우리 조부님하고 육촌 성젠<sup>36)</sup>디 여기서 덕천리 두 참<sup>37)</sup> 됩니다. 거기 가서 훈학질<sup>38)</sup>을 했습니다. 훈학질을 하다가, 밤이 비가 오나 날이 추우나해도 거침없이 그자 이웃집이 나오듯이 집이 가노랜 허멍 나오거든. 그 동네 학부형들이 그 이상하다고, 저 양반은 원 비가 와도 나가고, 추워도 나가고, 어두워도 나가고 이렇게 자기집 올래<sup>39)</sup> 집 나들듯 허니까 이상하다고 그래서 혼번 학부형들이 회의해서 이 양반이 가는 뒤를 좀 좇아 봅시다고

어떠니. 계년<sup>40)</sup> 봄 때에 비는 어슬어슬 오고 아주 침 옛날 말대로 도채비 나오기 좋은 땀주. 계년 한동마을 오는 디도 흐쓸<sup>41)</sup> 인척이라도<sup>42)</sup> 아니오곡 꼭 정시에 학생덜 풀어뒹 나온다고 계년한 한동리까지 돌뿡 나온다고<sup>43)</sup> 계년 덕천은 그 뻐깃디<sup>44)</sup> 나오라서 여기서 이제 거기 갈 만하면 못이 있습니다. 그 못에 오니까, 불

---

35) 일가(一家)

36) 형제

37) 가다가 두어 번 쯤 쉬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38) 훈장노릇

39) 거리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

40) 그러니까

41) 조금

42) 일찍이라도

43) 떠라 나온다고

44) 바깥에

이 배롱<sup>45)</sup> 했어요 제네, 그 하루방이 나오니까, 불이 흰허게 싸서<sup>46)</sup> 이렇게 인사를 콤짝이<sup>47)</sup> 허고, 게서 앞의 산 걷는다 말이여. 거난 그 양반도, 뒤에 돌라붙는 양반도 똑똑다 말이여. 기니까 그게 축지법이 있었다단 말이여.

(조사자 : 그 사람이?)

하르방이. 기니까 우리 새발 네발 걷는 걸 혼발에 툭툭 아사<sup>48)</sup> 놓는 모양이라. 그 시간이 언제 된 중도 모르고 어느새에 요디 살아난디 거기 왔다 말이여. 오라서 허니깐 집터 올래간 기자<sup>49)</sup> 수고했다 잘 도라가. 경 행 그 뒤에 온 사람은 콤콤행<sup>50)</sup> 어디광 어디 온 지 몰랑. 시간이 언제꺼정 된 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인젠 그렇게 했다고 이젠 그 하르방은 그런 말을 안 헨디 덕천 사람은 그런 말을 헨다고

## 5. 부훈장(Ⅱ)

제 보 자 : 부래봉(남·82세, 한동리 1857번지)

조사일자 : 1994년 7월 29일

조사장소 : 부래봉 할아버지 댁

그렇게 해서 그러면 또 이 일가 사람들, 기영 혈 리가 서<sup>51)</sup> 우리 하르방이 경 기술이 좋앙 경 허카이.<sup>52)</sup> 그루 후젠<sup>53)</sup> 한동서 글을 읽게 된다, 심심허난 동네 벗들이 가서 도채비<sup>54)</sup> 말, 무서운 말을 허니. 그 까짓저 도채비가 뭐 무서와. 뭐 이런 잠담덜을 해. 너덜 한번 무서운 거 블래? 방안에서 댜 무서운 거 있어. 무슨 꾀로

---

45) 회미하게 반짝이는 모양

46) 쉼

47) 공손히

48) 가져다

49) 그저

50) 킁킁해서

51) 그렇게 할 리가 있을까?

52) 그렇게 할까?

53) 그로부터 후에는

54) 도깨비

우릴 무섭게 할래. 좀 줌줍해 봐. 좀 고만<sup>55)</sup> 아지랜.<sup>56)</sup> 앓이민 축문 몇자 읽으면 아 이것이 뚝 팔팔 흐르고 바지에 똥꺼지 싸게시리 맨든다 말이어. 사름을. 그래서 정신 출려와서 무사<sup>57)</sup> 정 바지에 오줌싸고 똥싸서. 하 그놈의 도깨비 놈이 나와서 사름 모가지 눌러 나를 죽일라고 해서, 살고프고 달아날라고 허니까, 아질씨서<sup>58)</sup> 저 이추룩<sup>59)</sup>..... 돌아나믄<sup>60)</sup> 이 방안에 고만이 앓았는디 돌아나?

이 걸로 보민 여하간 저 정말 이상하다고 정 해연 해나서. 계민<sup>61)</sup> 수고해서 계민 떡이나 내 맥여주주. 게서 이젠 다 이 즈낙엔<sup>62)</sup> 아무 집이 식겐디.<sup>63)</sup> 식갯떡 이래<sup>64)</sup> 아사올겨여.<sup>65)</sup> 개떡 먹으라. 아 강해연<sup>66)</sup> 흐셀 시민<sup>67)</sup> 식개떡을 가져오거든. 식개떡을 가져완 먹언. 이젠 다 가져오도 안 헌 걸 거짓으로 가져단 먹은 거라. 이 녀<sup>68)</sup> 생각으로만 그렇게 됐다 말이어. 그걸로 보민 귀신도 있긴 있는 거라마썸.<sup>69)</sup>

## 6. 부훈장(Ⅲ)

제 보 자 : 부래봉(남·82세, 한동리 1857번지)

조사일자 : 1994년 7월 29일

조사장소 : 부래봉 할아버지 댁

한동 첫 동리로 행원리라고 행원 마을이 있주. 행원은 그물을 해서 멜 잡아서, 멜을 거려서 목고 산단 말이어. 조(組)가 삼존디,<sup>70)</sup> 한두 해 동안 멜이 안들어서 정

55) 가만히

56) 앓으랜

57) 왜

58) 앓아 있어서

59) 이처럼

60) 달아나면

61) 그러면

62) 저녁엔

63) 제사인데

64) 이리로

65) 가져올겨여

66) 그렇게 해서

67) 조금 있으면

68) 자기

69) 것입니다

70) 일진, 이진, 삼진 세 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멸치를 잡았다고 함.

말 곤란이 막심해십주. 막심해가지고 하다 못해서 이 선생을 돌아당 좀 제나 지내 봅서. 젤 지내줍써 허니깐, 나 곤는 데로 잘 들으켄 허민 제 지내마. 아 잘 들겠습니다. 들겠습니다. 게민 제물 출릴 사름을 제 지낼 사름을 앞 마을에서 정하라고 계연 밑에서 이젠 춤말로 출중헌 사름을 정헌.

이 하루방 그 이웃집에서 주연을 해 먹고 내가 곤는 말랑<sup>71)</sup> 꼭 들으라, 가는 날 로부터 이 저녁 주시<sup>72)</sup>에 가져다 젤 지내면 된다. 아침에부터 목욕하고 술 혼잔 먹어서 일절 올래 뱃긴디 나가지 말고 고만이 방안에 누웠다가 시간되면 내가 올꺼 니칸 꿈쩍허지 말라. 게서 경 지내봐도 그날도 안 오고, 일주일을 그렇게 거짓말 현단 말입니다. 경 정성을 헛다니까…….

그래서 이젠 제 지내는 날, 제 지내러 가면서 이 동네 사람 전부 모이라. 모여서 잔치도 허곡, 멜도 잡으래 가고, 경 허라고 경 점을 보고 제수지내러 갔다 말이며, 바닷가에. 제물 가져간 놈덜은 제물만 바닷가에 내비두고<sup>73)</sup> 멀리강 있으라고 경행 그 하루방만 어떻게<sup>74)</sup> 제 지내는 건지 제를 지냈다 말이며, 지내서. 이젠 제 지냈으니까 이 제물들 오랑<sup>75)</sup> 아사가라.<sup>76)</sup> 경허연 일어살<sup>77)</sup> 적에 사름으로 보이는다, 어떤 사람이 있던 말이며, 넌 어디서 이제도록 멩기당 왔느냐? 저 술쟁이<sup>78)</sup> 가, 너 찌시<sup>79)</sup>도 이서. 경 헛나게 그루 후젠 그 사람은 보이지 안 해마썸. 그 하루방 눈에만 보여서, 그것이 구신이지. 것도 경 행 이젠 집이 오란 보니까, 삼진들이 다 모여서 이제 는 제 지냉 올 것만 기다리는다<sup>80)</sup>…. 이젠 음복하고, 지금 길으면 축시, 혼 두시, 세 시썸, 지금 시간 되시니깐 삼진이 전부 곶이 나가라고 어느 사람이건, 어느 집이고 먼저 보낼 수 없고 삼진이 다 나가보라고 혹시나 멜이 들어 왔을런지도 모르겠다. 경헨<sup>81)</sup> 홀 수 없이 삼진이 전부 나가보니 갯도<sup>82)</sup>에 멜이 꼭 차서. 노를 젓지 못허게

71) 말은

72) 자시(子時)

73) 내버려두고

74) 어떻게

75) 와서

76) 가져가라

77) 일어날

78) 살쩍이

79) 뉘

80) 기다리는데

81) 그렇게 해서

82) 바닷가

막 밀렸다 말이여. 혼 두해 동안 아니 오다가. 아 경허니까 거 이상하다고 해서 그 멬을 거렸어.

## 7. 범천총(IV)

제 보 자 : 조선일(남·70세, 한동리 상동 76번지)

조사일자 : 1994년 7월 29일

조사장소 : 한동리 영미슈퍼(교회입구) 앞

그 비 있잖습니까 비차락.<sup>83)</sup> 주문을 외와 가지고서 이렇게 비차락끼리 싸움을 부쩍답니다. 나막신은 나막신대로 놓고 주문을 외와 가지고 이녁들끼리<sup>84)</sup> 싸움 부찌고 비차락을 싸움을 부쩍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귀신하고 싸움 부쳐서, 이제 뭐 주문을 외우면 딱 끊어. 끊어져 가지고 싸움도 안 허고 예, 그런 분이 괴범천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루는 그 뭐 제주시내가 갔다올 일이 있어 가지고 뭐 김영인가 갔다오는데 외딴 여자가 앞에 서 가지고 어정을 거리는데 느시<sup>85)</sup> 따라가질 못한답니다. 이젠 뭐 자기 무심으로도<sup>86)</sup> 내 댐에도 뭐 귀신을 잡는 사람인데 내보단 더 한 사람이 있는가 해 가지고 하 막 기냥 따라 갈려고 하니 뚝은 뻑뻑나지, 쫓아가도 쫓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하 이상하다 내보다 더 한 사람이 있는가 해가지고 겨우 그 사람을 쫓아서 와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하는 소리가 이러더래요

이 괴범천총이라는 사람 집에 불을 놓으러 간다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괴범천총이라는 말은 안 허고 어쩌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인간사회에 살 사람이 아닌데 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는 짓이 이제 괴상스러와 가지고, 사는 집을 불 태우러 간다고 불 태우면, 밤에 불 진으면은<sup>87)</sup> 사람이 타 죽지 않습니까. 경허고 이 사람이 었드려져 가지고 허는 소리가 하 제발 제가 괴범천총인데 제발 그

---

83) 빗자루

84) 자기들끼리

85) 아무리 앵글 써도

86) 힘으로도

87) 불 지르면은

살던 살림살이나 꼬집어 낸 다음에 불을 붙여 달라고. 그러니까 하 이 사람이 하는 소행이 아주 참 거룩하게 말도 없고 아주 고상하니까. 그러면은 그러라고 해 가지고 그 세간살이를 전부 딱 내노니까 그 집가제<sup>88)</sup>가 제주도 말로 집가제가 사방에 한번에 돌더랍니다. 싹 돌고서 그대로 불이 붙어가지고서 그 저 죽어 그 집을 다 불 태웠다고 하는데, 요 괴구슬 저쪽은 괴팍모루,<sup>89)</sup> 그 우리 이발사 앞으로 올라가는 데는 괴팍모루고, 이전 괴구슬이라는 나무가 또 있답니다.

이 괴구슬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제 전부가 이제 또 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없어졌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나무가 없어졌대요 해 가지고 괴구슬로 올라가지고 요 운동장 쪽에 살다가 죽었답니다.

## 8. 범천총(V)

제 보 자 : 조선일(남·70세, 한동리 상동 76번지)

조사일자 : 1994년 7월 29일

조사장소 : 한동리 영미슈퍼(교회입구) 앞

근데, 이제 저도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그 괴범천총이, 눈썹이 낫는데 눈썹이 한 자가 된답니다. 얼굴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썹이 한 치 이상이 됐다 이거요 이렇게 이렇게(검지를 보이면서) 됐는데.

목사님 아들이 말을 타고서, 이제 이 동부 지구로 놀러 올 일이 있어서, 오는데 한동에 그 괴이리라는 곳에 지나갈 적에는, 분명히 그 할아버님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 적에는 눈을 이렇게(손바닥을 펴서 눈썹 위에 얹는 모양을 함) 가려 가지고서 인사를 드려라.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하니까, 자기 댁에는 목사아들이고 하니까 그까짓 시골영감쫓이야 뭐 내가 가서 대문 열고 가면은 할아버지가 나를 맞이하러 오겠지. 이제 꽤썩힌 마음 가지고 시전방 마음을 딱 가지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범천총씨네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할아버지가 방에 있다가 괴이한 놈 들어오면서 인사도, 기침소리도 없이 들어온다고 딱 하니까 기냥 현장에서 꼬꾸라졌대요

88) 집 가장자리

89) 괴팍마루

그 목사아들이 하, 꼬꾸라지면서 그냥 검착해서<sup>90)</sup>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제는 잘 앉으라고 딱 이제 말을 하니까 삭 앉으고 해서. 손을 아버지가 말한 생각이 나 가지고 손을 이렇게 가려 가지고 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눈을 바로 떠서 보지도 못하고 눈에 그 광채가 나가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시행을 혈컨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비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 가지고서 이제 그런 일화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깨비불 같은 것도 이제 그 괴범총씨는 범천총씨는 도깨비불도 이제 잡고 끄고 잡고 끄고 끄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 말도 저도 듣고 그랬습니다.

## 9. 범천총(VI)

제 보 자 : 조선일(남·70세, 한동리 상동 76번지)

조사일자 : 1994년 7월 29일

조사장소 : 한동리 영미슈퍼(교회입구) 앞

집의 돌아오는데 여자가. 하 이쁜 여자가 말이야. 고득이<sup>91)</sup> 으피 이제 구덕을 딱 드르고, 아주 추운 땀데. 아 사람을 살려달라고 여자가 딱 거기서 애원을 허거든. 그 무실<sup>92)</sup>에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범천총이 아 그러냐고 이 양반은 벌써 이게 백년 묵은 여의<sup>93)</sup>란 걸 알았다 말이야. 이 양반이. 벌써 그것이, 백년 묵은 여위란 것을 알아가지고 아 그러냐고 게민 내 말위에 타라고 말 위에 탁 타니까 이젠 그 진대를 가졌다가 탁 존등을 이렇게 서로 탁 묶어가지고 말이야. 딱 도망가지 못하게. 딱 묶어가지고 죄영 나오랐는데, 그 뒤에 개를 검은동아 황동아 이렇게 해서 개를 세 마리나 부르니까 세 마린가 두 마린가 지났다는데.

옛날 그 말, 딱 이 여기 이 여기 가면 저 낭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이 있어요 거길 딱 올라서면서 황동아, 검은동아 해서 부르니까 개가 그냥 집에 있던 놈의 개가

90) 가슴이 철렁해서

91) 가득히

92) 모서리

93) 여우

그 영감 소리에 개가 바짝 달려들거든,<sup>94)</sup> 달려드니까 이 여자는 벌써 여위니가 가끔<sup>95)</sup>에 닥쳐가니까 말이야, 내려달라고 막 조추거든.<sup>96)</sup> 아니, 아직 멀었다고 경해 가지고 이제 그추룩<sup>97)</sup> 해 가지고 이젠 개가 탁 달려드니까 베를 탁 끌러가지고와선 툭 던지니까, 저 던지니까 말야 그 개가 달려들어 가지고 그 베를 탁 다 찢어부니까 그 베가 안 남게 되거야.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는….

## 10. 도채비(I)

제 보 자 : 김차옥(女·71세, 한동리 상동 1114번지)

조사일자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김차옥 할머니 댁

요 이디 송집의, 에 그디 옛날 할망들 좀 아는다. 이제 옛날에는 그 물들이영 막 쇠들이영 받되서 받갈고 물로 헤영그네. 이제 밭 갈아낭 저 쇠로 밭 갈아낭 몰해영. 이제 이 농사철 나쁜 조, 보리 그때 옛날엔 조, 보리 밧젠<sup>98)</sup> 안 했거든. 이제 그거허난, 그거 허단에. 에, 이제 이 조 갈 때나 된 땅에 조 씨 뿌령으네 이제 그때는 막 그냥 물로 막 이제 그걸 몰아댕기멍 불리주게.<sup>99)</sup> 몰안 불린다. 에, 점심을 해 가나 조반을 해 가나 저녁을 해 가나 허는 건디. 딱 집의도 무시<sup>100)</sup> 빌어 허고.

전디 계난 송집의서 이제 그 지네<sup>101)</sup> 밭을 불리게<sup>102)</sup> 되난 점심을 이젠 집에서 했는디 우선에 그 고팡에 모상, 고팡이랜 헌 건 그 안방 가까운 곳에 옛날 고팡이라고 (조사자 : 창고 예?) 음 이젠 창고된. 이 집 안에 영 저렇게 고팡해영, 거기다

94) 달려들거든

95) 갈림길(?)

96) 조르거든

97) 그렇게

98) 밧엔

99) (밭을) 밧았지.

100) 마소

101) 자기네

102) 밧게

모사 낱.<sup>103</sup> 모사 노문 이젠 그 제사 때도 모녀<sup>104</sup> 밥을 행 거렁<sup>105</sup> 올리고 또 소, 물해영 볼릴 때도, 이제 옛날엔 차반지<sup>106</sup> 이제 차반이라 하지. 각 들바구니 그 바구니 담기 전에 밥을 거려서 이제 고팜에 앓다다 낱, 이제 그 놔 똥 가고 경 안허믄 아니될거난.

그냥 영 매날 허는 걸 할망이 까맣게 잊어부러서게. 그냥 밥 퍼 아정으네<sup>107</sup> 이젠 그냥 저 거시기 발볼리는데 학 가서. 학 가단 저 우회<sup>108</sup> 저 거시기 글렌 행 쉼팡에 가난 허특하게 튼해여.<sup>109</sup> 하이고 큰일났젠. 그냥 지어 아정<sup>110</sup> 내려오란. 집의 오란 보난 그자 솔강알<sup>111</sup>에서 그 하르방이 이제 벌쭉한 하르방이 그냥 불을 지덜서. 그 댜 뭘 검질<sup>112</sup>해당 불 숨을 때난. 게난 막 그 불 부껴불젠 후욱허게 불어. 그냥 아주 잘못했습니덴 막 잘못했습니덴. 게난 그 잘못했수덴 허난 부애낭<sup>113</sup> 허명도 그 위로 밥을 거려단 이제 올려쥬. 경해된 그디 간 밧을 불런.

이제 경 쪼끔만 잊어부러시믄 그 집은 모두 다 타 불 거. 경 허영 헨디 쪼끔만 잘못허면, 그 도채비는 참봉도채비라고 허는 그 도채비가 (조사자 : 도채비도 벼슬이?)

아암, 참봉이랜도 허고 야쳐영도 허고, 또 이제 아기씨 이제 서낭이영도 허고 거여러가지쥬. 도채비가 (조사자 : 아기 도채비 마씨?) 응 아기씨, 서낭이영도 허여. 서낭이엔 허른 배에 이제 서낭 있지. 서낭 이신 거난 그것도 배까트러강(?) 모서당 지어낭 애기씨 서낭이엔 경 모시면 그게 영허당 쪼끔만 잘못허른 그냥 파산이 되 불지. (조사자 : 애기 도채비는 게믄 어떻 생겼덴?) 애기씨? 옛날은 그 연날엔 이젠 참 옛날엔 애기씨랜 허지만 이제 같으면, 에 처녀. 응 그렇게 되지. 쟁 옛날엔 애기씨라고 이 (조사자 : 아가씨, 아가씨가 애기씨?) 응 이젠 아가씨랜 허주만. 그댜 애

103) 모석농고

104) 먼저

105) 떠서.

106) 쟁반

107) 가져가지고

108) 위에

109) 가다가 쉼팡에 가서 갑자기 생각난 것을 표현한 듯함

110) 쳐 가지고

111) 길어놓은 술 밑의 아래

112) 마른 나무(?)

113) 부어놓고

기씨랜 허주 애기씨. 애기씨 서낭이라고, 참봉서낭, 야처서낭, 야처는 그냥 막 이제 막 이렇게 벌립<sup>114)</sup> 쓰고, 이제 막 헌 옷 입고 뭐 두레메곡 허영 그옛날엔 거 이 새<sup>115)</sup> 새 집 일영으네 해난 그 그스새<sup>116)</sup>라고 그걸 즐라메영 불싸그닝에 허고 그 초롱이 있다 해서 옛날엔 초롱 저 이제 그트면 그 전기 꽃앙 헌 거주마는 그 맨 초싸그닝, 초도 아니고 에 그 접시에 지름 낭 영 십지 맨들앙 놔그네 초롱 영 행 네 귀나게 영 행 싸그닝에 그거 해영 땡기는거. 초롱에 불 쌍 땡기는 도채비도 있고 이제 그 그스새에 불 싸그네 돌아땡기는 도채비도 있고 여러가지지.

## 11. 도채비(Ⅱ)

제 보 자 : 김차옥(女·71세, 한동리 상동 1114번지)

조사일자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김차옥 할머니 댁

(조사자 : 그 옛날엔 그 밤늦게 식게 먹으래 땡기지 않습니까 양? 노인 죽었다고 양? 경허명 도채비 봐 낫당 헌 그런 말은 못 들어 봐수까?)

무사 나도 서너번 봤주. 아 옛날엔 이 한동은 그런 도채비가 만해여. 이제는 이 개명(開明)되기 때문에 도채비를 영 못보지. 이제 혼 내가 혼 스물 때라. 저 삼조합 이렌 헌디. 계룡동에 나가 간 오당 그 때엔 밤 짙은 맨 디 간 오단 저 개판모렌 헌 동산에 이젠 탁 허게시리 가지 안 헌 때 그동산을 못 갈 때에 이젠 그냥 막 저쪽으로 막 아주 애앵허고 두린<sup>117)</sup> 애기 우는 소리가 나고, 왕이자랑 그 야기, 옛날에는 그 왕이자랑 왕이자랑 허명 막 울지말라 울지말라 허명 막 이 구덕해영, 대구덕 해영 등구는 소리가 난 가만히 서 있오난. 비는 툭툭툭 오고, 천지가 아 그디가 난 원 질을<sup>118)</sup> 못춧아. 질은 흰허게 나는데 옛날엔 질이렌 해 봤자 영 작은 질이주게. 케웃컴해노난<sup>119)</sup>. 원 어드레가몬<sup>120)</sup> 그디 가몬 동산이 이시니까 동산 아래는

114) 벅거지

115) 질 만드는 데 쓰는 풀의 일종

116) 초집을 이을 때 쓰던 띠를 말함.

117) 두려워 하는, 정신이 얼떨떨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118) 길을

119) 컴컴하니까

120) 어디로 가면

그냥 굴랭이라서 그 동산에 올라강으네 그냥 호곰만 허든 그냥 그레 터리지면 죽는거라. 하 이 경헌중은 알아놓고 이거 큰일났다고 허든디.

허기도 이젠 칩 위에 있근테 그것을 이제 뺏아서. 뺏상 이젠 불을 이제 탁하게 이젠 불전에 이젠 영 허연 들르난 아 그 불이 자꾸 거 꺼지는거라. 싸민 꺼지고 싸민 꺼지고 나가 담배를 피우거든, 경헌 담뱃불 부치젠 해도 탁 꺼져불고 또, 그뻘에 성냥백인 이젠 화곽이라고 있지. 성냥이 아니고 화각, 응 화각이렌 행 그걸 가전 땡기명 에 그 때도 무신 켈런도 없고, 입초랜 허영 이제 밧디 영 갈아그넵에, 뜯으면 그거 해영 썰어그네 그거 앓양<sup>121)</sup> 땡길 때라. 쟁헌디 그걸 이젠 개와<sup>122)</sup>에, 보켓또<sup>123)</sup>에 담고 종이 행 몰아 먹는거난 종이두 다 줄랑 담고 아멩해도<sup>124)</sup> 안되 크라.

쟁행 제우<sup>125)</sup> 오단에 그냥 가만히 앓았어. 이거 나가 원 이렇게 땡기다그넵에 그레 그냥 팡 빠지른 죽을거라 행 가고 나가 이 그거는 알아도 질을 못 찾기 때문에 이젠 그냥 앓아서. 아장 이젠 담배 부치젠 허민 기냥 꺼져불고 노시도 부치지 못허구. 돌맹이들 많이 있는디 암만 돌맹이를 잡젠 막 그냥 막 영영영영 막 해도 돌맹이를 잡지 못해여. 저우 잡은 건 요만헌 거 하나 잡아져. 이젠 또 찾으난 또 이만헌 거난 아 그걸 이제 두 개를 그 돌가루 내와불민은 그 도채비가 달아나는 거지.

(조사자 : 돌가루를 내면 달아나는 거우까?)

응 쟁행 막 영 두들젠 허난 손만 아프지 거 쪼끔락헌거난 요만씩 헌 거라부난. 그 심어난 돌가루가 줄바로 안 나왔어. 안 나오니 그냥 막 이래도 데끼고<sup>126)</sup> 저래도 데끼고 두 개 낸 데껴 놔 된. 쟁해도 안 되여. 쟁해도 담배 피왕 어디쫂이나 영 불 썩<sup>127)</sup> 어딘 중이나 알젠 쟁해도 안되는 거라. 안되니까 아 이젠 어 이거 어떻허민 좋으코? 나 속으로만 이젠 가도 오도 못허고 이제 큰일났젠 비는 툭툭툭 오

121) 가져

122) 호주머니

123) 호주머니. pocket의 일본식 발음임.

124) 아무리 해도

125) 겨우

126) 던지고

127) 불을 켜서

라가고 헌디, 이제 안되겠다고 이제 불박살<sup>128</sup>로 막 니, 니를 막 숙대여서.<sup>129</sup> 니빨  
을 막 숙대어난 피를 나면 돌아나지. 그 도채비는 게난 막 그저 니를 숙대전. 우린  
이 니쯤에서 그 피 잘 만나주게. 게문 막 술을 막 숙대겨 가난 이젠 그뻐 피가 나  
오는 거 다텐. 이녀 입에서 피나오는 건 냄새나지 않아 피내 이? 피내 나건 짹짹하  
게 이 이래저래 뽀어서. 뽀언 그냥 고만이 앓앙. 이젠 앓았당 따시 이젠 그때는 이  
젠 담뱃불을 이젠 '착'하게 부치젠 허난 '탁'하게 부쳐져.

그 때 이제 아 영 뵈려보난 이거는 굴랭이고 바로 그냥 이진 동산이니까 동산,  
굴랭인 이거고 이 요디 왕 꼭 앓아 이서. 하 경행 그냥 이젠 그 뻐 질도 뵈려지고  
응. 그 흘려 가는거라. 도채비가 나를 흘려당 그리 드리치젠<sup>130</sup> 허는 거라. 경헌디,  
이제 그래 저우<sup>131</sup> 나오란 집의 오라 나서.

## 12. 도채비(Ⅲ)

제 보 자 : 김차옥(女·71세, 한동리 상동 1114번지)

조사일자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김차옥 할머니 댁

저 아랫동네 가서 이젠 저 내가 제사 때 되 가난, 거 아랫동네 갔단 밤늦언. 어,  
도야지<sup>132</sup> 다리를 하나 들러 나서. 도채비는 도야지 다리가 막 원수, 저 원수가 아  
니고 막 좋아지는 거지, 도야지 피기. 에 저 수시(수수), 저 뵈이고 대축<sup>133</sup> 그 비치  
락 하는 거 그거 흘타그벵에<sup>134</sup> 그거 그런 거 흥영 밤흔 거 그거 도채비는 그것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 술허고 에 도야지피기허고 이제 대축범벅 그거해영 굴아그벵

128) 성냥개비

129) 찢어서 해집어 놓음

130) 집어 넣으려고

131) 겨우

132) 돼지

133) 대축(수수)

134) 훑어 가지고

에<sup>135)</sup> 고루로 해영 범벅지성 그 도채비, 이처럼 잘되는 거라. 계난 그것 세 가지지. 계난 도야지 괴길 하날 들러 아지고, 술 이제 굶으면 스흠짜리지. 그때 그거 들고 행 이젠 제사해 먹으라고 가전 혼 열한 신가 넘으나마나 현 때라. 열 두시 되 가면 도채비가 달아나는 거라. 새날이 들어가믄. 계난 열 두시 안에 도채비가 하고<sup>136)</sup> 또 저녁 도채비, 밤도채비 있곡 또 이제 새벽 도채비라고 또 있지. 에 붉은 때 붉아갈 때 도채비가 있곡.

경 계난 이젠 그걸 이젠 앓안 나가 질 일러난 디<sup>137)</sup> 또시 오니까 아 누계가 오란 뒤로 날 똑 안앙 그자 아사 알트레<sup>138)</sup> 탁 앓안 매어다 치는 거라. 내다 치난 내가 내가 해씩<sup>139)</sup> 걸려져서,<sup>140)</sup> 걸려지난 뚫다리도 천리만리 앓다 데껴블고 술병도 천리만리 앓아다 데껴블고 했는디, 술병도 벌러지지<sup>141)</sup> 안 흐고 뚫다리도 그냥 이서. 아 그제 내가 이제 또 여긴 도채비 이신 디니까 요거시 나를 이젠 영 귀창(?) 주지 안 행 가 부니까 이제 날 앓당 매다치는 거로구나. 내가 생각을 해서 이젠 그때는 이젠 이것들이 뭐 날그라<sup>142)</sup> 날그라 도렝<sup>143)</sup> 해시민 주지마는 도렝도 안 흐고 그럴 또래가<sup>144)</sup> 있느냐. 날 앓당 매다 치느냐고 허명, 내가 골면서<sup>145)</sup> 그 뚫<sup>146)</sup> 아 이젠 발, 발통 그 아강발이라고 허는 그걸 딱 그찬 앓안 딱 데끼고 술은 앓안 파씩 벌러블었지게. 아마 벌러부난 이젠 다 먹영가라고 허허허. 경행 집에 오라난 데가 이서.

### 13. 도채비(IV)

제 보 자 : 김차옥(女·71세, 한동리 상동 1114번지)

- 
- 135) 갈아가지고
  - 136) 많고
  - 137) 잃어난 데
  - 138) 아래로
  - 139) 벌렁
  - 140) 넘어져서
  - 141) 깨어지지
  - 142) 나에게
  - 143) 달라고
  - 144) 도리(道理)가
  - 145) 말하면서.
  - 146) 돼지

조사일자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김차옥 할머니 댁

이제 저 당이 있어. 당이 있네. 이제 에 나가 당에 가젠 출런<sup>147)</sup> 갔어. 근디 그 해줄 사람이 밝아가면 해 주켄 허는 거라. 이제 열 두시 넘으면 오랑 해주겠다 허길래 아니 흐끔 영 초저녁에 흐끔 자당보난 그냥 깨나난에 아니 열 두시 안에 해가 나게 되서. 제난 나가노난 그레 집에 오도 못흐고 그걸 출령 간, 거 내 비어 땡<sup>148)</sup> 오도 못 흐고 아이고 어떻게여. 에 이젠 앓는다고

이젠 그디 나무 해단에 거 이제 그 당 이젠 불을 살라서 불을 살랑 가만이 앓아 시니까 저 둔지오름이렌 현 거, 저 오름 저 둔지오름으로 불덩어리가 이 많이<sup>149)</sup> 현 것이 그냥 휘 허게 오랑게. 이제 요거는 당이고<sup>150)</sup> 요거는 요만히는 이제 발이 이서. 발이 신디. 난 상 에염<sup>151)</sup>에 아갔고, 그 발 바로 당 불은 밝이 이서 그디 오랑 탁 허게 떨어지른 탁 허멍 떨어전 어선.<sup>152)</sup> 흐쌀 시민<sup>153)</sup> 또 그디서 또 불덩어리가 탁 되영 따시 그냥 둔지에 올라가고 난 불살라 놓고, 불 살라 노니까 오질 못 허는 거라.

제난 이상허다. 이 하 이놈의 도채비가 영행 나 부리젠 더 막 와랑와랑<sup>154)</sup> 살리 멩 현디 한 세 번을 해연. 해 가지고 현디 나가 끝는 말이 너가 가닥와닥<sup>155)</sup> 허지 말고 응 나신디 와서 곱이 불 초면서<sup>156)</sup> 나광 말 굳고 놀민 좋지 안허나. 경 헨 곱 으난에 아니 그게 불덩어리가 탁 털어졌단 파작했당<sup>157)</sup> 다시 또 그냥 팍 뭉크런 그냥 둔지드레 탁 털어졌당 파작했당 다시 또 그냥 팍 뭉크런 그냥 둔지드레 돌아 나브런.

147) 차려서

148) 내버려두고

149) 이만큼

150) 앞에 그림을 그리며.

151) 발의 가장자리

152) 없어

153) 조금 있으면

154)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양

155) 갔다왔다

156) 췌면서

157) 바짝 일어났다

내, 그 때도 나가 돌아나브런. 내 그 때도 나가 성주<sup>158</sup>)가 여러시민<sup>159</sup>) 멧번 나가 죽을 고생 많이 해 지고, 거 그것이 경허고 저 도채비로구나 뭐로구나 영 해영 정신 이 혼동되민 사름으로 되영, 나를 이제 다른 사람들도 경 허주마는, 어디 저 만쟁이 굴<sup>160</sup>) 닳은디 어디 막 굴 속에 강, 앓당 들이쳐불고 경 허주게. 도채비는 우는<sup>161</sup>) 뵈려지고 알은<sup>162</sup>) 못 보는 거라. 울로 요래<sup>163</sup>) 뵈려지고 이 아랜 못, 안 뵈려져.

#### 14. 도채비(V)

제 보 자 : 김차옥(女·71세, 한동리 상동 1114번지)

조사일자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김차옥 할머니 댁

(조사자 : 그 도채비 봤다는 그 할머니 말고 다른 분들의 얘기는 어떤가예? 그 러니까 도채비 모양을 봤다는 얘기는 어서마써?)

도채비를, (조사자 : 생김새) 어 그 사람, 저 을 음력으로 이월달에 죽어비었으니 까 남잔데. 저 행원에 처가 들었어. 그 처가 각시지. 이제 그디 장개를 들어서, 이제 처가집의 간. 올 때에 이젠 거기 저 도새기들, 옛날은 도새기 잡아그녕에 이제 추렴한다고 허여. 그거, 이젠 아 혼 다릴 가전 들어 오랐어. 저 행원, 이젠 질이 흰 허게 되연 아스팔트 빠난 거지.<sup>164</sup>) 그 때는 질이 요만허게 질이 이서나서. 행원으로 게난 오단 그디 큰동산이엔 흰 디가 이서. 거기 처녀죽언 문은.

이젠 그 사름이 이젠 돛다리 들언 이젠 큰동산엔 처녀 죽언난 거기 한 쪽 문어 왔어. 이젠 저 치위불언 없지만. 꼭 처녀귀신이 그디서 나와부난. 해영게 출려야전

---

158) 성격

159) 여렸으면.

160) 만장굴

161) 위에는

162) 아래는

163) 여기에서 여기는

164) 아스팔트를 포장하니까 그렇지

막 그냥, 어 구덕지고 그디 모다그냉에<sup>165)</sup> 누게 이제 남재나 여재나 봐지면 막 지영<sup>166)</sup> 곱이 아장흐곡<sup>167)</sup> 막 사람곱이 막 흘러그냉에.

아, 그젠 오란에 이젠, 그 해영게 출련에 그 처녀귀신이 나오란. 그 사람이 술을 먹었주게. 술 먹언 영 흥창망창 오라가난에 그 사람이 이젠 나영 곱이 가켄 흐명 여재가 오랑 막 흐난 남재는 또, 그건 또 거 사람인 중 알았주게. 무신 그디 처녀귀신은 있젠 말은 들어도 그 생각은 그냥 술 먹어부난 잊어불었거든. 계난 이제 곱이 가켄 그냥 가는게 저 그 우으루<sup>168)</sup> 가는다, 그냥 막 까시발 있곡 뭐 돌멩이 있곡. 뭐 정신이 없어. 돛다리는 이렇게 들르고 헐디. 간 저 만쟁이 거믈(?)이랜 헐 디가 이서. 저 덕천드레 가는다 (조사자 : 만쟁이?) 만쟁이 거믈, 거믈 저 덕천 만쟁이 거믈이라고 있지게. 그 곱이 저 저시기 김녕 사굴, 그 저편 짝에 그 터진 디라. 그 만장굴서 그레 들어가면 그 만쟁이 거믈이랜 헐 디로 나오라지는 거라. 응 이제 그레 막 닭암성계.<sup>169)</sup> 이젠 그디꼬장 이젠 가켄허난 이제 아니 영 행 보난. 흐쓸 해가 붉아 가는거라.

아 붉아가난 보난에 그 덜 탁 아자서랜,<sup>170)</sup> 강 보난 도새기 괴긴 하나도 없고 그 발통 그거 하나 들런 가져서랜<sup>171)</sup> 헐 거라. 어평사 해신지<sup>172)</sup> 경헐 허고, 신도 다 벗어 떼껴전 맨발에 그렇게 그 까시밭으로 담이고 막 넘어 이젠 그냥 간. 경헐 돌아오란에. 이젠 참 집에 오란 이거를 옛말삼아<sup>173)</sup> 그렇게 허는 건 들언.

## 15. 도채비(VI)

제 보 자 : 김차옥(女·71세, 한동리 상동 1114번지)

조사일자 : 1994년 7월 30일

- 
- 165) 모여가지고
  - 166) 자기랑.
  - 167) 앉게 하려 하고
  - 168) 위로
  - 169) 길을 포장하고 있는데
  - 170) 앉아 있더라고
  - 171) 가 있더라고
  - 172) 어떻게 했는지
  - 173) 옛말삼아

조사장소 : 김차옥 할머니 댁

(조사자 : 흘린 사람 말고 무슨 도채빌 자기 몸냥 부리는 사람은 어서 나수까?)

것도 있주게. 저 사조합이엔 헌디 저, 학교집 저편쪽 동네에 남편네는 허씨고 여재는 김씨야. 영헌디, 그디 이 도채빌, 이제 에 물질허는<sup>174)</sup> 사람은 그런걸 잘 뒤 지극 허주게. 해너들은 계난, (조사자 : 그것이 흑시 용왕제?) 용왕에 도채비도 있고 모른 디<sup>175)</sup>도 도채비 있고, 다 그렇게 허주게.

도채비가 막 오라그냉에 같이 접촉허고 저 서방이 어 놀레가던가 어디 에 출장을 가고 어디 외박을 가던가 영 허민 그냥 이 병것이엔 헌 건디 옛날엔 요만이 큰 병것 허연에 이제 들어오는 지등남.<sup>176)</sup> 생긔 지등이랜 허지 그 지등남에 탁 걸어두고 에 우장 썬. 우장, 저 옛날에는 그 새로 그물같이 짜면 그 툭툭툭 해영 영 툭 영영 해 그네 툭 풀라매고 영영영영 탁 허민 이디꼬장<sup>177)</sup> 가게시리 짱 옛날엔 해 나서 그 우장, 우장 해영으네 이제 그 공장<sup>178)</sup>디레 툭 걸어두꼭 허연. 서로 부부간 출려그냉에 방에, 이자 누워가난 계난 그 여자가 막 몰랑 아픔만 허는 거라.<sup>179)</sup>

막 아픔만 허난에 이젠 그 남편네는 경헌 중 모르고 남편네<sup>180)</sup> 곤도 안 허고 경허난 막 그냥 아파그냉에 곳을 허네 뵈을 허네 해도 곳털 때에는 곳해 가는 가운데 그만 곱안<sup>181)</sup> 돌아나비연. 어디가신고 스뭇 혼 사흘을 찾아도 찾지 못해연 보난 말째는<sup>182)</sup> 이 집 우회 천장 쏘곱에<sup>183)</sup> 그디 들어가그냉에 그냥 혼 사흘을 살아부난, 집의서 곳을 허는디 그만 돌아나부난 거긴 들어간 중 알아서게. 그냥 어디 다른 데 간 중 알았지. 그디서 사흘을 살아붙어서. 그냥 사흘을 그냥 아무도 먹도 안 허고 그냥 사흘을 살안. 경허난 말째는 그냥 어떻헤 발각이 되연 나오란. 그 때

174) 해너일허는

175) 마른 데

176) 가등나무

177) 여기까지

178) 벽에 못 따위를 박아 물건을 걸어놓을 수 있도록 만든 것.

179) 마르면서 아프기만 아는 것이다.

180) 남편네에게.

181) 숨어서

182) 끝내는

183) 속 안에

에 그 곳을 마쳤겐.<sup>184)</sup>

정 험<sup>185)</sup> 그 집이 허다 허다 그냥 그걸 잘 대접 안 해부난에 그냥 그 집도 복씩 망허고 아들 성체 다 죽어불고, 그 하르방도 죽어불고 이제 할망도 죽어불고 이제 씨가 없지. 저 아들에 손주 지지빠이 하나. 여자 하나. 그거 해영 그거 하나 시연 아무 것도 없지. 게난 양재돌앙<sup>186)</sup> (조사자 : 그건 언제 때 일이우까?) 그런 일은 혼, 혼 이십년 넘어서.

### 16. 도채비(VII)

제 보 자 : 김차옥(女·71세, 한동리 상동 1114번지)

조사일자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김차옥 할머니 댁

(조사자 : 그 뭐 도채비가 뭐 도채비불 빵 가그네 뭐 멜들 하영 거렀다든가 뭐 그런 말이 이십주예?)

그렇지. (조사자 : 그것 좀 골아줍서. ) 그것도 저, 삼조합이렌 헌 디라 그 옛날에 는 (조사자 : 어디렌 헌 디 마썸?) 삼조합. 저, 아랫동네 저 아래, 거기서 그물을 해 영 옛날엔 배를 그 안으로 해서 영해연 그물을 절로<sup>187)</sup> 강 쪽 허게 낚<sup>188)</sup> 허민 거 들엉 사람이 막 골이 막 팽기지게. 줄 막 팽경 돌아왕 막 같이 오라그넵에 풀어놓 덜<sup>189)</sup> 막 갈르고 뭐 허는디.

그 사람이 그 하르방이 에 고침이라. 하르방이 이제 그 거시기 그 물에서도 으 뜸이라. 으뜸. 이제 제일 그 큰 사람이주게. 다 것도 그냥 으뜸인다. 이제 그 이 멜 거러렌 허영 여름 나가민 음, 도새기를 잡아그넵에 그 도채비를 잘 위해야 고기나 맬이나 잘 거려지주게. 거 들어오랑 거리주게. 도야지 잠안에 이제 구워서는 도채

184) 마쳤다고

185) 그렇게 하여.

186) 양자를 데려서

187) 저기로

188) 낚서

189) 풀어놓아서들.

비나시, 이제 참봉도채비나시 이젠 그걸 간 구워서 지내여네.

이제 거기서가 이젠 거 옛날엔 도야지 피기가 막 귀해났지제. 계난 거기서 반(190)을 주는 것이 피기 영 이만씩 기차그넵에(191) 이제 석 점 한 고쟁이(192)에 꿩영오네 집의서 아니간 사름, 주는거라. 계난 그건 으뜸이라고 이젠 할망을 앓당 줌센. 거기서 주난 새로 영행 끌레기라고 한 맨들앙 거저 돛[돼지] 쌍 와네, 이제 앓안 오단 지네 집에 오랑 주민(193) 안되카부덴 오단 그 올래에, 불치막이랜 현, 옛날엔 불치막이 이서났어. 이 불 때어나른 그걸 그 불치막에 앓당그넵에 이젠 무물도 같고 뭐 발의도 드리곡 허멍. 불치막 올래에 요만하게 짓어. 계문 그 불치막 소곱드레 그냥 그 집가래 소곱드레 ‘꼭’ 허게시리 그걸 질러된 그 하르방이.

이제 집에 들어간 누웁 잔 뒷날 아침에 할망이 곤는 말이, 나나신 무사, 저 반이엔 현 건 그 피기지. 반 훈 반 아니 도랩데가.(194) 영, 저 올래에 강 봐. 저 불침막에 이젠 오단에 끌레기로 산 오단 그 불침막에 찢러뵤 오라서. 강 앓당 먹어. 경허난 할망이 간, 그거 강 앓아네 그걸 먹었던 말이여. 먹으난 그냥 막 다 아판 죽어가지 안 허여. 죽어가난 어디 이제 아는 점쟁이신디 당견 점을 보난에 이제 깃것(195)에서 온, 이제 조상이 이제 참봉 조상이 들어왔다. 그 조상을 안 모시면은 이제 당신네집이 이제 못 산다. 영해노난 그 이제 그 아픈 할망이 죽곡헌덴 허난 이제 신방드레 간 이제 그걸로 그 깃것조상, 참봉조상에 해난 이제 뒤에 질렁, 뒤에 낭, 이제 감낭이나 대낭이나 그런 나무들 심은 나무 아래에 이제 그걸 현.

뒤시건 저 옛날에는 에 기와, 수키와 하나, 암키와 하나 해영 기와가 수키 암키가 있지. 계난 그건 암키는 영 가르창(196) 알르레 놓고 수키는 영 윗트레 놓고 또 새(197) 해당 주쟁이 해당 톱 썬위그넵에 어엽에 돌을 영 허게시니 지들렁 앓당 집의 제삿날 같은 때 이제 출렁 가그넵에 그레 강 비우고 허영 강 나강 비우고 식계

190) 제사나 고사지낼 때 사람마다 나눠주는 몫

191) 끊어서.

192) 꼬쟁이

193) 와서 주면.

194) 달라고 합디가.

195) 바다

196) 자빠뜨려서.

197) 떠를 말함.

나 맹질날도<sup>198</sup>) 그렇고 또 집의서 이제 문전에 고서지낸덴 행 허른, 이제 그때도 다 해영. 그레 다 해영으네 허고 똑 기영 허주게.

경 헌디 혼 번은 이제 그냥 그 집을 뜯게 되지 안해서. 뜯게 되난 이젠 그 타불교들을 믿어붙어서 그 사람들이 그 하르방들이 이제 그 타불교엔, 그, 이제 믿어네 헌디 이제 그걸 이제 그냥 불을 숯아붙어서.<sup>199</sup>) 타불교 민영. 그런 미신이 엇다 해연 불을 숯아붙어서. (조사자 : 타불, 타불교마씨? 타불, 타불, 타불한다고 해 가지고 타불교?) 응 거시기 바다해짜 해 허민 타불교 그런 타불교를 믿언 물만 강 먹고 막 생식허주. 쏘 행그넵에<sup>200</sup>) 에 물에 씻어 컷다그네<sup>201</sup>) 그거 전정 먹으멍 일주일씩 이제 그디서 막 이녁냥으로 이렇게 두들고, 막 거기 두들고 영허고 헌디. 거기 이자 한동 그 아래도 서. 그덜 믿어 노난 이젠 그냥 저 그걸 불붙여부난, 아 이제 그냥 설러불지 안해서. 이제 그걸 없신 걸로 해된 막 타불교들 오란 막, 막 나무호랭고 허면서 타불교 믿음센 허민 막 바다해짜 해운신허멍덜 막 그냥 그 옷알에<sup>202</sup>) 빙빙돌아 댕기멍 해영. 그걸 어시대겨부난<sup>203</sup>) 그냥 그디 아들이 큰 아들은 시에 살고 어 이제 죽은 아들도 시에 간 살고 셋아들<sup>204</sup>) 아니 큰 아들은 한동리에, 지네 어멍 아방 사는 집의 살고 셋아들은 시에 살고 또, 죽은 아들도 시에 사는디 큰 아들은 불교를 믿고 셋아들은 이제 저 그 아무것도 아니민언. 저 시에 간 살고 죽은 아들은 여수골 믿고 아 셋아들은 저 타불교를 지내. 아방 허던 걸 그걸 믿고 이제 큰 아들은 불골 믿고 셋아들은 그 타불교 믿고 죽은 아들은 그 여수골 믿언 막, 아니 그냥 저 죽은 아들이 그냥 다리 혼 착이 그냥 아팡 다쳐난 걸도 못 허고 아 일 어낭 앓도 못허고 그냥 막 아팡 병원에 간. 뤼 구환 못허켄 막 집에오란 허난 이제 어디간 들으난 이 그 켓긔되서 온 조상을 팔아비연에 경해부난 그 이제 죄책이 됐다. 행 이젠 그걸로 이젠 그 집서 이젠 막 굿해영에 이젠 저 큰 아들이 이겼거든. 음 불교로 해영 돌려라. 응 예수교도 말고 타불교도 말곡 이제 다 해영. 그 십자도 다 물우레<sup>205</sup>) 띄워불고 다 해영. 거 싹 어시 대겨원 불교 믿으난 그젠 이제 그걸

198) 맹질날도

199) 태워버렸어

200) 행구어서

201) 켓가지고

202) 옷동네 아래동네로

203) 없게끔 던져 버리니.

204) 들째아들

205) 물 위에

이제 모사야 된다 행 모산에 살았주.

## 17. 범천총(VII)

제 보 자 : 김차옥(女·71세, 한동리 상동 1114번지)

조사일자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김차옥 할머니 댁

(조사자 : 혹시 범천총 얘기도 많은지?)

범천총은 그거는 어 김녕사람들이야 알주만은 그거 놈 곤는 거난. 대강 들긴 들어서. 그건 만장굴 헌거지. 범천총이 만장굴 그 저 사굴, 그 배염죽여분거.

범천총이 그 저 연날에 서울골아 저 한양이앤 허거든 한양. 한양에 에 이제 그 범천총이 간 이제 제주 목서로 들어오란보난 (조사자 : 이제 제주도 사람이 갔다가 목서로 다시?... ) 제주 목서로 된 들어오난 이, 저 짐녕 사람들이 목서로 들어오랴 켜 허난에 목서신디완 이제 원정을 들었거든. 이제 어떤 그 무신거<sup>206)</sup> 해줍서게. 어떤 무신 거..... 이제 우리 짐녕사람은 살질 못 허크니까. 이제, 거시기 스토님이 어떻 이걸 처리를 해줍서. “어떻, 어떻게 허냐”, 허난 그때 옛날에는 이 일년에 똑 처너 하나씩을 그레 앓당 바껴야 그 짐녕 무을이 편안하고 경 안허면 그냥 막 그냥 농서도 안 되고 막 무신 것도 안 되고 막 망허지. 게 우린 이진 일년에 똑 처널 하나씩 꼭 해당 고운 옷 입지꼭 해서 가메에 담양 강. 옛날엔 이젠 오 그것 7라 뭐 엔 허냐허면은 그 가메라고 들엉. 이제 그 (조사자 : 가마행?) 응 가마행 들엉 네 사람이 들엉 땡기는 가마 있지 않허여. 그것에 담양 강으네 그레 강 놓 막, 떡 해 놓고 밥 해놓고 막 괴기해여그냥에 영 이제 제물을 바껴수다. 영 허문 그게 그 이제 배염이 쓸하게 나와가그냥에 이젠 입 ‘아’ 허면 그냥 강 탁허게 대간다 이저라. 경 행 허난 처너덜이 신 집이는 그냥 색시랜 허거든. 그냥 막 뽐으멍, 반으로 하나씩 뽐아간다. 뭐 경 안 허문 또 이제 무을로 하나 이제 뽐젠허든 막 울고 불고 오

---

206) 무슨 거

죽힐거라게. 경헌 이제 이렇게 햐수다. 경허난에 이제 그 슝뜨가 그러면 처너를 하나 내 뇌라. 내노면 이제 가메태우고 강 뵙으네,<sup>207)</sup> 나 출리는 대로 출려그녕에 거기 가서 제를 지내라.

경허난 이제 범천총이 그 슝뜨가 에, 꿈에 선몽(現夢)을 허되. 경허랜 해 뇌뵙 선몽을 허되, 이제 슝뜨님이 그렇게 가서 도제를 해영 그걸 죽여두고 집이 저 성안 살았주. 성안이엔 했지. 저 옛날엔, 성내, 성내, 성내허는 성안. 뭐 이제 시에주마는<sup>208)</sup> 이제 성안 들어강, 집의 탁 들어강 구들<sup>209)</sup>에 가도록 뒤트레 뇌리질 말라. 뇌리른 죽나. 경헌 선몽을 드렸거든. 그 슝뜨신디레. 이제 경허난 그대로 허켄 한 꿈 깨나난. 꿈이난에 아 탁 기억을 햐 뵙다가, 몰타그녕에 뒤트레 뇌리지 말아라 뇌리민 죽는다. 영허난에 이제 경힐 길로 탁 제회를 해연.

이제 출려뇌, 이제 삼헌이엔 헌 건 서이,<sup>210)</sup> 삼헌을 이제 큰 옷 입고 출령으녕에 절을 허는, 그 제를 지네는 삼헌 출령 제를 지내꼭 허연. 제 지내어 가는다, 이제 제물을 바뵙수다. 그 믈에서 경고르민 그것이 나오는 거주게. 제난 제물을 바뵙수다. 영허난 그게 그냥 영입 딱 이제 뇌령 영햐 이제 나오란. 아, 이제 그때는 그 슝뜨가 이제 범천총이, 슝뜨가 이제 그 활을 딱 자격했단<sup>211)</sup> 이제 그것이 나오라 입을 딱 뇌련: 이제 이쪽에서 이제 처닐 데끼젠 허는다, 데끼지랑 말아라. 영데끼민 이제 영만 심어라.<sup>212)</sup> 영골아뇌된 허난, 이제 아 이제 입 딱 뇌령 이제 나오란. 이제 그냥 활로 그냥 앗앙 탁 탁 이제 서너번 앗앙 팍팍 쏘아노난 그디 탁허게 입 속안에 허나 들언 죽어뇌어서게.

죽어부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이제 몰타아전<sup>213)</sup> 이제 성안에 이제 성내로 이제 들어간. 이제 그으니므르<sup>214)</sup>랜 헌디, 이제 그 이제 영바숙헌디라.<sup>215)</sup> 그으니므르. 그 내창 이신디 그디 막 들어간 거기 올라가도 이제 막 멍심햐여서. 이제 뒤트레 막 그냥, 슝뜨님 그디 사십서, 사십서. 막 뒤에선 막 뇌르는 거 뵙고 막 그냥

207) 뇌서.

208) 市이지마는.

209) 방구들, 불을 때는 간(間)

210) 세 사람.

211) 조준했다가.

212) 이렇게만 잡아라

213) 타가지고

214) 고으니마루

215) 으숙한 곳이라

귀가 쟁쟁하게 해도 절대로 뒤돌아 보지 말랜 허난 안 돌아봐에 이젠 그냥 막 그  
 7오니모르에도 올라가고 이젠 집엘 탁 들어간, 올랭<sup>216)</sup> 탁 들어가난에 이제는 나  
 가 살아졌구나 해연에 뒷트레 확 뵈려부난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붙어서게. 지네  
 올래에서. 그때 집 안에 들어갈 구들에 들어갈 동안에랑 뵈리지 말라 현 건디 올래  
 에 가니까 이젠 집의 다 들어와져시니까. 뵈려도 좋다 해연에 그냥 조름에선<sup>217)</sup> 막  
 불린 막. 스토님 막 그디 사시오 사시오 막 불러그네 귀가 쟁쟁해여도 아니 뵈리  
 단 집의 오난, 이젠 나가 집의 들어오니, 이젠 뵈여도 어명 안 헐거다. 허난 그냥  
 그 때엔 확 뒤트레 뵈리난 그냥 죽어붙어서. (조사자 : 귀신이 쫓아온 거구나에 ?)  
 응 그 사굴서 배염이 또 혼정으로 그냥 막 또라오멍 막 사시렌<sup>218)</sup> 해도 안 사고  
 경허른 뒤트레 뵈리민 죽을거니까 뵈리지 말랜 현 것이 그 뵈런 죽어붙언.

## 18. 설문대 할망

제 보 자 : 김차옥(女·71세, 한동리 상동 1114번지)

조사일자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김차옥 할머니 댁

(조사자 : 저 뱀, 뱀 같은 거 죽이는 거 말고요 무슨 여우나 다른 것은 어서 마  
 씨?)

그런거는 이 우리 제주도에는 저 한락산이, 에 봉우리가 아흔아홉개 백원 없어.  
 아흔 아홉개 백원 없으니까. 뭐 영 골 진<sup>219)</sup> 것도 아흔 아홉. 봉우리도 아흔아홉.  
 하나 이성<sup>220)</sup> 백 개만 채와시면 왕도 나곡, 범도 나곡, 곰도 나곡. 그 참, 여우같은  
 거 다 날 건디. 하나 어서부난 봉우리 하나 어서부니까 왕도, 범도, 못 나왔겐.

또 성산 일출봉도 아흔 아홉 봉우리라. 성산 일출봉도 그 설문대 할망이라고 옛  
 날에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설문대 할망. 이제 그디 친정 똥이 있어. 그디 성산

216) 올래에. 집안에 들어가기 전 들어가는 기다란 골목.

217) 가까운 곳, 바로 뒤(?)

218) 서 있으라고

219) 골짜기 진 것도

220) 있어서

일출봉드레 가당 보문 진<sup>221)</sup> 돌이 큰큰헌 돌 우희 또 쪼그만헌 돌 올려논 것이 있어. 막 파팍허게서리.<sup>222)</sup> 무사 안 가 봐서. 있지이. 우린 성산꺼난<sup>223)</sup> 거기서 설문대 할망이 거기 앉아서, 그 동산에 그 저 그 천정돌 위에 앉앙, 그디 옛날엔 그 뱀뱀이라고 뱀뱀이도 있곡 그 평, 저 둥근 평 닳은 뱀뱀이도 있고 (조사자 : 뱀뱀이 마씨?) 뱀뱀이 저 옛날엔 그 이젠 그 꽃심호이엔(?) 허명 막, 경헌 그것 골앙 뱀뱀이런 허주. 아랜 몽클락하고 입 꼬는꼬는헌 그 병 있잖아게. (조사자 : 아 그 술 담는거. 호리병 닳은 거) 응 응 그거 호리병 닳은 거. 그것?라 뱀뱀이런 허주. 뱀뱀이런 허저든. 경헌디 그것에 허고, 거기 이제 에 저 지름불 싸그넵에 그 할망이 바느질을 허면서 한락산에 혼 착 가달을<sup>224)</sup> 한락산에 그걸 걸치고 질 지어.

이제 그 할망이 저 멩지<sup>225)</sup> 아흔 아홉 봉을 들여서. 아흔 아홉 봉 (조사자 : 멩지요?) 멩지. (조사자 : 멩주?) 멩주 그것이 아흔아홉 봉을 해야 이제는 팬티여 뭐여 허지만 그때는 속곳이런 허저든. 속옷. 속옷해영. 그걸 허난 아흔 아홉 봉 들여도 이제 속곳에 이제 혼나가 어서. 백 동만 들여시면 그걸 다 채울건디. 경허곡 치매도 아흔 아홉동을 들여야 치매를 행 입어그넵 허난 치매에서 저 이제 이 흙을 담안에 저 한락산에서 이래 오멍 그 할망이 툽툽툽툽 흘친게 저 오름이라 허는 거라.

경 행 허곡 그 저 그 성산일출봉도 그건 본디 서나신사<sup>226)</sup> 어뎡해신지 그건 말은 안 곧고 이제 그 할망 치매로 흙을 담아그넵에 저 한락산으로 이래 영 툽툽 싸서 오다가네 흘친 게 이제 오름이 됐다.

경허니까 한락산 봉우리도 어 백개만 채와시민 연날에 백개만 그것이 되여시면은 범이나 왕이나 꿈이나 뭐, 뭐시나 다 나올건디 백개를 못 채우고 그디 아흔 아홉 골이 서. 저디 한락산에 아흔아홉 골도 있곡. 이제 봉우리도 아흔아홉 개 있고 또 성산 일출봉도 봉우리가 아흔 아홉개라. 겨난 그런 꿈같은거, 뱀같은 거, 여의같은 거 그건 일절 없주게.

221) 긴

222) 곧추 서 있는 모양

223) 성산 것이니. 성산사람이라서

224) 다리틀.

225) 멩주.

226) 본래 있어났는지.

## 19. 祭祀 이야기

제 보 자 : 김차옥(女·71세, 한동리 상동 1114번지)

조사일자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김차옥 할머니 댁

옛날에 저 남군<sup>227)</sup> 사람이 이젠 걸어 아정 이젠 성안을 가는다. 古事<sup>228)</sup> 그 김녕 그디 카바(커브) 돌아가는디 산 우의 있지 않혀? 그 산 있는디. 남군 사람인디 그래 오름드래 강 막 그던 오난 막 왁왁해볼언.<sup>229)</sup> 가도오도 못 허난 그 산에 간 이젠 들어간 산 안에 들어간. 이젠 뭐, 줌을 잤지. (조사자 : 산에 마씨?) 응 산에 간 줌을 영 행 자는다.

아 이제 꿈에, 이제 호슬 누난에 이젠 하르방이 오란에

“할망, 제사먹으래 안 가젠”

영허난,

“에구, 저, 하르방만 잡썬.”

하르방 제산디 할망을 돌양가젠.<sup>230)</sup>

“하르방만 잡썬. 저, 난 집의 손님들어부난 못 가쿠다. 강 오다그네 떡이나 받아 오랑 날 줘썬.”

영허는 말을 들어져. 아 경행 그냥 탁 잤다 하는거라. 자는다 이제 호꿈시난에 그 하르방이 오란에

“저 거시기 잡서?”

영허난,

“잠수다. 무사 어떻 떡 받아 왔거든 이래 호꿈 줘썬.”

“떡이랑 마랑 나 배 뒤집어져네. 저 거시기, 상에 막 가보난 두 가시가 싸웁고

---

227) 남제주군

228) 금방

229) 방향을 못 잡고 오락가락하는 모습

230) 데려가젠

칼로 뭐 무신 괴기사 (청취불명) 딱딱딱딱 잡고 막 싸우멍 허곡 상에 올린건 보난 에, 고사리에 막 그 머리터럭이 가면 귀신이엔, 배염으로 보염겐. 머리터럭이 들어 가면 막 구렁이엔. 그 옛날엔 영 봉덕, 이 마루에 봉덕 해그넵에 영 돌 네 귀 그자 그넵에 영 환 그디서 나무 때영, 저 산뒤 쫓허영 꼬아놓 그던 늙곡 배어났주게. 애 긴 조 끝에 이시난. 애기 구덕 시난에 그냥 그 봉덕드레 탁 어퍼똥 오라비여서. 이제 할망고라 경 그란. 그디 누웁 자는 남재는 걸 알아들었거든. 알아들언.

이제 뒷날 아침 깨나난 그냥 이제 저 이제 옛날 뒷괴<sup>231)</sup>엔 허지. 이 뒷괴는 이제 동북고라 뒷괴엔 허지. 어 북촌은 저 거시기. 옛날 저 동북, 저 뒷괴 거기 이제 간에 이제 쫓아 가서 그 사름이 일어난 간, 그렇게 윈 허였는가 말았는가 허연 이젠 막 영 돌아댕기당 보난 혼집이 그냥 막 울멍 그냥 난릴 뉘싸가난<sup>232)</sup> 이젠 넘어 가던 사람 들어오리수텐 허난. 거기서 넘어가던 사람이고 뉘고 우리 집원 막 그냥 애기 봉덕에 쏟아정 죽어부난 정신엇이난에 그냥 가렌 막 욱을 해붙어서. (조사자 : 봉덕에 쏟아전 죽어불언?) 봉덕에 쏟아전 죽었젠 허니까 요 집이 맞구나. 행으네 이젠 들어간. 경해도 욱헐. 막 욱허고 가렌해도 들어간.

이젠 들어가서. “언치냐<sup>233)</sup> 제사는 누게 제사우파?” 아, 거 들영 뉘 허젠 험시넨. “아니, 들올만 허난 나가 들업수다.” 허니까 “우리 아바님 제사우다.” 영 헐 굴으난 에 이젠 그 시아방 제사엔 허는 거라. 경 허난 “아 맞수다.” “경헌디 무사 제삿날 경 싸와 누수까.” “어떻 아니 무신 거 흥끔한 것에 싸와수다.” 경허난 산은 아무디, 이제 어멍산은 아무디 묻지 안 해수까? 경 헌 디 그디 이제 나가 저 남군에서 오 단 왯왯 어둑음 허고 내가 그 산 안에 강 들영 이시난에 이제 하르방이 이제 그 하르방 묻은지는 모른디, 하르방이 오란에 할망고라 제사먹으레 가젠<sup>234)</sup> 허난 난 손님들어부난 못 가젠 행에 이제 흥끔 선<sup>235)</sup> 보난, 이제 막 집의 강 보난 싸웁고, 막 저 상엔 구렁이 놓고 떡도 칼로 헐 무시것단디<sup>236)</sup> 탁탁탁탁 쫓아. 제삿날엔 절 대로 칼 쫓는 법을 안 허는 거라 말야. 경헐 칼로 딱딱 해언 허난에 이제 저 거시

231) 동북마을의 옛명칭

232) 난리를 피워가니

233) 어제 저녁

234) 가자고

235) 있어.

236) 무엇인지

기 부애 뉘싸전에<sup>237)</sup> 애기 싣고한테<sup>238)</sup> 봉덕드레 갓당 탁 지더 됴 나오라서 저 떡 반앙 오고렌. 떡이랑마랑 안 받아 오고렌 영 허멍. 해영 나가 깨어나난 꿈이고 저 붉가불고 허니까 나가 영 찾앙 오랴다고 그제 나 곱은 말이 틀려시믄 틀렸젠 허고 맞았다민 맞았젠 허라. 이제 그 시아방이고 제사를 헐 때에 비록 빈 찬물이라도 떠 노민 정성들인 거난 그 떡 값 안해도 좋다고 그렇게 머리터럭 행 밥 올리고, 이제 애기 그 봉덕 행여 내불고들 두 가시가 싸우고, 칼로 뭇 딱딱딱 쪼고 경허민 절 대로 먹어가지 않는다.

경 행 허난 그제사 그 사람도 깨달아네 그 막 경했젠. 잘못해수덴. 이제 산에 올라가고 막 빌었다 하는 거라. 떡 밥 해영 제 지내고

## 20. 부훈장(IV)

제 보 자 : 고상옥(남·70세, 상동 990-2)

조사일시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고상옥 할아버지 댁

원래 이 학자가 있어서 말이지, 그 양반이 또한 지적으로다가 훈학을 하면서 소위 도깨비를 이제 지로인<sup>239)</sup>으로, 이제 이 한 밤에라도 데리고 댕겼다는 그런 분이 있거든 바로 부훈장이라고

그 양반이 지금으로 보면은 한 백년전 되죠 그 때는 이 훈학을 하기 위해서 손당<sup>240)</sup>으로부터 덕천 그 때 이 산간부락이 주(主)거든 이러면은 그 때 또 군데 군데 훈장을 하나 이제 모실라면 상당히 어려웠지. 또 그 때는 금전관계가 아니라, 곡식으로 환수할 때여. 이제 이 수학생 하나가 이러면은, 뭇 보리쌀 한 말이면 보리쌀 한 말, 쌀 한 말이면 쌀 한 말 이런 정도로 이제 그 수강료를 물었던 말이지.

이제 그 양반이 이제 그 훈학을 하면서 허는데, 이 한 밤이라도 다녀도 말이지

237) 부아가 뒤집어져서. 치밀어서(화가 나서)

238) 있고한테

239) 길안내인

240) 송당(마을이름)

지로인이 없고 어떤 밤이 와도 그러니까, 한동리에서 송당까지, 덕천리 송당까지 해서 그 제자 훈학허래 이제 갔다 오는 길을 허는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도 여전히 오신다 이러거든. 그럼 이 분이 어떤 기법을 썼느냐, 현대 향교훈장도 지냈고 그 분이 시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그 양반이 좀, 뭔가 그 지능적인 문제랄까, 이 신 홍철학이 좀 있었던거지, 글이 깊으니까 이렇게 허는데 그 근본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 양반이 어떻허는지 밤에 갈 때에도 그 분이 오는 불에는 앞이 지로인이 있다는 것이 이제 등불이 환허거든. 결과적으로 보니까 도깨비가 그 길을 인도했다는 거야.

아 또 이런 전설이 있고 이 분이 저 소위 나막신덜 알아? (조사자 : 예!) 나무로 이제 맨들어 낸 걸 나막신. 그 나막신을 싸움 불인다는 분이거든. 그럼 뭐냐하면은 주문도 안허고 그자 글로 써서 부호 하나 탁 붙여서 신을 아사<sup>241)</sup> 붙이민 이제 나막신이 그냥 서로 싸움을 한다 이거여. 마 이러헌 마 기인일까 이런 철인일까 상당히 이런 분이 계셨고.

## 21. 里名 유래

제 보 자 : 고상옥(남·70세, 상동 990-2)

조사일시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고상옥 할아버지 댁

또 이 부락이 원래 설촌(設村)으로 보민 한 백년전이 되겠지만은 저 중산간 웃데 가서 이게 원래가 여기 한동이 아니고 괴이리요 괴이리였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 리명이 한 구십년전이 한동리라고 이제 바와졌는데.

그 원인이 뭐냐하면은 그 때는 괴불이 자주 나서 말이예요 화재가 팡팡 일어나거든. 불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상하다. 이래서 그러면 괴를 어떻 허든 벤화시킬 것인가. 베[벼]화 변에 귀신 귀는, 괴특 괴칙허고, 저 이쥌 해서 괴이리요 이러해서 리명은 되었는데, 이게 리명이 나쁘다. 이러헌 변화가 자주 생기니까 이상하다. 그

241) 가져서.

러면은 이게 리명을 고쳐야지. 헨디 자꾸 불로 피해를 보니까 화재로 안되겠다.

그러면 여기가 한라산의 바로 정동(正東)이요 이 부락이. (조사자 : 이 부락에서 한라산을 보면?) 어, 한라산의 바로 정동. 그러면 한수(漢水) '한'지 물 '한'지거든. 그래서 바로 '동'을 가져서 한동리라고 그렇게 해서 그 해 연도로 보면은 갑오년 이면은 지금 한 구십 몇 년 될 거여 이 지명이 개척된 지가. 마 대략 그런 거고

## 22. 부대각(I)

제 보 자 : 고상옥(남·70세, 상동 990-2)

조사일시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고상옥 할아버지 대

또 부대각이라고 그 당시에에도 이제 사람이 춤 기인으로 태어났제이. 뭐 이 저드랭이에 날개가 나고 뭐 장숫감 아니여?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가에 알려진 이런 사람은 제거해 붙어야 된다 허는데 소위 저 요기 평나무덜 있잖여, 풍낭 저런거. 이런 놈은 살려서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소위 쇠약베<sup>242</sup>허면 알까? 모르지? 옛날은 소 질메에 짐 실을 때는 쇠약베 저 열두발이요 5섯발 썩 해서 평나무에 꿩꿩 부대각을 묶었거던.

묶음 딱 놔서 이 놈은 이래서 죽여야 된다. 헨디 워낙 장사라서 이 양반이 힘을 '북' 쓰니 그 놈의 베가 끊어지고 나무가 매어져서, 딱 뛰어당 바다 위로 날렸다<sup>243</sup>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자취가 없어졌는디 결과적으로 이런 장수가 낫다는 거여. 평대리에 가든 또 그런 전설을 잘 알고 있을거여. 뭐 이 고장에 벨 특별한 건 없어요 (조사자 : 힘 센 며느리는 부대각의...) 음, 부대각 누님이고, 또 오라방을 그렇게 해서 키워줬다는거라 오래비를. 그러면 소위 그 때 말로 허면은 예, 부모덜이 그 잉태 중에다가 그 대각 누이를 잉태헌 때는 소를 뭐 여덟 마리나 잡아 뻘었다고 허고, 이러면 뭐 신빙성없는 말 아니요? 그러디 또 뭐 부대각 혈때는 소 열 두 마리를 잡아먹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그렇게 길러졌다 이런 말인디.

242) 베의 일종. 소를 묶는 베(?)

243) 나무가 뽑히니 바닷가로 뛰어가 던졌다는 말.

### 23. 범천총(VIII)

제 보 자 : 고상옥(남·70세, 상동 990-2)

조사일시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고상옥 할아버지 덕

그러니까 여기는 설촌 이후에 특별한 인재나 뭐나, 헌디, 여기 이제 범천총이라는 그 광산 김침이. 뭐 그러면은 좀 알것이어 이. 최충이 제주 낙향 3대 손인디, 그 양반이 범천총, 최충이랜 해서. 거 당 혼(堂號)디 워낙 눈살이 무섭고 위인이랐어요

겐디 바로 요 위에 가든 그 살아난 자취 바로 그 양반이 거처허던 자리가 그 있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눈이 무서운지 도부상, 도부상 알지요 도부상계. 옛날에는 이제 보따리로, 시골에서 걸어댕기는 도부상이 있거든. 그계 도비상계<sup>244)</sup> 도비상계 했거든 우리 방언으로

한 낮에 도부짐을 지고 이 골목 저 골목 땡기다가 그 범천총의 그 이제 집에 갔 거덩 가서 물건 사시오, 사시오 이러니까 워낙 눈이 무서우니까. 이 양반이 눈을 안 뜬다는 양반이예요 이리 허더니 자꾸 시끄럽게 해가니 머리를 이렇게 축 들고 눈을 '폐쪽' 뜨니 그만 그 도부짐 진 놈이 그냥 혼이 났어요 너 어느 안전에서 이런 데 와서 막 떠드냐고 이러니까 그냥 혼이 나서. 도부짐을 지고 가서 요 대변도 독<sup>245)</sup> 요 길이 있어요

올로 나가는 길로 그냥 막 도보짐을 지엄 가다가 소위 이거 추접헌 말 갔지요 사람이 겁허니까 그냥 겁뽕을 갈길라고 그랬거든 그래 길가에 이르다가 그 때는 뭐 길에 이려는디 췌기풀이라고 알아요? 사람이, 이제 대면 그냥 확확확 막 독으로 가냥 찢러 벌 췌인겨 무냥으로 아려. 가다 이제 뛰어가다가 이러니까 그만 그 뒤를<sup>246)</sup> 그냥 그렇게 거기에 허니까 그냥 거기에 도보짐 부리고 이제 뒤를 보고 향문을 땡을까허니까 뭐 있어? 풀이라도 해야지. 이제 싹 이제 그 놈을 쥐고 딱 땡

244) 도비상귀라 함.

245) 큰 길가(?)

246) 향문을.

왔더니 그만 와삭와삭 그냥 그 놈으로 씌이야 부니까 사람도 무섭더니 이 나들놈의 풀조차 이렇게 독헌더라고 마 이런 고담이 있어요 허허허...

## 24. 둔지봉 풍수 이야기

제 보 자 : 고상옥(남·70세, 상동 990-2)

조사일시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고상옥 할아버지 댁

(조사자 : 풍수 이야기 같은 거 예를 든다면...)

아! 풍수. 음 그러면 한동 저 둔지봉 하나 말해드리까. 한라의 그 용을 타고 나와서 떨어진 곳이 둔지봉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 풍수지리에서 말을 하는데 나는 뭐 풍수도 아는데 들은 말 뱃기 모르는 사람 아니여. 겐데 이야기가 마 전도적으로 와서 볼 때에 이 둔지, 여기 왕 보면은 명당은 최고라고 주변이 말을 허거든. 그러면 거기에 가민 유명한 자리가 있어요

둔지봉하면 이제 '옥등과벽(玉燈掛壁)'이라고 이제 둔지봉 아래로 내려가면은 옥등이 이제 벽에 걸렸다는 그런 혈이 있고, 음 또 '장하귀인(帳下貴人)'이라는 그런 혈이 있고, 장하귀인이라는 건 이제 장막을 친 날에 귀인이 왔다는 거. 그리고 '무공단자' (?)라고 해서 이제 또 둔지 앞에 그렇게 있고 (조사자 : 그건 무슨 말이고 마 씘?) 무공, 모든 공에 이제 단자라민 거기에서 공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허면은 괴이리상 이런데에 '용반고주대야(龍槃高座大野)'라고 이게 이 유명한 그 묘가 있는데 '거기를 다 내가 찾아 썼노라.' 해도 아직도 그 결과가 안 나타나요 (조사자 : 용반고주대야 마씘?) '용반' 용이 상을 받았다. 용 용자, 반 반자, 대야 큰 바다를(조사자 : 고주대야) 어 고주, 높이 앉아 이제, 용반고좌대야. (조사자 : 야는?) 드르 야자거든, 이렇게 해서 괴이리상, 그계 뭐이나 허면 괴이리상 용반고좌대야라. 괴이리랜 허는 건, 이게 벌써 아까 다 전전에 말허는 괴이리였거든 괴이리상에 있다 이렇게 허는디. 요 부근에 있다 저 부근에 있다 허는디, 아마 이 풍수지리덜이 오면은 둔지를 상당히, 그러니까 나는 평생 그런 말을 했어. 죽음의 유혹은 이 한동 둔지라고, 아마 제주도 전체 지역에서 묘 안가져 본 사람이 없어요

## 25. 헛 배

제 보 자 : 고상옥(남·70세, 상동 990-2)

조사일시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고상옥 할아버지 댁

바다에서 이 저 헛배 있잖아 이? 그거 제일 이 배타는 사람덜한테 이제 들으면 제일 무섭덴 허는다. 그 놈의 배는 어떻게 됐느냐 허면은 딱 바다에서 나타나면은 똑 날 곳은 때 어떤 사고 날 때는 그 놈의 배가 나타나... 이 비가 오고 어땡 안개가 끼고 영 현 때, 그러면은 현등 켜뜨이(?), 배에 불키는 거 있잖아 거 신호 전등 그거, 그 전등을 이렇게 나오민 딱 그 놈의 배는 반대로 그 불이 켜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배타는 사람덜이 그걸 무서워 피해가민 어디 암반에, 암초에나 걸려부는다, 직행으로 그 놈의 배를 대민 그 놈의 배는 그냥 거기서 자멸해 분다 그런거라. 배타는 사람이 보민 바로 자신의 배보다 상대의 배가 곱이나 험다 이거라. (조사자 : 막 커가지고...) 음, 그 여전히 그냥 운전을 이런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덜은 아 요건 이제 헛배로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쏘어버리면 그 놈이 소멸되고 그걸 피하다 보민 그 어디 암초나 어디 있는 디 꼭 그런게 나타난다 이거라.

## 26. 음식맛 새말 알아맞추는 사람

제 보 자 : 고상옥(남·70세, 상동 990-2)

조사일시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고상옥 할아버지 댁

모든 게 유명해져, “새말도 알고 음식맛도 알고 잘 아는 사람이 있다.” 영 현 애기 사가에 퍼져 있으니까. 경해서, 그 사람을 고을 사또가 잡아들이라 이러 했거든,

이제 잡아 들면, 이래 오니까. 이제 새 말도 알고 음식맛도 잘 안다 이러니까.

이제 우선 알아보라고 해서 술을 먼저 갖다 주었어. 술을 딱 갖다주니 싹 마시더니, 이 술은 사람의 피와 고기를 먹은 술이다 이겨여. (조사자 : 아 쌀로 만든 술이 아니라?) 아 쌀로 만든 술이다, 비진(빛은) 술이다, 이러했다. 그럼 술주인한테 이게 어디서 난 술이냐 허니, 그게 묘가 아니고 천리터<sup>247)</sup> 있잖여 게? 그게 발이 되었거든. 거기서 지은 곡식이라. 아 거기서 이리이러 해서 아 게민 그거다. 그러면 거기서 신빙은 안되거든. 에따, 이제 피를 내어내.

마치 이 제비들이 새끼를 키울 때거든. 그러면 저 제비가 저 새끼를 감춰불민 와서 뭐이라고 지절거리니 저 말을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이거라. 네가 바른 말 안 하면 그 사람도 너를 사형, 그 옛날에 사형을 헌다는 게 환도(丸刀) 맛 보게 되었거든. 영 허니까, 그래 그럼 그럼시다. 그 제비 이제 둥어리(둥지)엿 꺼 전부 내령 감춰버렸거든.<sup>248)</sup> 이러니까, 먹이 물영 영 강 왕 보니 자기 새끼가 없거든 (조사자 : 어미 제비가?) 아 에미가 와서 보니까 그냥 막 그 이제 자웅이 날아 들면서 막 지중거리거든. 그러니까 그 놈보고 그 사람보고 이젠 저 제비가 뭐이라고 하고 있냐? 피불용 육불식(皮不用 肉不食). 피불용, 가죽도 못 쓴다. 예 피불용. 육불식, 먹도 못 헌다. 고기 먹도 못 헌다. 나 새끼 다오, 그래서 막 지지배배 허니까 딱 허니까.

사또가 과연! (조사자 : 새소리를 알아 들었다?) 음, 새소리에 음식맛을 다 안다 허니까 이제 그 사람을 불러 들인거거든. 이렇게 해서 과연 아, 너에게는 이 저 특별히 상을 내린다해서 내보내졌다는 이런 전설도 있어요

## 27. 지네장수

제 보 자 : 고상옥(남·70세, 상동 990-2)

조사일시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고상옥 할아버지 댁

247) 묘를 옮긴 자리. 遷葬.

248) 감추어버렸거든

그게 뭐냐하면 에 그 밤에 자꾸 이제 누워 있으면은 남자가 나와서 저 이제 그 어머니하고 이제 저 여자하고 가서 관계를 하고 이제 자꾸 가거든. 해서 밤되면 가 분다 이거여. 에 그 놈에게 안된다 해서 이제 실타실을 풀어서 이제 꼭 묶었던 말 이여. 묶어서 이제 이제 카고(가고) 오거니 그 실자리를 가고 보아 가니 마루 알로 들어 갔어. 이런 마루 있지. 여기, 마루 밑으로 들어가서 글로 가 보니까. 첩 백년 이 묵었는지 이백년인지 그런 지네거든.

과연 이러해서 이런가 부다. 경 허연 잇었는데, 그 태기를 가져서 그 애를 낳았는데 무용이 이제 아주 출중해서 훌륭하고, 이렇게 허는데 그 때 이제 그 신라(新羅)하고 어디 싸움이 될 건가? (조사자 : 백제하고 싸움니까?) 백제(百濟), 충청도가 백제아니라게? 재니까 이제 신라하고 싸울 때거든. 그러니까 독 아뢰 들면 지내가 맥을 못 추지. 그러니까 거기 그 계림(鷄林), 경주(慶州) 있잖아, 전투에 그 전투에 는 가지 말라고 어머니가 유언을 헨거라. (조사자 : 누구한테?) 그 아들한테, 장군이 되었는데 그 난 그렇게 그 저 몽중(夢中)에 자꾸 밤에 와서 이렇게 행 간 게 지네 거든. 그래서 성을 진씨라고 지었다. 이제 묶을 진자로 지은 거지만 지네 진자치게. 그렇게 해서 그런 전설이 있는데 내가 저걸 어디서 봤냐하면 이조오백년 그 야사 건디 이제 그 책도 나가 있는디 빌려줬는디 저 책불환<sup>249)</sup>이라.

## 28. 이성계

제 보 자 : 고상옥(남·70세, 상동 990-2)

조사일시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고상옥 할아버지 댁

왕으로 돌변하여 이제 사냥을 맹기당 이리는데 호랑이한테 들면은 죽은 목숨이 되거든. 옷을 영 벗어 걸면 그 시절엔 옷을 벗어 던지면 그거 물어가는 사람이 호 식이 된다. 이 그게 범의 음식이 되분다 이러거든. 이러니까 이 사람도 쥐도 안 되고 영허는다. 게 이성계 그 옷을 벗어 딱 던지니까 턱 물고 이제 뭐랜 툭툭 허더니 이렇게 해서 고개에 태워 저 산고비를 넘어가서. 경 행 왕위에 올랐젠 허는 거주

....

249) 冊不還

## 29. 부대각(Ⅱ)

제 보 자 : 한복녀(여·67세, 산8번지)

조사일시 : 1994년 7월 31일

조사장소 : 한동리 계룡동 앞바다

그 집이 너무 옛날에 강군허게<sup>250)</sup>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몹씨 가난한 바다에 강 고기를 낚아오면은 그 날 저녁밥을 먹고 고기 못 낚아 오민 그 집의 식솔이 다 굶을 정도로 막 없어서... 고길 낚아 오면서 그날 그날 생활하다가 애기가 나민 죽고 나민 죽고 해연. 그리허니까 어떻게 들어가다가 애기가 나민 죽곡, 죽곡허니까 그 하르바지는 고기 낚으레 가부니까.

이제 그 집의 어무니가 이제는 스님이라고 해도 그 때는 그 당시는 중이라고 하지. 지나가다가 중이 넘어완, 들어완 보니까 너무 없이 살았스니까 애기가 나민 죽고 나민 죽고 허는 이유가 왜인고? 이래허니 이젠 허는 말씀이 그 중이 말허기를 이집이 보니까, 이제 된남(?)을 가져다가, 뒤에 소용헌 일이 이서부니까 선왕동티로 애기가 죽었다 허니까. 에 건디 변소에, 화장실에 옛날은 나무 영 쪼가리 두개 툇허게 걸치곡 사람 아장 화장실 보주게 그래허는디 그디 뱀남(?)을 해단 앓단 왔뎌. 허난에 이젠, 그 중이 가부니까 뱀남을 앓아당 딱 놓고, 이 화장실을 뱀시난 이걸 아시다가, 바다에 이제 물 치대기는 디 간 곱게 시쳐지게<sup>251)</sup> 노면은 애기가 앞으로 나는 건 장사가 되곡 이제 잘 살게 될거엔 허난.

그 하르바진 와서난 그 말을 허니깐, 이젠 하르바지허고 아까 할마니허고 이제 그걸 파내 완 모셔다가 저렇게 남은 봉우지에 간, 탁 허게 영 놔 놓고, 제서(제사)는 넘어나민 거기가 지내곡, 또 집의 뭇일이 셔도 그디 가 지내곡 해가니까, 애기가 포털(胞胎) 앓안, 나니까 사흘이, 삼일이 되니까 애기난 보난 어머니가 뱀길<sup>252)</sup> 갔단 나완 보니까 애기가 방바닥에 없어. 옷 안 입진<sup>253)</sup> 애길 놔두니까 없어. 애길

250) 艱困하게

251) 씻어지게.

252) 밖에틀.

253) 입힌.

누구 훔쳐간 걸로 알안. 이젠 좃단 보난 애기가 방안으로, 애기가 웃는 소리가 ‘헉 헉’ 웃는 소리가 나가지고 문 율앙 방바닥을 봐도 애기가 없어. 하 이상허다 이상허다 해가지고 이젠 그디 간 우의 올라간 이젠 영 좃아보니까 애기가 그 우의 가서 어떤 사름이 앓단 애기를 놔신가.

영 헉 이젠 보니까 애기가 이제 안아단 이젠 애기가 젖을 멕이고 안안 보니까 그리헉 또 좃갱이<sup>254)</sup> 아래 놀개 돈아도 영 허민 날개가 안터래 들어가 불고 양쪽에 또 영 허민, 안에 영 날아오민 그 애기가 영 날젠 허면은 그 날개가 나오라 가지고 영 화롱허게 날앙 나가고, 경 허니까 이젠 삼일<sup>255)</sup>장은 일뿔<sup>256)</sup>장은 몰랐다가 일뿔 넘은 후로는 아빠한테 말했주게. 애기가 이제 좃갱이 아래 놀개 달고 방안에서 막 놀아 땡긴다고 허난. 이젠 알아나면은 그 때는 이제는 순경이여 뭐여해도 그 때는 스령, 스령 해났주게. 스령이 왕 잡혀가면은 우리는 애기를 못 본덴 허난, 게민 아무한테도 말허지 안허기로 헉.

세살이 딱 되니까 천자 혼권 다 잃어. 누게 아무 말해줘도 천자 혼권 다 해멍 국어법이고 뭐 세상 돌아가는 거고 다 아니까. 이제는 세살 넘어 사니까 이제 하나 하나 동네 사름이 알아가니까 이제 심으래 온다고 나건 걱정따써.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나 걱정 안해도 오라가민 나대로 방침이 이수다. 뭇 방침이냐 허면은 나 허는 이제 방침이 보면은 알거우다.

심으래 와가든 앞뵈기 가지뵈에 들은 몽생이<sup>255)</sup> 물카죽 써 가지고 이 풀을 뜯어 먹고, 또 방안터래 들어 갈 때에 심을래 오면은 천장 우터래 파리가 똥파리가 돼가지고 탁 천장 우에가 붙으면은 이제는 올라가지 못하고 또 이제 영 현 아왔다가 어디서 심으래 왔다고 해거네게 영 딱 배출<sup>256)</sup> 이제 사지 혼 몇시. 스령들이 나와가지고 막 여기 사고, 여기 사고 막 그 집 안내 막 이제 사면은 여기는 이번은(이번에는) 심었다 이젠 허는 소리에 허민 그제는 다시 똥파리가 되어 천장 우의가 붙었다가 또 이제 풀 앞밭디가 풀을 뜯어먹었다가, 또 백깁디 나와지민은 나무 우의간 소래기<sup>257)</sup> 털 탁 입어 가지고 씨 당 앓았다가 절로 배가 일로 지나가나 절로 지나가나 허면은 그 배때꼭지 여기서 나무 위서 그꺼지 날아강 날아강 이제 가는 배에 타

254) 거드랑이.

255) 망아지

256) 부대각을 잡으려고 배치를

257) 살딱이

가지고 육지가고 또 육지서 또 오는 배에 타가지고 제주 오곡 그러 허단에.

그 백져나던 시대에 그 제국시대 말고 그 전에 이제 군승이엔 헌건 군인이지 군수가 이제 전부다 이제 제주도 이제 몰사허래 온다고 이제 군함 몇척 이제 군인 몇척 오니까 이제 그 때 나문 주의허라 이제 해염시니까. 그 할아버지 영을 보니까 나왓시난 이제 우리 제주도 백성을 살리젠 허민 어떻게 살리느냐 해연 이제 제주도 출신들을 다 모여 가지고 이제 허는 말이 그 부대각 하르방이 허는 말이 저제 불치<sup>258)</sup> 혼집이 대도<sup>259)</sup> 혼섬 썩만 모여 오라고 불치 이제 대고 혼섬썩만 모여 오면은 바닷가로 영 뱅뱅 놓고 이제 영 해연 돌아거네 제주도섬을 다 앓당 오를마다 노면은<sup>260)</sup> 이제 군함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 비름 몽생이<sup>261)</sup> 타 가지고 이제 헌다.

게민 전부 이제 그 불치를 이젠 대도(大斗) 혼섬썩도 가져오고 맥에 이제는 뭐 안해도 그 때는 맥이 이서났주게 큰 맥을 담으멍 다 이런 바닷가에 앓다 봐그네. 하니까 아무 시에 아무 날 들어 온다 이렇게 허니까. 이젠 그 때 들어오곡 헌댄 허난 말을 이젠, 비름 몽생이를 그 하르바지 강알에 영 태와가지고 이제 불치 헨 뿌려노난 제주도섬을 하루에 다 돌았다는 거라. 하루바지는 입으로 푸푸 재를 불면서 물을 타가지고 물 또꼬냥에는 썩썩레 비차락 이젠 달아매고 경 헨 가면서 일루 저래 영 헨 제주도를 혼 몇 바퀴 돌아가니까 군함은 완 보니 하늘이 크게 불치로 그 냥 해부니까.<sup>262)</sup> 이젠 못 들어 완. 그 때는 우리 살았다 헨 이젠 백성들을 다 모여 오라. 허난 전부 다 모여와 가지고

그 맨 그 당시에 경 헨 멘헨<sup>263)</sup> 넘어가고, 그루 후제 이젠 해너벌이엔 헌건 이 해너덜 시꺼<sup>264)</sup> 가지고, 육지 가거녕에<sup>265)</sup> 스선에 시꺼 가지고 이젠 그 해너들 벌이 해 오민, 그 하르바지네 배가 최고 잘 됐어. 최고 강 벌어 오면은 뭇 헌다 허면은 그 하르바지가 막 밭도 사고 뭐 허곡 하여도 그것이 육심을 안 나가지고 평대

258) 불을 때고 난 다음의 재

259) 大斗.

260) 놓으면.

261) 비루먹은 말(?)

262) 하늘이 재로 가득 차 버리니의 뜻.

263) 면해서.

264) 실어

265) 가서.

중동네 이제 전부 몰래밭<sup>266</sup>)이라 집은 안 지스곡 숨부기<sup>267</sup>)하고 몰래만 이슨 발인디, 그 몰래를 이젠 그 하르바지가 절(겨울)은 들면은 우리가 이거 헐 필요가 없다. 이 몰래 전부 갈아가지고 농사지면은 우리가 헐꺼 아니젠 헐. 그거 이젠 개 가죽 이젠 열 두장, 개 가죽이 열 두개 들면은 이제 옷 하나 만드는 거라. 옛날은 거민 눈 온 때고 뭐 현 때고 이제 강 그 가죽 해가지고, 쇠스렁 앓안 강 손으루도 굵은 곡 발로도 굵은곡 허면서 그 등산을 전부 해 가지곡, 이제 몇 천만평을 그 평대 막을 중동네엔 서민 이제도 알아 그 마을을 이젠 벌레동산을 전부 해싸가지고 이젠 몬 부대각 밭이 되어 부렀어. 그 동네가 경 헐 밭을 만들어 놓고, 또 경 허다가 이제 봄은 나면은 좁수 벌이를 육지로 나가고

또 이제 그래 허다가 팔십이 이제 딱 그 할아버지가 전명(全命)이노랜, 당신 양으로 헌디, 팔십이 되노난 이젠 가젠 해신디 그 저승서도 심으래 와도 항상 못 심영강 그 하르바지가. 잡아가젠 와도 항상 못 심영 가니까, 이제는 나 세상을, 이젠 올허가<sup>268</sup>) 천명이니까 올허 흔해만 가와서 내넨은 이제 나 갈길 가야 허겠다 해서 배에 쓸 시끄고 물 시끄고 이제 그 소선 삼대선, 소선에 이젠 중동 우미소 안통어 염에<sup>269</sup>) 배를, 그 하르바지가 배를 노니까. 그디 간 딱 나오니까 오늘거추룩 은하 딱 끼고 그랑비 살살 오다가 이제 거기서 딱 일퀘 두 개민 열 나홀 아니? 십사일을 가당보면 그 안에 들어와지고, 가당 보면 육지 안 강 그 안에 들어가지곡 해연, 십사일을 이제 그 안에서만 도놀닥 도놀닥 허단에 이젠 허난. 나가 이제 세상을 떠비어야 이 해너덜 강 벌영 오지 경 안허민 나 하나로 이 해너덜을 고생시킨다고

이젠 하르바지가 방석을 깔안 앉았다가 배에 영 이렇게 보선 신고 영헐 이렇게 앉았다가 확 이젠 배안에, 그 바닷가에서 ‘뽕’허게 그 쇠방석을 던지니깐 혼 댓 발까지 떠 가. 쇠방석이 떠가니까 이 쇠방석이 집어던져서 나 앞더레 돌아오면은 나가 거기 앉아갖고 나 이 물 아래 골라앉을거고<sup>270</sup>) 그냥 던진디 골라 앉으면은 나가 아니 가질꺼니까, 이제 너네가 나 골라 앉으면 내부러두고 해너벌이 가랜. 경헐 말은 해서 하르바지가. 확 해뵈에 이젠 가신디 이렇게 편안히 앉았다가 쇠방석을

266) 모래밭

267) 순비기 나무(해변 모래에 주로 자람)

268) 올해가

269) 부근에.

270) 가라앉을 거고

탁 던지니까 이제 동글 동글 뜨어. 쫌씩 쫌씩 쫌씩 그 배 어염에 끼지 와. 오니까  
이젠 하르바지가 통대 하나 심고 맨 보선 창에 그 우의 간 툅 허게 맞으니까, 그  
쇠방석이 뱅뱅뱅뱅 돌면서 그 알리레 소르르허게 골라 맞아 부러서.

하르바지가 골라앗안. 기냥 골라 맞으니까 뱃보름이 나가지고 썩썩해가지고 그  
냥 그날 어둡기 전에 울산을 들어가서. 울산 우친네 안깡<sup>271)</sup>이라고 그 하르바지네  
살던 이젠 그 고향이... 육지는 가민 울산 안깡 그 우침이 살고, 제준 들어오민 중  
동네 살곡 경 해나신디, 삼년 딱 되니까 소상, 대상, 색일<sup>272)</sup> 다 지내곡 해난 다음  
은 신체 를 건져오겠다. 하르바지 굳는 말 들어가지고 건져오겠다. 해 가지곡 조슨  
(자손)덜이 신체건지래 가젠 허니까, 그 디 항상 그 하르바지 빠진디는 물이 안 몰  
르는데라,<sup>273)</sup> 일생을 안 몰라, 원 들도 싸도 안허는디. 다 떡밥 다 해놓고 출려가지  
고 이젠 그디 강 이젠 신체건지래 가젠 허니까, 그 시간 이제 아무때 되민 시간이  
다허난 그디 물이 싹 뿔아부러서,<sup>274)</sup> 뿔으니, 가보니까 할아버지는 앓앙 내려갔지  
만은 이렇게 가만히 눈(누운) 초래로 고만히 신체가 고만히 있어. 경헨 그 신체 건  
져다가 이제 그 평대 그 2키로쫌 넘어강, 이젠 노양오네 물오민 옆으로 이제 담을  
싸여놓고<sup>275)</sup> 여기 이제 산기치룩은 안 만들어가지고, 앞의 유기엔 헌건 그 놋그릇  
그튼 거. 그 당시에 다 해단 놓고 바다에 땡기단 거 다 해단 물으니까, 제국시대는  
되난 그 속에 이제 막 귀물들이 많이 있다고 이 사름 파래각<sup>276)</sup> 저 사름 파래각  
해도 밤이 입초 샐거든. 조손덜이, 못 파가게. 거난 이제는 봉분 다 헤쳐놔두고 이  
젠 그거 유기만 놔두고 이렇게 세면공거리<sup>277)</sup> 싹 해놔원에 그 우의 태<sup>278)</sup> 입저가  
지고 이젠 또 다완, 혼 이층집 정도 만허게 크게 만들어놔.

그 저 곳디는 가면은 부대각 하르방산 어염에로 어느 지경 간다 아무 질로 간다.  
또 뭐 해영 어느 집의 조손이 잘 낳다 허면은 부대각만이나 뭐 해시냐, 영 해연.

271) 安康

272) 朔日

273) 마르느거라

274) 모자라버려서(말라버려서)

275) 쌓아놓고

276) 파내가고

277) 시멘트콘크리트

278) 잔디

### 30. 영등 하르방

제 보 자 : 한복녀(여·67세, 산8번지)

조사일시 : 1994년 7월 31일

조사장소 : 한동리 제룡동 앞바다

영등하르방이 이? 언제가 들어오나 허면은 옛날에 터워 타 가지고 매일 고기 낚으래만 가. 고기 낚으래만 가다가 하룬 바람이 막 췌어, 바람이 일진풍, 동남풍, 서풍 영허니까, 바람 이름이 거난 하늬보름은 서쪽으로 동쪽에 가는전 남자, 남편 이고, 절 로이 오는 거는, 그 남편 작은 각시, 씨앗이고이? 또 셋보름으로 오는건 큰, 조강지처 각시고이? 그러니까 항상 마포름은 인간에 해만 시가지 이역<sup>279)</sup>갈 꺼 하나도 없어.

셋어멍, 큰어멍에 이젠 옛날은 보리를 도고방애<sup>280)</sup>에 지연 먹었주게, 거난 지는 낮의 낮잠 햇뜨랭이<sup>281)</sup> 갈라전 잠 잘자다가, 이제 낮의 아침이 왕 보면은 큰어머니 가 이제 보리를 찍엄서. 방애에 낱 이어도 방애 이어도 방애. 요년이 이제 밭디 가서 검질 맬 정도만 되면, 비가 아시당 내다 굴길꺼니까<sup>282)</sup> 오늘 보리 지엄 널어똥 감시라, 해연 오랑 곱안<sup>283)</sup> 봤다가. 이제 경 허난 혼 사오시가 넘어서 가니까 비가 아시당 착허게 굴기니까 이젠 비가 와. 큰어멍은 밭디 검질 매레 가다가 이제 보니까, 이젠 보린 흙복 젖어 버렸거든. 항상 경 해여. 이제 어떻게 포신<sup>284)</sup>을 허민 좋으린 해연. 지는 놀다가 오면서 해여도 먹고 살곡, 큰어멍은 만날 뭐 해도 영허니까, 이젠 혼번은 해보자. 나도 혼 번은 애 맥이겠다고.

이젠 남편허고 짜가지고 이젠 셋보름을 막 왕창 불었어. 거니까 바다에서 뭐 듬복도 올라오고 뭐 고기도 올라오고 허니까 곡석이 너무 좋고, 이 제 마보름은 이제

279) 이익

280) 도고방아

281) 해가 뜨도록

282) 뿌릴꺼니까

283) 숨어

284) 양값음(?)

첫각시로 이제 마보름만 불어가니까 사름이 너무너무 후러가지고<sup>285)</sup> 정신을 못출리고 곡석도 해 가고, 이젠 그 곡석이 그냥 너무 그냥 홀타버 가지고 아니들고 허니까. 이제 남편보고 저 보라고 너무 이제 곡석이 저영<sup>286)</sup> 마보름이 들어와 가지고 우릴 못살게 구니까 농서, 일년 농서 망치고 안해시넌. 첫각시광 혼번 좀 드르 워허랜. 그 하르바지는 이젠 그때부터는 이거 아 첫각시가 영 손해가는 거로구나행 이젠 허품 덜 워 했는다.

고기 잡으레 이제 갔다가, 이젠 허난 그건 이젠 워 끝나고, 영등하르바지는 이젠 터워,<sup>287)</sup> 이제는 배지만은 그때는 터워엔 현 건 나무 영 꿰어가지고 즉 워해거네 혼자타고 혼자해연 오는거. 그것이 이젠 갔다가 오니까 불락을 몇점 뉴아 완 이젠 죽항 안에 탁 들어오니까, 이젠 벅기면서 바람이 너무 쎄 또 와지니까 하르바지 굳는 말이 에 이제는 나도 살았다. 바름 너가 너무 세웠지마는 나가 이기고 들어 왔다. 겐 닳을 혹허게 데끼니까 그 보름이 그 시간에 이젠 다시 막 불어가지고 진작 불언 가니까 그 하르바지허고 이제 외눈박이 땅에 이자 쏘<sup>288)</sup> 나라에 가부렀어.

세계 각국으로 넘어 가지고 간, 그디 가보니까 호랭이광 범, 워 아니 나는 짐승 어시 다 나고 허니까 이젠 자기네 반찬 들어왔다고 막 가만히 앓아도 반찬 들어왔던 막 지켜지는거라.<sup>289)</sup> 거난 이제 굳는 말이 나는 이제 죽을 고탈을 당했구나. 이것이 다 첫각시랑 너무 좋아허기 때문에 너무 영 됐구나. 이젠 허는 말이 이젠 그 외눈박이 땅에 강 살자 살자 허니까 제도 육은 변통을 해 가지고 밤이민 이젠 배를 탕 나오젠 그 하르바지가 막 여산을 꾸며가지고 이젠 배를 타서 이제는 삼<sup>290)</sup>을 안 삼아도 그때는 삼 삼는 것이 열남<sup>291)</sup>이라 열남뿌리엔 현 것이 이 뿌리에가 갈아가지고 삼씨 갈아가지고 저 대, 수리대 모냥으로 막 나면은 겁데기 배경 그걸로 이제 그 열남대가 물랑 놔뒀다가 걸 불붙여 가지고 이 담배도 불이고, 불어가지고 밥도 해먹고 그 때 당시는 불락이 어서부난 해났주게.

284) 양값음(?)

285) 드세가지고(?)

286) 저렇게.

287) 터워(땃목)

288) 다룬

289) 좋아하는거라

290) 마(麻)

291) 삼나무

경허난 그 남, 열남뿌리를 이젠 불붙여 가지고 그 호랭이, 개는 불보민 노래지<sup>292)</sup> 알아개? 노래니까 이젠 몽천 배에 실러. 어 그거 테우에 시꺼가지고 이제 오다가 오란 해가니까 어떻사 알아신디 호나(하나) 앓 시작 허난 그 호랭이, 개, 그디 사람들이 이젠 막 알아 가지고 이제 제우 제우 심어다 노치니까 이젠 보내뵤다고 너 몬여<sup>293)</sup> 그 훨 충<sup>294)</sup> 물론 사름이니까 너 몬여 가라, 개 보고 가라, 호랭이 보고 가라, 그리 해도 호랭이도 무서왕 못가, 개도 무서왕 못가, 사름도 훨 충 몰르니까 못가 영 해 가니까.

이제 열남불 부쳐 가지고 팽롱 팽롱 팽롱 해가민 또시 회영 오다가 배 조꼳더레 올 정도 막 되가민 불을 붙여가지고 이젠 또시 팽롱 팽롱 팽롱 막 이렇게 해가면은 또시 저레 또 돌아가, 타고 돌아가다가 또 그 불이 이제 팽롱 팽롱 허젠 허민 널(노를) 못 저스니까 그걸 따시 그 우에 놔두고 널 젓젠허민 그 불을 못 붙겨 아나. 못 보면은 따시 또 저만을 가문, 하르바지가 막 배고프고 막 뭐해노난 이여싸나 이여싸나 소릴 불러야 힘이 나와가지고 이젠 올겨니까. 이여싸야 이여싸야 소릴 해 가면은 아 이제 불 꺼졌다고 이제 또시 막 그 호래이허고 개허고 돌일 보내면서 이제 그것 강 이젠 심어 오랜. 허민 회영 따시 배 조꼳더레 막 와가민 그제는 또시 그 불붙인걸 이젠 막 이렇 게 막 들러. 들러가면은 다시 돌아가. 그 호랭이, 개가 따시 그 지네 고향더레 돌아가 돌아가다가 따시 이젠 또 돌아 저만이 가는 줄 알면은 또 이젠 하르바지가 이젠 또 이녁 제주도로 이젠 돌아와. 오다가 오다가 이젠 결국은 집의도 못오고 바다에서 헤맨 죽었지개.

죽언 일년에 혼번씩 영동 이제 정월 그믐날은, 이제 그믐날은 제주도 들어 와가민 셋보름이 막 고요했다가 쳐부러가지고 바람이 훈디 오고 또 보름추지<sup>295)</sup> 해가지고 이제 영등맞이 이제 여기서 잘 지내주면은 코삿해영<sup>296)</sup> 여기서 뭐허곡, 영등맞이도 안 지내주곡 집의서 목수질을 허나 옷에 풀을 허나 방을 도비<sup>297)</sup>를 허나 허민 구데길 그냥 막 바락허게 해다가 그집의 넘어와동 가. 영등하르방이, 심체로<sup>298)</sup> 게... 널

292) 놀라지

293) 먼저

294) 헤엄칠 줄

295) 바람차지

296) 만족해서

297) 도배

298) 심술로

어봐동 가불 민 이제 그해 내냥<sup>299</sup>) 그 구데길 치우질 못해여. 경허는 역사라. (조사자 : 구래기가?) 구래기, 구래기, 그 막 온갖 벌거지...<sup>300</sup>) 게니까 오라서 코사 잘 지 내주곡 이제 자손덜 편안하게 해주랜 바닷가로 강 이제 코사지내곡, 집의서도 코사 지내면은 구래기도 없곡, 이제 농사도 잘되곡. 이젠 경 안허면은 이제 심서로 옷에 집의서 이제 풀을 했던, 방 도배를 했던, 이제 목수질을 탁탁한 못구녕을 박았던 뭐 허민 심네로 자기네 신디는 뭐 대접 안허고 너네 일만 출렀다고 이렇게 경허지.

### 31. 동물들 굶하는 이야기

제 보 자 : 한복녀(여·67세, 산8번지)

조사일시 : 1994년 7월 31일

조사장소 : 한동리 계룡동 앞바다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이 영물의 짐승이라고, 개도 오래 질르면은 여우가 되가지곡, 또 고양이도 오래 질러가면은 여우가 되가지곡 사름우의 꼭 더 놀자곡. 게난 될 수 이시민 고양이나 개나 안질르는 게 켈이라 사름의 집의는. 왜 그러냐면 개는 질롭다가 이제 사논 개를 좋게 남의 집이 가서 귀여움 받으게 질락지민 좋은 디, 뭐 보까당,<sup>301</sup>) 보개탕<sup>302</sup>) 허래만 팔아지지, 그렇지 못허주게. 경허난, 경허민 이녀 다부 죄받지.

고양이는 질락가면은 이제 집의 들어가지고 막 이 주연(주인)이 허는 행동대로 다 허주게, 고양이는 문도 잠근거 어떻게 해다가 췌대 해다가 다 열고, 샷시문도 열고, 이제 그 좁그는 그 뭐 혼 두번만 보문 고양이 다 알아. 경허기 떡분으로<sup>303</sup>) 주연이 어디 가불면은 애기광도 ... 이제 심설(심술) 부러가지고 애기도 이제 어디 강 디물라불고...<sup>304</sup>)

---

299) 내내.

300) 버러지

301) 뷰아다가

302) 보신탕

303) 그렇게 하는 덕분으로

304) 디밀어 버리고

하루는 고양이도 질롭다가 너무 만 동네 고양이를 돌아단 놓고, 이젠 집의서 하도 행패부리니까 그 주연아빠가 고양이 불을 쳐부렸거든.<sup>305)</sup> 고양이가 데려오지 못하게 남의 고양이를 못 데려오게. 아빠가 좀 잠시니까 그 봉알을 간 딱 짚연. 자기가 해부니까 대신 그 포신타이라고

이제는 그 하르바진, 그 하르바지는 죽어불고 이젠 뒷해는 거시기 여자가, 고사리 꺾으래 간 보니까 고양이하고 족제비하고 개하고 서이가 영 모여앉안. 영 해연덜 막 굶을 하여. 고양이는 킁킁 애응 허멍, 족제비는 배비조조 킁킁. 게난 굶을 막 하여. 배엄 잡아당 놓고, 평도 잡아단 막 걸쳐놓고 또 몰팡덜토<sup>306)</sup> 해단 놓고, 쇠팡덜토 주운 거 해당 막 옆의 놔놓고 해 놔가지고 이제 막 자기네끼리 모여 앉안. 이젠 고양이 들러키는거<sup>307)</sup> 이제 허면은, 족제비도 들러किन 또 허곡, 족제비 들러किन 출 추면서 배비 종족, 족제비는 그러허면은 고양이는 애응허면서 킁킁, 킁킁 허는 것이 그 북 두드리는 소리, 그 팽 두드리는 소리라. 곱아듬서로 보니까 그 우리 질러난 고양이이라 우는 거 보니까. 고양이 그 북치는 고양이는 아프니까 가만히 옆의 누워 있고 다른 것들은 모여싼 곳을 그렇게 허니까.

글로부터 이거 고양이도 안질롭곡, 개도 질루면은, 오래 질러가면은 이제 주연허는거 다 빼먹젠 허곡, 주연 좀자는디 강, 방안에 강 좀자젠 허곡. 주연 허는거 못하게 허면은 심서부리고 또 경허다가 팔아불면은 남의 집의 귀여움받게 팔아불면은 좋은디 (칭취불명) 잡아먹어 불면은 다부 죄반아.

305) 거세를 해 버렸거든.

306) 빼들도

307) 뛰어다니며 시끄럽게 노는 모습

# 신 앙

## — 목 차 —

- I. 개관
- II. 공인종교
- III. 신흥종교
- IV. 민간신앙

## I. 개 관

한동에는 공인종교는 물론이거니와 무속신앙까지 두루 퍼져 있다. 여기서는 공인종교와 신흥종교, 민간신앙으로서 부락신앙과 개인신앙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공인종교로는 예수교 장로회, 대한불교 조계종, 천태종, 수운교가 있다. 한동은 무속신앙에 대한 믿음이 강한 터라 기독교는 크게 세력을 펼치고 있지는 못하다. 한동교회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과 협조가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신도수는 매우 적다. 천태종 한동지부는 문이 폐쇄되어 있어 조사할 수 없었고, 동법사는 주지스님이 외지에 계신 관계로 다른 스님을 통해 얻어 들을 수밖에 없었다. 수운교 한동지부 관음암은 수운 최제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신흥종교로는 삼천교를 들 수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많이 경계하는 편이다.

민간신앙으로 유식부락제인 포제가 있는데 1993년까지 행해지다가 포제단 있던 곳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마을회의를 거쳐 1994년부터는 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다. 한편 지금도 숭앙되고 있는 무속부락신인 구일한집의 세가 크게 자리잡고 있어

마을의 큰 행사는 당에 가서 모두 보고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왕뚝거리에는 본당, 중산, 삼천백매가 같이 위치해 있어 한동주민은 본향당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중산에서 제를 지낸다. 또한 한동은 바닷가 근처에 자리잡고 있어 마을 주민이 어업에 다수 종사하기 때문에 망애물에 있는 남당에서 제를 지내기도 한다.

개인신앙으로 조상신을 모시는 집뿐만 아니라 철갈이하는 집도 서너 가구에 달한다. 또한 조왕신과 안철성 모시는 집이 대다수에 이르고 돛제나 요왕제를 지내는 집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도 무속신앙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II. 공인 종교

### 1. 동법사

- 1) 명칭 : 대한 불교 조계종 동법사
- 2) 위치 : 한동리 개판모루 동산
- 3) 건물 : 대웅전, 요사처
- 4) 연혁 : 1964년 유향심(법명 : 유명) 스님의 자산에 의해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스님과 친분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앙행위가 이루어지다가 점차 마을사람들까지 확대되었다.
- 5) 신자 : 신자수 80여명(마을주민 20여명, 기타 제주시, 중문, 서귀포, 서울 등 타지에서 온 비구니들)  
신자의 연령층은 40대에서 80대에 이른다.
- 6) 행사 : 연중행사로 정월보름, 사월 초파일, 칠월 철석, 백중, 시월 보름에 불공을 드린다. 또한 마을 행사로 정월 그믐께 날을 택해서 요왕불공을 드린다.

### 2. 한동교회

- 1) 명칭 : 예수교 장로회 한동교회

2) 연혁 : 1982년도에 한동에 집을 빌어 자리를 잡은 후, 1988년도에 타고인들과 친구 목사의 헌금(650만원)으로 현재의 35평 건물을 신축했다.

3) 대표자 : 이순경 목사(65)

4) 시설 : 예배당, 사택, 독서실 등을 갖추고 있다.

5) 신도 : 3~4 가구 정도로 신도수가 적다. 교인은 17명, 주일학교 참석은 20여 명, 성경학교 40명 쯤 된다. 연령층을 살펴보면, 초·중등 학생과 50~70대 부부가 전부로 청장년층이 없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6) 운영 : 신도수가 적어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관계로 생활비를 보조 받고 있는 형편이다.

7) 전도방법 및 주민들과의 관계 : 한동은 무속신앙이 강하게 작용하는 터라 그리 활발하게 전도되고 있지는 않다. 처음에는 무척 적대시하였는데, 마을 청소는 물론 소녀가장 보호, 꿈나무 어린이집 운영 등을 하다 보니 점차 신임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은 믿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신자라고 해도 생업에 바빠 주말예배마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3. 수운교

1) 명칭 : 수운교 한동지부 — 관음암

2) 연혁 : 수운 재우가 수련 수도하다가 3월 12일에 참형 당할 때 천상에서 천관들이 학을 타고 와 수운선생을 하늘로 데리고 갔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하여 수운교가 생겨나게 되었다.

단기 4280년(서기 1947 丁亥) 丁亥일에 고봉언씨가 천법당 대지 665평을 기증하였고 다시 新建화주가 대지 68평을 내줌으로써 辛未年 11월 24일에 천법당을 건립할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해 12월 8일 초례지 고덕화 씨에 의해 아미타불상을 모셔오고 천법당을 건축하게 됨에 따라 창건화주가 되었다.

3) 대표자 : 능호 오진국(76세)

4) 예배장소 : 천법당

5) 재단 및 신위

① 금단 — 옥황상제(하늘님)

② 일월양대

③ 삼태육성

④ 사대철성

⑤ 아미타불

⑥ 단군

⑦ 석가세존

⑧ 太上老君(노자)

⑨ 大成至盛文宣王(공자)

⑩ 수운天使(나옹대사)

· 단군 > 석가세존 > 태상노군 > 공부자 순으로 신의 위계에 차등이 있다.

6) 기도예식

① 기도일

- 선망회식 : 초하루~보름
- 일요일마다 法日이라 하여 따로 기도
- 백일 기도

② 정규 기도일

- 정월 보름
- 사월 보름 — 탄강일(최제우가 태어난 날을 기념)
- 9월 17일 — 9월 18일 열반을 기념
- 10월 보름 — 개교일(서울 서대문 수운교 간판 단 날)

③ 기타

- 칠월 백중
- 칠월 철석
- 신자들이 죽었을 때 : 입관 성복시, 일포날 아침 저녁, 출상시, 葬地 하관시,

소상·대상시

- 집지을 때 : 성주경(백살경)을 읽어 기도해 준다.
- 조왕기도시 : 매달 14일과 그믐 신시~유시에 기도해 준다. 왜냐하면 한달에 2회(매달 14일, 그믐 술시) 조왕신이 하늘에 올라가 집주인 행위를 고하는데 좋게 말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이다.

- 산신제 지낼 때

• 이상의 기도예식 중, 3월, 9월, 선달 그믐엔 천법당에서 하고 나머지는 신자의 집에가서 기도해 준다.

④ 기도방법

- 양손을 모아 명치에 댄 후 무릎을 꿇고 9회 참배한다.
- 대개 아침·저녁으로 하고 천법당에 들어설 때도 한다.
- 천일기도를 할 때는 소례 평례 대례 중례로 절한다.

7) 신도

- 성산 30호, 김녕·월정·수산·세화(경술년 분교) 현재 100호(평대까지 포함)
- 연령층 50~90歲 이상인 부녀자 또는 노인

8) 운영실태

- 기도공덕비로 돈을 육지본부로 보낸다.
- 신도들에게는 밥지를 때마다 한 술 분량의 쌀을 식구수대로 덜어 벽돌 위에 올려 놓아 조왕신에게 바친다. 그 모아진 쌀들을 팔아서 반은 유지비로 반은 서울 지부(서울 서대문구)로 1년에 2회 올려 보낸다. 그러면 서울지부에서 감독사(총무법사 감리)를 두어 명세서를 작성한후 각 지역에 보내며 월급을 주기도 한다.
- 참고로 관음암 경내의 면적은 915평에 달한다.

9) 기타

- ① 교리원최상 무속신앙을 믿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향풀이 등이 성하고 있어 놓아 두는 편이다.
- ② 요왕제를 바닷가 혹은 천법당에서 지내기도 한다.
- ③ 택일과 작명을 해주기도 한다.

### III. 신흥종교

#### 1. 삼천교(三天教)

1) 숭배신 : 노자

神力 : 治病

2) 수련일 : 15일 강실(신이 내려오는 날) 기도

본사강실 초5일, 서귀벌어초 강실 초7일, 지법궁 강실 9일, 포고강실 15일, 용천궁 강실 17일

3) 대표자(교주)

연주님(도호관) : 신대선녀 고대호(47·女)

4) 내력 : 天·地·人 삼합정기가 모여 이루어진 종교라 하여 三天敎라 하고 있다. 삼천교는 처음 해월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천지운이 바뀌어 노자를 모시게 되었다. 30년 동안은 도를 닦고 20년 동안 도수를 맞추어 50년이라는 역사가 흘렀다.

5) 수련법(예배법)

아침 저녁 5시에 냉수로 목욕한 후 흰 한복을 입는다. 시간은 꼭 지키며 설법을 들을 때부터 강법 끝날 때까지는 움직일 수 없다. 수련할 때는 합장한 채로 '상제님 도솔조화 서왕모님 도덕조화' 만을 외며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수련시간은 대개 두 시간으로 한 시간은 운궁도 설법을 듣고 한 시간은 기도한다. 수도할 때는 생식을 하여야 하며 火食을 금한다.

천법당에 들어갈 때 1회, 나올 때 1회, 조문갈 때 1회 절을 한다.

6) 수련장 : 법당

삼천교에서는 노란색은 서왕모 黃昏도덕을 뜻하고 흰색은 백양운을 뜻한다. 이 법당은 노란색과 흰색으로 색칠되어 있다.

방석은 '영자리'라 한다.

7) 교인현황

창교 당시는 교인이 많았는데 개혁법으로 인원이 감소하게 되어 지금은 80세 할머니 중심이다.

여기서 개혁법이란 개혁통이라고도 하는데 제사 명절을 하지 않는 교리를 말한다. 개혁법 이전에는 향, 초를 놓았었는데 제사 명절은 단순한 형식적인 것으로만 여기게 됨에 따라 하지 않게 되었다. 영들은 천상으로 올라가 꽃향기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제사 명절시에는 꽃만을 준비하면 된다.

8) 금기사항

합부로 설법을 하지 않으며 술, 담배, 외박을 금한다. 또한 소고기와 황돔을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제의 길을 알려준 것이 소이며 서왕모에게 길을 안내한 것이 황돔이기 때문이다.

9) 운영실태

## 漢東里 學術調査報告

15일에 강실이 있는데 자신의 능력에 맞게 돈을 바친다.

적자운영으로 인해 본궁(서귀포 하례리)에서 월급을 보충해 준다.

삼천교 옛 법당을 창건할 때 회사한 신자 25명(2천원에서 2만원까지)

천법당 건립할 때 회사한 신자 51명(만원에서 20만원)

### 10) 기타

① 교사 : 忍耐, 理解, 禮度, 注意, 言行

② 운수련 :

천지지사 통일통영

조화사생 통일통영

중국도서 합성합심 통일통영

만사세계 통일통영

③ 도의원법 :

후천법 미래선법 대도정법

세계도수 맞춘법

오십도중앙 열린법

축미도수 맞춘법

개혁개혁 시킨법

대청경태극동 도기를 선포한다.

## IV. 민간신앙

### 1. 마을 신앙

#### 1) 포제

(1) 제명 : 포제

(2) 제신 : 포신, 토지지신

(3) 제일 : 정월 上丁日 또는 亥日

(4) 제비 : 처음에는 각 가호마다 제향비를 걸어서 해왔는데, 수년전부터 향회비

로 충당해 왔다. 제복과 제기(祭器)는 마을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5) 제물 : 각 신에게 따로 준비하는데, 메 4개씩 8甕, 돼지고기 2마리, 나물(생채 : 미나리, 미역, 숙채 : 고사리, 콩나물), 실과(사과, 배, 대추, 당유지, 밤, 꽃감)

(6) 의식절차 및 방법

① 포제향회 : 남성들에 의해 관리된다. 마을회의에서 제향비를 준비하고 제청을 정하고 제관을 뽑는다. 뽑힌 제관은 지정된 제청에서 祭日 3일 전부터 합숙하여 정성을 한다.

② 제관

初獻官 : 祭官

亞獻官 : 祭官

終獻官 : 祭官

執 禮 : 笏記를 부르고 제를 총지휘한다.

大 祝 : 酬神에게 祝文을 고한다.

小 祝 : 土地之神에게 祝文을 고한다.

謁 者 : 일종의 안내인으로 집례가 笏記를 읽는대로 제관을 안내한다.

贊 者 : 行祭時에 興을 부르는 사람

司 樽 : 行祭時 술병을 관리하고 잔에 술을 부어주는 사람

奠 爵 : 헌관이 올리는 술잔을 받아 祭상에 올리는 사람

奉 爵 : 부은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는 사람

奉 爐 : 향로를 받드는 사람

奉 香 : 향을 받드는 사람

典祀官 : 제물을 총 관리하는 사람

都預差 : 예비제관

③ 제계 : 뽑힌 제관들은 祭廳에 入所, 3일 동안 精誠을 하는데, 대나무를 세워 금줄을 쳐서 부정한 자의 출입을 막는다. 제관들은 공동생활을 하며 부부동침을 피한다. 이 기간에는 동물의 시체나 사람의 영장을 봐서도 안되고 더러운 물건을 손에 대지 않는다. 또한 개고기나 말고기 음식을 금한다.

④ 제사 : 포제 지내기 전에 심방과 서기, 부락의 대표자가 집례가 챙겨주는 메나 과일 등을 가지고 당에 가서 告祀를 지낸다.

祭日 저녁 6시경 祭廳에서 제지내는 곳까지 술앞으로 물을 뿌리면서 간 다음 제물을 진설하고, 제는 子時에 지낸다.

⑤ 음복 : 제청에서 돼지고기를 삶아 음복하고 머리는 초헌관에게 드린다.

(7) 작년부터 포제를 폐지했는데, 포제를 지내지 않게 된 이유는 제단있는 곳으로 길이 나게 됨에 따라 합의에 의해서 지내지 않기로 했다.

## 2) 구일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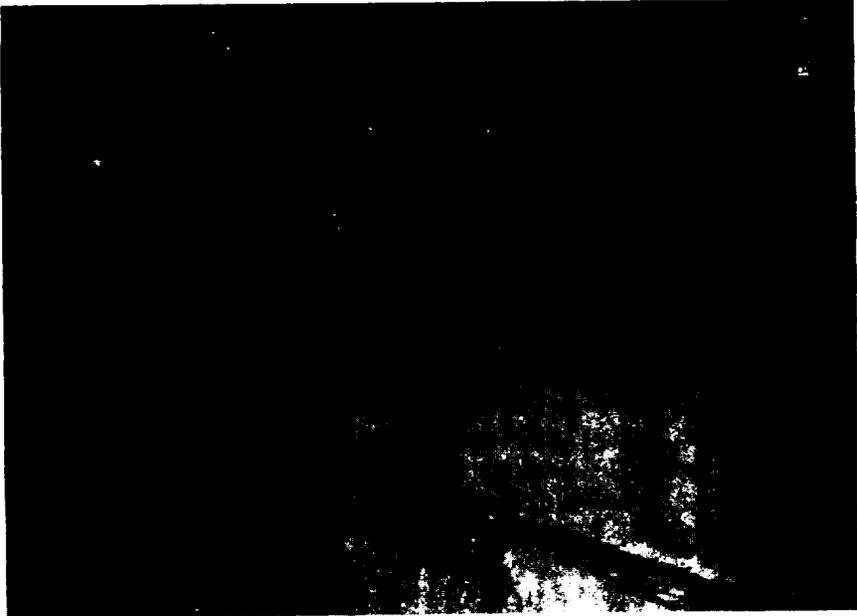
(1) 명칭 : 구일한집

(2) 제신 : 구일 할머니, 구일 할아버지

(3) 제일 : 정월 13일 대제(신과세제), 7월 13일 마불림제, 10월 13일 시만곡대제

(4) 제장 : 왕뚝거리의 당

(5) 당 형태 :



(6) 제물 : 큰당에 메 1, 중산에는 메를 양푼에 떠서 올리는데, 무남제(순가락)를 기원자 고향의 堂神數만큼 쫓는다.

메 1, 술, 채소(고사리, 콩나물, 시금치 또는 미나리) 과일 3색(사과, 배, 귤), 돌레떡, 제숙, 삶은 계란, 쌀, 물색(노란색, 파란색, 붉은색) 명실, 명쇄(3천원~만원)

(7) 제의 집행자 : 매인심방 강태유씨

강태유씨는 본래 한동 출신인데, 9세때 병을 앓아 낫지 않으므로 심방이 되기로 하여 여러 유명한 심방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무업을 배웠다. 그좌음 하도리 오씨 심방(女)에게 수양아들로 들어가 굶을 배운 후, 수양어머니의 맹두(무업 수호신의 상징인 무구 : 신칼, 산판, 요령)을 물려받고 심방으로서 독립했다. 그후 한동리 당의 매인심방인 허정화씨가 돌아가시자 그 매인심방의 맹두를 물려받아 한동리 당의 매인심방이 되었다.

(8) 내력 :

한동 상우님은 송당에서 분파되어 온 신으로, 송당신의 셋째 아들이었다. 9월9일에 부대오름 중허리에서 구일 할마님을 만나 부부간을 삼았다. 옛날부터 힘이 장사라서 배로 밭을 갈았다. 그러던 중 구일할망이 점심을 갖다주기 전에 시장기가 심하여 밭을 갈던 소를 잡아 먹었다. 시장기가 없어지자 돌진밭 뽕진밭을 하루에 갈았다. 구일 할머나가 이 사실을 알고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하여 따로 살게 됐는데 어느 곳을 가도 몸에 맞지를 앓았다. 그러던 중 비지남밭 누룩남밭 지나 왕뚝거리라고 하는 돌이 무더진 곳에 좌정하게 되어 할아버지는 바람위, 할머니는 바람아래 자리를 잡은 것이 지금 한동 본향이다.

제단에서는 왼쪽이 구일 할마님이고 오른쪽이 구일 하르방이 좌정한 곳이다.

(9) 본풀이

본주토지관(本土土地官) 여러불법(如來佛法) 무안한세앗서 솟아난 여러불법. 가운데도 소천국과 내외간(內外間)이 왜여, 큰아들(長男)은 거머울 문곡성이고 둘 찾아들(二男)은 괴여(漢東) 본산국인디,

괴여 본산국은 동네구 아음하는 열두 집서관(十二執事), 운문대단(雲紋大緞) 십수(夾袖) 뽕(藍)비단 쾌자(快子)에 화방주(花紡紬) 저전대(戰帶)에 산웨털(山牛毛) 흑전립(黑戰笠) 운문대단(雲紋大緞) 안을 받쳐, 대공단(大貢緞)은 불림근 소공단은 꿩음천 밀화(密花) 브튼근 왼팔(左腕)에 풀쥐거리 메여, 흑각곡(黑角玉) 가르베기 철궁(鐵弓)에 왜전(矮箭) 맥여, 혼활(一矢) 떼여 남도 추지 물도 추지 질도 지방관(地方官) 토지지관(土地之官).

낳는 날 생산(生産) 죽는 날 물고(物故) 장적(帳籍) 통적(統籍) 오개열통(五家十統) 추지하고, 부대오름 중허리서 구월구일할망(九月九日姑) 만나 호침(好妾)호

고, 정월(正月) 열사올날(十三日) 대제일(大祭日) 칠월(七月) 열사올날 마불립 시월(十月) 열사올날 만국대제일 반야 삼천병매(三千兵馬) 일만초깃발 거느렸다.

(이 본풀이는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6. 男巫 허정화 口誦을 발췌한 것임)

#### (10) 제차

제는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삼석실음 : 모든 무악기(징, 북, 설쇠)를 3회 쳐서 굿 시작을 알림.

나. 제물진설 : 메를 올림.

다. 축원(열명) :

① 축원오는 단골 순서로 제물을 올린 다음 열명을 올리고 각산 받아준다.

여기서 말하는 열명올림이란 참가자 가족의 성씨와 나이를 신에게 고하고 축원하는 것이며, 각산받음이란 그 해 각 가정의 길흉을 점 쳐주는 것을 말한다.

단골 : 상단골은 경주 김씨, 중단골은 부씨, 하단골은 정씨이다.

② 각산 받은 후 도산을 받아 준다. 여기서 도산이란 마을의 운수를 말한다.

라. 초감제

① 베포도업침 : 천지혼합으로부터 천지개벽하여 인간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형성된 과정을 노래와 춤으로 나타낸 것이다.

② 날과 국 섬김 :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굿을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신에게 알리는 대목이다.

③ 마을연유 닭음 : 마을에서 굿을 하는 사유를 신에게 설명하는 대목이다.

④ 군문열립 : 신궁의 문을 여는 과정으로, 단골들은 인정(돈)을 걸고 심방은 가창(歌唱)과 도랑춤으로써 문을 연 후에 산받음을 하여 신의 의사를 인간에게 전달한다.

⑤ 신청제 : 신을 옥황상제로부터 위계순으로 청하여 맞아들이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한다.

① 본향 본풀이 : 본향 본풀이를 하고 본향신을 청하는 과정이다.

② 본향드리 : 심방이 팔짓거리를 하고 신칼과 감상기를 들어 격렬한 도랑춤을 추다가 당신을 따라오는 모든 잡신들에게 대접하는 의미로 술, 떡, 밥, 고기를 대접하는 우봉지주잔 제차가 있다. 그 후 신칼과 감산기로 당

신이 활을 쏘며 들어오는 모습을 연출하며 제단앞에 신을 청해 들어와 엎드린다. 그러면 단골들이 모두 그 뒤로 엎드려 절을 하고 제관이 소지를 올리고 심방이 간절히 빌어준다.

㉞ 음복지주잔 : 제관들이 절하고 신이 먹던 술과 음식을 음복한다.

마. 액막이

① 액막음 : 개인의 액을 막아준다.

㉟ 제물 : 삼색(빨강, 파랑, 노랑) 물색, 피륙(무명, 광목, 시령목) 한필, 백지 1권, 팔짓거리 했던 물색, 쌀(양푼으로 하나 또는 한 사발), 명새, 지전, 붉은 수탉. 액막임이 안될 때 웃옷을 심방 자신의 관제를 벗어 올려 액을 막기도 한다.

㊱ 말미 :

옛날 수만이가 백년해골을 잘 모시고 백년해골의 지시에 따라서 차사를 잘 모셔서 장수했던 법으로 이 액을 막습니다.

마을본도 토주지관 구월구일 상우님한테 감하고 점합니다. 목숨대명 목숨입니다. 아무성 나은 몇 술(나이는 몇 살) 천우지방에입니다.

㊲ 제 방법 : 말미를 외치고 닭 목을 잡아 휘휘 돌리다가 입구쪽으로 던진다. 떨어진 닭머리가 밖을 향하면 액막은 것이라 하고, 안쪽을 향하면 액이 막아지지 않은 것이라 하여 다시 닭머리를 입구쪽으로 던지기를 반복한다. 닭머리가 입구쪽으로 향하면 죽은 닭을 칼로 잡아 신당차사를 따라온 잡신들에게 그 내장을 뿌려 대접하고 몸통은 삶아서 신에게 올려 바치고 빈다. 이어 밥께, 술께, 떡께를 넣는다.

② 도액막음 : 마을의 액을 막아준다.

바. 도진 : 청했던 신을 모두 보내는 제차로 이것으로 모든 곳은 끝나게 된다.

(11) 금기 : 돼지고기와 말고기를 먹지 않는다. 당에 가서 오줌을 싸거나 부정한 짓을 하지 않는다. 똥난 집은 피해서 간다.

(12) 기타

가. 혼례와 당신

혼례 때에는 신랑 집에서 흥세함을 준비한다. 흥세함 속에는 폐백인 무명이나 광목, 또는 시령목을 담고 그 위에 예장을 써 넣어 두경을 덮은 후 붉은 보자기로 싸 묶는다. 신랑이 출행할 때 맨 앞에 흥세함을 들고 신부집에 가서 흥세함을 드린

다. 신부집에서는 홍세함을 받아 열어보고 예장에 틀림이 없을 경우, 받아들여 안방 벽장 위에 보관하고 신랑을 집안으로 청해 들인다. 이어 신랑상과 상객상이 나오면 잔치를 벌인다. 신부가 치장되면 신랑일행이 신부를 가마에 태워 신랑집으로 데리고 온다. 신랑집에서는 다시 잔치가 벌어진다.

그 후 15일 내지 한달이 되면 신부 집에서는 홍세함에 담았던 피륙 한 발과 홍세함을 썼던 보자기를 제물과 같이 당에 가지고 가서 올리고 혼례하였음을 보고하고 고사를 지낸다. 이 때 올렸던 피륙과 홍세함 보자기는 심방이 가져간다.

나. 당제와 포제

심방은 제관 2명(초헌관과 아헌관)과 함께 당에 가서 제물을 올리고 포제 지낼 것을 알리는 의례를 지낸다. 이 때 열명하고 산을 받아준다.

### 3) 남당

행원리 남당에서 분파되어 온 신

- (1) 신명 : 남당 하르방, 남당할망
- (2) 제장 : 서동 바닷가 비릿질 망애물
- (3) 효험 : 해녀 어부의 생업수호
- (4) 당의 형태



(5) 제일

정월보름

(6) 제물 및 제의

쌀, 실과, 계란, 술, 떡, 지전, 소지, 돼지머리

제물을 차려 당에 가 진설하고, 심방이 앉아서 요령을 흔들며 해상안전과 해업의 풍요를 축원하여 준다. 축원한 후에 산관점과 제비점으로 길흉을 판단하여 예언한다.

(7) 당제 후 제의

어부의 집안에서는 당제가 끝난 후 어선에 가서 배코사를 지내고 해너, 집안에서는 당제가 끝난 후 바닷가에서 요왕제를 지낸다.

## 2. 개인신앙

### 1) 요왕제

(1) 제일 : 음력 2월 영등달(정월 그믐~2월 보름)

(2) 제장 : 포구나 바닷가

(3) 제물 : 술, 쌀, 실과(배, 사과, 귤), 계란 등

(4) 의식 : 심방을 빌어서 요왕맛이를 하고 지를 써서 드린다. 여기서 말하는 지란 자신과 용왕 영개(죽은 사람이 있을 경우)를 위해 종이에 음식을 써서 바다에 던지는 것을 말한다.

(5) 금기 : 개고기를 먹지 않으며, 상이 났을 경우나 뱀이나 죽은 개를 보면 당에 가지를 않는다.

(6) 제차 : 요왕맛이는 용왕과 영등신을 맞아들이며 기원하는 제차로 그 맞아들이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심방은 먼저 제단 앞에 1m 정도의 대를 한 줄에 10본씩 두 줄로 마주 세워 그 사이의 길을 신이 來臨하는 길로 만든 후 돌아본다.
- ② 심방이 신이 오는 길을 보고 해초가 무성해 있다고 하고, 그것을 베어 넘긴다.

- ③ 베어 넘긴 해초가 거칠어 작대기로 치운다.
- ④ 해초의 밑둥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그 뿌리를 따비로 판다.
- ⑤ 고르지 못한 그 지면을 발로 밟아 평평하게 한다.
- ⑥ 구르는 돌맹이를 삼태기로 치운다.
- ⑦ 울퉁불퉁한 지면을 미레깃대로 밀어 고른다.
- ⑧ 먼지를 비로 쓴다.
- ⑨ 먼지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고 물을 뿌린다.
- ⑩ 물이 지나치게 뿌려진 데에 떠를 깬다.
- ⑪ 떠 위에 나비를 날린다.
- ⑫ 그 위에 신이 밟아 건너올 다리를 놓는다 하며 무명을 깬다.
- ⑬ 이렇게 하여 신을 맞아들여 소지를 올리고 빈다.

## 2) 조왕제

- (1) 제신 : 조왕신
- (2) 제일 : 명절, 제사 때는 반드시 하고 정월이나 3월에는 자기 생기에 맞는 날에 한다.
- (3) 제장 : 불 있는 곳
  - 솥뚜껑 위에 쌀과 물을 떠 놓는다.
  - 평시에는 불을 켜면 불길하다고 하여 초를 켜 놓거나 하지는 않는다.
- (4) 제물 : 메, 초, 생꼬(향), 종이, 찬물, 과일을 올려 놓으나 술이나 고기는 올려 놓지 않는다. 문전제와 동일.
- (5) 봉덕이 있는 집은 문전제 상을 조왕으로 옮기기도 한다.

## 3) 돛제

세화리에서 시집 온 사람들이 있는 집에서는 돛제를 지낸다.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각 부위 별로 나누어 삶아 그 각 부위 별로 조금씩 쟁반에 올려 돛제를 지낸다. 돛제를 지낸 후 쟁반에 올렸던 것은 심방이 가져 가고 나머지는 동네사람·친족·가족들이 나눠 먹는다.

#### 4) 철갈이

밭칠성 또는 뒷할망이라고도 하는 蛇神을 모시는 것이다. 형태는 암기와를 놓고 그 안에 갖은 곡식(밭벼, 모밀, 콩, 조, 팥, 보리 등)을 넣은 다음 종이로 싸서 솟기 와를 덮는다. 그 위에 다시 주쟁이를 덮어 모신다. 철갈이는 1년에 1회 한다. 철갈이를 할 때 곡식도 갈고 주쟁이도 갈아 덮는데, 주쟁이 안의 곡식이 썩지 않은 것이 많을수록 좋다고 한다.

철갈이를 할 때 안칠성과 밭칠성에게 뿐 아니라, 문전신과 조왕신에게도 빈다. 예전에는 주민의 반정도가 철갈이를 했었는데 지금은 서너 가구가 하고 있고, 또 새 집을 짓다보니 밭칠성 모시던 것을 항아리 안에 담아 둔다고 한다.

#### 5) 안칠성

안칠성은 고팡에 모시는 蛇神으로 가내의 안녕과 부를 지켜 주는 신이다. 대개는 제사·명절 때 조상에게 올리는 것과같이 안칠성 제물을 올리는데, 주로 고팡 항아리 위에 올린다. 그 항아리 속에는 담고 싶은 곡식(모밀, 콩, 조, 밀, 밭벼 등)을 담는다. 요즘은 쌀통 위어나 상자 위에 한 양푼의 쌀을 올려 놓기도 한다. 가끔 항아리 속에 3색(빨강, 파랑, 초록) 형걸을 놓아두기도 한다. 잡식은 주로 부너자가 담당한다.

#### 6) 조상신

조상신이란 한 집안 또는 씨족의 수호신을 말하는데, 한동리에는 여러 조상신들이 있다.

- (1) 도채비(도깨비) : 4가구
- (2) 명도암 고전적 조상 : 일부 고씨 집안
- (3) 송동지 영감
- (4) 양씨아미
- (5) 책불일월 : 이선달
- (6) 기타 : 통정대부 가선대부 등 벼슬을 했던 혈연 조상이 있던 집안

제 보 자 : 강태유(男), 김덕순(女), 김인택(男),

김춘생(女·77), 오진국(男·76), 이호예(女·61)